

공군

AIR FORCE QUARTERLY
1998년 봄호(통권 제242호)

행정간행물
25090-33246-44-98003



공군본부

경 제 50기 사관생도



그 빛 재교생 진학

죽



글 차례

● 권 두 화 보	_____	4
● 권 두 언	IMF와 안보(安保)/대령 김우규	10
● 보 라 매 칼 럼	지·덕·체 전인교육의 실현/준장 장성문	12
● 특 집	경제위기 극복은 나로부터/대령 이규석	16
	'주인정신'으로 극복하는 경제위기/중위 윤중근	23
	IMF시대의 잘못된 경제상식/중위 여한구	26
● 공 군 논 단	21세기를 향한 군정신교육의 국민인성교육 도량화 모색 /준장 김 규	36
	신(新) 공군기본교리 개정 배경 및 의의/중령 안재봉	48
● 시 사 안 보	한일어업협정 파기의 분석과 전망/소령 조흥제	59
	IMF 상황 인식과 우리의 각오/중위 신동현	68
● 나 의 주 장	IMF체제 하에서의 나의 제언/6급 이용기	71
	삶에 대한 책임/상병 장원석	74
● 취 미 생 활	축소된 세계를 만드는 즐거움/병장 최창환	77

글 차례

● 화 보	_____	81
● 병 영 이 야 기	눈물젖은 케이크/병장 박희권 _____	89
	30년 군 생활을 돌아보며/준위 김이호 _____	91
	오늘 나는/상병 주원석 _____	93
● 정 보 비 행	CBT(파학화 교보재)란 무엇인가/중령 채재승 _____	95
	엘니뇨와의 전쟁/소령 이경덕 _____	99
	차량 운전자간 수신호 방법/소령 우맹호 _____	103
● 문 화 마 당	황금비늘/병장 이몽룡 _____	106
	보이지 않는 자와 사랑나누기/병장 김경호 _____	110
	끝없이 날고자했던 Jazz Man, Charlie Parker /상병 장재용 _____	113
● 만 화	I am Fighting/고석현 _____	115
● 공 군 문 단	나의 헌혈이야기/하사 김영빈 _____	124
- 수 필 -	어떤 뷔페잔치/공군가족 노희상 _____	127
	우리의 벽을 허물며/병장 연성흠 _____	129
- 동 화 -	잃어버린 선물/일병 이기영 _____	132
- 시 -	씨는 자라서 하늘이 된다/시인 박웅진 _____	134
● 글을기다립니다.	_____	136

제25대 공군참모총장 취임

“신뢰받는 21세기형 강한 공군 육성” 다짐



〈박춘택 신임총장이 천용택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지휘권을 이양받고 있다〉

제24대 공군 참모총장 이임식 및 제25대 공군 참모총장 취임식이 3월 6일 천용택 국방부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공군본부 계룡대 연병장에서 거행되었다.

제25대 참모총장으로 취임한 박춘택 대장은 공군기와 함께 막중한 임무를 완수할 지휘권을 인수하고 “신뢰받는 21세기형 강한 공군 육성”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였다.

제25대 공군참모총장 취임

- ▶ 박춘택 신임총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 ▶ 이임 및 신임총장이 열병을 하고 있다.



- ▶ 천용택 국방부장관, 이광학 이임총장, 박춘택 신임총장이 손을 굳게 잡고 공군의 발전과 서로의 앞날을 축복하고 있다.



경제 살리기, 공군이 앞장선다

공군은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금 모으기 운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제 살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장병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절약 가능한 부분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국가 경제난 극복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군의 경제 살리기 운동을 조명해 본다.

▶ 부대 입구에 설치된 차량 5부제 알림판



▲ 공군은 부대 내에 금 접수처를 마련하여 “금 모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 2월 한 달을 폐자원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여 각 부대 폐자원을 적극 수거하였다. 특히 16전비는 폐자원을 수거하여 마련한 돈으로 불우 이웃을 돕기도 하였다.



◀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고 경제 살리기 운동에도 일조하기 위한 '애국 헌혈' 운동이 최근 군부대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 공군본부는 지난 2월 12일, 경제난 극복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장병들의 경제 마인드 형성을 위해 송자 명지대 총장을 초빙, 'IMF 체제 이해와 우리 군의 극복방안'이란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가졌다.



- ▶ 자전거 타기가 병영의 신
풍속도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승용차 대신 통근버
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례
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 ▶ 부대 내에 상설 물물교환 센터를
설치하여 나눠 쓰고, 바껴 쓰는 지
혜를 발휘하고 있다.

- ▶ 건물 출입문이나 사무실 등에 경제
난 극복을 위한 실천사항들이 부착
된 경우가 자주 목격된다.

작지부내 경제난 극복 실천사항

- ▲ 불필요한 전기 사용금지
 - 퇴근시 사무실 전기 플러그 제거
 - 미사용 컴퓨터/프린터 전원 차단
- ▲ 불필요한 차량운행 자제
 - 카풀제 운영
 - 승용차 5부제严格执行
 - 차량 경제적 운행기법 적극 이행
- ▲ 물 아끼쓰기
 - 양치질 컵 비리(물 받아서 쓰기)
- ▲ 사무용품 아끼쓰기
 - 이면지 적극 활용
- ▲ 부태전화 사적용화 금지
- ▲ 적정 실내온도(16℃~18℃) 유지
- ▲ 온도 10℃이상시 도보출퇴근
- ▲ 불필요 전열기 사용 금지

공군

AIR FORCE QUARTERLY

1998년 봄호(통권 제242호)



參謀總長 指揮方針

完璧한 戰備態勢
實戰的 敎育訓練
效率的 資源管理
斬新한 空軍文化

공군본부

IMF와 안보(安保)

지난 해 말 불어닥친 IMF 한파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사회 전체를 뒤덮고 있던 ‘거품’이 결국은 우리가 치뤄야 할 ‘고통’이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정부, 국민, 기업 모두의 고통 분담 없이는 결코 IMF를 극복할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을 비롯하여 국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된 힘을 발휘하고 있다. 6.25의 폐허를 딛고 일어난 놀라운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주기 위해 살을 깎는 고통도 마다하지 않는다. IMF 괴물을 한시라도 빨리 물리치기 위해 한국 호랑이가 긴 잠에서 깨어나 포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공군도 전(全) 장병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경제난 극복 20대 과제” 등의 세부 실천 계획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장병들의 경제마인드 형성을 통해 장병들이 경제 살리기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물 한 방울, 종이 한 장이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장병들의 마음가짐은 중요하다. 장병들의 의식 전환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장병들 스스로가 국민들의 세금은 한 푼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배전의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金 雨 奎
대령/정훈공보실장



이와 함께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가의 존립,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더구나 굳건한 안보태세의 확립이야말로 IMF 체제를 극복하고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선결 요건인 것이다. 지금 복귀는 이 시기를 대남 혁명을 위한 호기(好機)로 생각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로써 철벽 영공방위 소임 완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우리는 새 정부를 맞이하였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탄생한 '국민의 정부'는 지금은 우리 모두의 땀과 눈물이 요구되지만, 내년 후반부터는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었다. 그렇다. 모두가 손잡고 힘차게 나아간다면 머지않아 따스한 햇살을 보게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라는 문명사적 대(大) 전환기를 목전(目前)에 두고 있다. 훗날 후손들은 지금 이 시기를 'IMF 시대'라고 부를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시련의 시기에 대한 그들의 최종적인 평가는 바로 우리들의 몫인 것이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이것이 IMF를 헤쳐나가는 정도(正道)라고 믿는다.

지금 창 밖에 개나리가 새순을 틔우고 있다. IMF 시대에도 봄은 어김없이 우리 곁으로 오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항공우주군 건설을 향한 공군의 힘찬 비상(飛翔)을 기대해본다.

지(智) · 덕(德) · 체(體), 전인(全人) 교육의 실현

장 성 문

준장/공군사관학교 생도대장



사관생도교육의 일선에 선 지도 어느덧 20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그 간의 경험은 내게 사관학교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덕목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물론 그 덕목들은 사관학교 교육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방법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공군 장병, 나아가 우리 국민 전체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관학교 학칙은 공사(空士)의 임무를 “공군의 정규장교를 양성하여 장차 항공우주시대의 핵심 지휘관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지식(知識)과 덕성(德性) 및 체력(體力)을 구비하도록 함에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관학교 교육의 기본 목적이 지식과 덕성, 그리고 체력의 함양에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먼저 지식 측면에 대해서는 이미 사관학교 이전 단계의 학교와 가정에서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으며, 또한 현행 입시제도 아래의 교육환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사관학

교 입학생들은 97년에는 전국 고교생의 상위 7.6%, 98년에는 상위 4.8% 이내에 해당되는 매우 우수한 자원이다. 사관학교는 이러한 충분한 지적 능력을 갖춘 자원들을 대상으로 일반대학 수준의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아울러 항공우주시대의 주역으로서 구비해야 할 각종 전문지식을 교육하고 있다. 교육기관으로서의 임무는 사관학교 존립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지식 측면에 대한 더 이상의 강조는 불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은 체력적인 측면이다. 장기간의 입시준비와 이로 인한 과중한 압박감으로 인해 대부분의 합격자들이 초기에는 극도로 저하된 신체상태로 출발하는 것이 현실이다. 98년도 신입생 남자생도 대부분이 턱걸이 평균횟수가 4회를 넘지 못했다. 이처럼 허약한 생도들의 체력은 4년간의 정규 체육교육과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각종 체력향상 프로그램에 의해 괄목한만한 향상을 이루게 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지식과 체력 측면의 교육은 많은 부분에서 강조되어 왔으며, 그 시행결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덕성의 함양은 지식과 체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덕성함양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 성과 역시 계량화 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가시적인 효과가 장시간에 걸쳐 나타난다는 점도 있을 것이다.

사관학교 교육이 추구하는 세 가지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소홀히 다루기 쉬운 덕성은 생도교육의 이상이요 지고의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정신과 태도, 그리고 행동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풍부한 지식과 건강한 육체를 지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술책이나 폭력의 도구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사관생도들은 앞으로의 인생을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살아야 한다.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과학의 시대에 지적이고 강인한 정예장교로 육성될 사관생도들에게 덕성의 함양을 애써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덕성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는 명예심, 충성심, 정의감, 책임감, 희생정신, 감투정신 등 시공간을 초월하여 직업군인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과 생활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준법정신과 도덕성, 자율성과 능동성 등 생활과 임무수행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기능적 가치들을 포함한다. 직업장교로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 가치인 전자는 장기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상적 가치들을 원활히 추구하기 위해 생도 생활 중 형성하지 않으면

안될 현실적인 가치들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96년에는 국민의 44%가, 97년에는 53%가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라고 응답했다. 이 결과는 도덕성의 결여가 사회 전체에 일반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사관생도들의 도덕성도 일단은 그 시작단계에서는 모(母)사회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남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기 위주의 생각만 하고 약간의 불편함도 쉽게 참아내지 못하는 요즘의 신세대들을 볼 때, 국가栋梁(棟梁)으로서의 사관생도를 교육시키고 있는 사관학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가치가 어떤 것인지 자명해진다.

생도들의 생활을 여러 각도에서 직접 관찰하면서 느낀 것은 위에서 말한 이상적 가치를 추구하기에 충분할 만큼 자율적이며 능동적이지 못한 경우가 일부 생도들에게서 더러 발견된다는 점이다. 명령에 대한 복종이 요구되는 저학년의 생활은 그렇다 치더라도, 좀 더 많은 재량권이 주어지는 고학년이 되어서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율성, 능동성, 그리고 유연하고도 폭넓은 사고를 지니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저학년 때의 통제된 생활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에서 방종으로 흐르거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규정 불이행 등 일탈적인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일탈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제시된 학년별 훈육목표인 '복종' — '모범' — '자율' — '지도' 모형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시간 관리의 자율성 결여도 지적할 수 있겠다. 생도들이 자율성에 입각하여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간

관리모형을 수립하여 적용하되, 자유시간을 학년별로 차등 부여해서 점진적으로 자율성에 입각한 시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생도들에게 보다 많은 공간과 기회를 부여하여 학습활동뿐만 아니라 체육 및 취미활동, 그리고 일반 대학과의 교류 등 교외(校外)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생도들로 하여금 건전한 생활습관을 기르게 하고, 저학년의 사고의 경직성, 고학년의 탈규정의식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성숙한 민주시민의 일원인 동시에 장차 우리 군을 이끌어 나갈 군사지도자의 모습을 사관생도들이 갖추기 위해서는 생활현장에서 사소하게 보이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작은 것의 실천을 통해 행동과 태도가 바뀌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정신이 바로 선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고차원의 인경향상을 도모하게 되리라 믿는다.

물론 덕성함양교육의 중요성은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생도교육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흔히 군대를 인생교육도장이라고도 한다. 그것은 군대가 비단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보를 책임지는 것만이 아니라 '인생 교육'이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군대에서 젊은이들은 '나' 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익히게 되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배우게 된다. 또한 각종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신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인내와 의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익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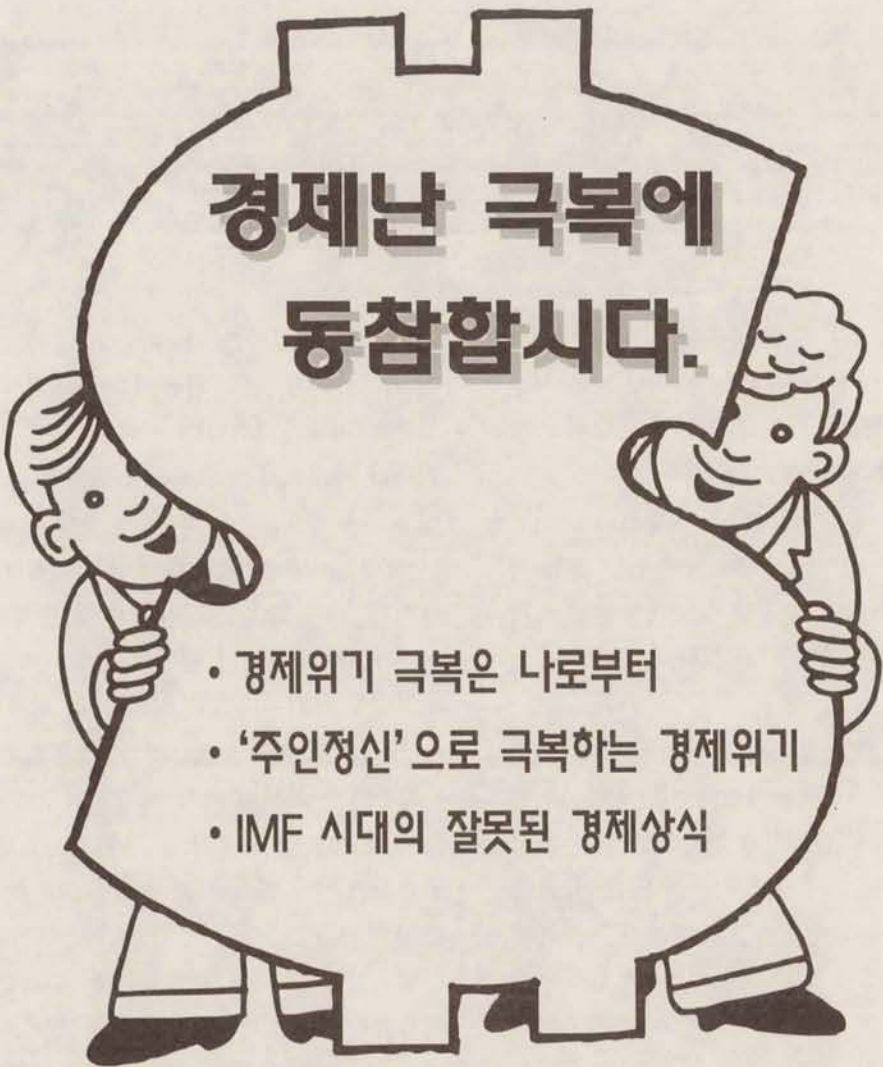
그러나 일부 장병들은 자신의 군생활을 인생의 암흑기에 비유하기도 한다. 우리 군이나 그

장병들에게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를 그 장병들의 선입견이나 개인적인 성향 탓으로만 치부하기에 앞서, 장병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장병들이 군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여건을 보다 많이 배려해야 할 것이다. 그저 군대만 들어오면 장병들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보다 많은 장병들이 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거창한 구호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군 생활이 장병들 스스로에게 많은 것을 얻게 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줄 때 가능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인은 공군의 정규장교를 양성하여 장차 항공우주시대의 핵심 지휘관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지식, 덕성, 체력 등 생도교육의 3대 기본 축의 필요와 상호 간의 조화,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어 왔던 덕성함양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아울러 인생교육도장으로서 군대에서의 덕성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IMF시대를 맞아 더욱 각박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금 모으기 운동, 도덕성 회복 운동 등이 그나마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은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국난으로까지 치부되는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이 합심하고 있는 지금, 사관생도를 포함한 우리 군 전체가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의 일원인 동시에 믿음직한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은 이상을 향해 인간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지만 현실과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 **등문**

A black and white line drawing of two cartoon men holding a large dollar sign. The man on the left is wearing a suit and tie, and the man on the right is wearing a suit and a bow tie. They are both smiling and looking at the dollar sign. The dollar sign is the central focus of the illustration.

경제난 극복에 동참합시다.

- 경제위기 극복은 나로부터
- '주인정신'으로 극복하는 경제위기
- IMF 시대의 잘못된 경제상식



경제위기 극복은 나로부터

이 규 석

대령/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올해는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지 반세기가 되는 해일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3년 앞둔 시점으로 서서히 새로운 세기를 맞는 설레임과 기대감이 일기 시작하는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해 말 몰아닥친 외환위기로 인한 IMF 한파가 이번 겨울을 더 춥게 만들었다. 어김없이 봄은 왔지만 우리사회는 대량실업 사태로 더욱 뽕뽕 얼어붙어 가고 있다.

최근까지 우리는 우리나라가 세계 11위의 경제성장을 했고 개인소득 1만달러를 돌파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세했다는 자부심으로 한껏 부풀어 있었다. 70년대 이후 급성장하면서 세계적인 성공사례라고 일컬어지며 기세 좋게 뻗어 오르던 우리 경제가 이제 6.25 동란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어 선진국 진입이란 장

미빛 꿈에 젖어 있었던 게 바로 얼마 전의 상황이 아니었던가. 연일 환율이 급등하면서 GNP 1만달러 시대가 7천달러 시대로, 그리고 이젠 5천달러 시대까지 떨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이 정도의 추락으로 그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사태는 더욱 심각하며 정말 이대로 가다 우리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마저 느끼게 한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서로를 탓하며 책임만을 전가한다면 오히려 우리 경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말 것이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우리 모두가 경제위기 극복의 주체라는 인식 하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맞고 있는 경제위기도 우리사회의 윤리도덕의 상실 속에 올바른 시민의식이 성숙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경제가 붕괴일보 직전의 총체적 난국에 처하게 된 원인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기



업의 무차별한 차입경영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우리모두의 가슴에 와닿는 것은 우리들의 무분별한 외화낭비와 과소비 및 사치낭비 등 우리 자신의 생활에서 연유되었다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의식 개혁과 행동화

오늘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모두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고, 이것이 행동화로 이어져야 한다. 모든 면에서 건전한 시민의식을 발향시키고 성숙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 각자의 의식이 변하지 않고서는 오늘날 우리가 처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가 없다.

우리 사회에는 극도의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고 서로를 아껴주면서 높여주는 공동체 의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는 「나」만이라는 이기적 의식에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Except me」라는 예외의식과 특권의식이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 중의 원인이라는 점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예외의식이나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바로 오늘날과 같은 경제위기 상

황이 초래되었다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나 하나만의 예외의식이나 특권의식이 건전한 사회, 건전한 군대를 가로막는 암적 요소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나」하나가 모여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모여 사회를 이루며 나아가 국가를 구성하는 것이며, 「나」하나가 모여 한부대(부서)를 이루고 부대가 모여 공군을 구성한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하나를 생각하기에 앞서 전우를 생각하며 더 나아가 우리 모두와 국가의 경제를 생각하는 참다운 미덕을 발휘해야 할 시기이다.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사치, 낭비 그리고 무질서와 무절제를 철저히 배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경제위기와 불황에 처한 국가 현실을 외면한 채 일부 국민들이 아직도 무절제하고 무질서한 가운데 분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음을 볼 때 매우 안타깝고 우리 사회가 건전한 시민의식이 성숙되려면 아직도 요원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공군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국가 경제난 극복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경제난 극복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외화절약, 유류·전기 등 에너지 절약, 경상경비 절감, 근검절약 등 4개분야 20개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병 및 가족 개개인이 「Except me」라는 예외의식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나부터」라는 의식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즉 「경제위기 극복은 나로부터」, 「나부터」 실천하고 행동한다는 의식으로의 전환이다. 사무실에서 가



정에서 한 장의 종이, 한방울의 물, 하나의 전등,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나부터」 아껴서 사용한다는 절제하고 절약하는 의식없이는 오늘의 경제위기를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

특히 부대 지휘관의 솔선수범은 장병들의 의식개혁과 행동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소속장병의 의식개혁과 행동화를 유도하는데 있어 그 어느 정신훈화나 지시보다도 더 효과적이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지휘관의 솔선수범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우리 모두가 현시점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남이야 어떻든 나만 자유롭고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그만이며, 나만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권리를 쟁취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라는 극도의 개인주의 바탕을 둔 생활의식을 철저히 배격하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가 처한 경제위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설령, 이런 개인주의 의식이 사회전반에 팽배한 가운데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손 치더라도 몇 년후에 제2, 제3의 경제위기를 다시 맞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 「Except me」라는 예외의식을 과감히 버리고 「나부터」 절제하고 절약하는 건전한 생활의식을 갖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과소비와 외화낭비의 추방

IMF 구제금융은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외화가 모자라기 때문에 실시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군 부대에서는 금모으기 운동이 한창이다.



외국에서 벌어들여온 외화보다 밖으로 나가는 외화가 많았다는 것이다. '96년보다 개선되었다는 경상수지는 '97년 9월까지 123억불 이상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서 상품거래를 수반한 적자 폭과 그렇지 않은 무역외 수지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경상수지 적자구성

구 분	금 액
상품거래 수지	59억 4,000만 달러
무역외 수지	58억 6,000만달러

자료 : 한국은행, 1997, 수정인용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역외수지 적자가 무역수지 적자와 맞먹는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무역외수지 적자 전체의 42.0%를 차지하고 있는 해외 여행과 유학·연수로 인한 여행수지 적자는 총 24억 6,000만 달러이다. 결국 우리는 그동안 피와 땀을 흘려가며 힘들게 수출해서 벌어들인 외화의 거의 절반 정도를 해외여행이나 유학·연수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해외여행 경비는 평균 1,608 달러인 반면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선진국인 독일과 미국은 각각 640달러, 937달러라고 한다.

그동안 우리는 외국에 달러를 뿌리고 다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낭비가 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난 한해 동안 사치품 수입으로 20억달러, 그리고 양주 수입으로 2억 4,000만달러의 외화를 소비했다고 한다. 과소비와 사치의 극을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도 분별력이 없었다. 기름 한 방울 생산되지 않는 나라에서 귀한 외화를 들여 수입해온 에너지를 아까운 줄 모르고 남용해 왔다.

지난 해 240억 달러의 에너지를 수입함으로써 '96년도 보다 무려 18%나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의 2배를 상회하는 수준에 해당된다.

그리고 에너지 사용 효율면에서도 일본의 절반밖에 안되는 지극히 낮은 수준이었다.

최근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상기후인 “엘리뇨” 현상 탓만은 아닐 것 같은데 우리는 그동안 반팔 티셔츠를 입고 지낼 정도로 실내온도를 높게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물쓰듯 해왔다. 에너지 과다소비야말로 국제수지 적자의 큰 몫이었고 그것이 외환위기를 몰고온 원인 중 하나였다.

그동안 우리의 소득은 1만달러인데 소비는 3만달러의 소비수준으로 생활해왔던 것이다. 흔히 우리가 자주 사용해왔던 지능지수(IQ), 감성지수(EQ)에 이어 요즈음은 도덕지수(MQ)가 사람들에게 자주 거론되고 있고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착각지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 또는 집단과 집단 사이에 얼마만큼 착각하고 사는지를 체크해보는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경제 소득분에 대한 소비의 착각지수가 커도 너무 컸던 것이다. 경제의 착각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경제의 구멍은 더욱 더 커진다는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간과하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안에서 새는 물을 담기에 앞서 밖으로 쏟아버리는 물부터 챙겨야 하는 외화절약의 지혜를 소홀히 했다.



그릇된 외식문화 추방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주 외식하고, 많이 주문해서 많이 남기는 외식문화가 만연돼, 하루 1만 4천 5백 32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생겨 연간 7조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리고 외식에 쓰이는 재료 가운데 70%가 수입품으로 충당된다고 하니 이 역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나라 가정의 연평균 외식비 증가율은 18.1%로 소득 증가율과 소비지출 증가율 12.5%와 11.9%를 각각 앞지르고 있다. 또는 최근 10년 간 각 가정의 식료품비 중 외식비의 비중이 2.2%에서 35.5%로 16.5배나 늘었다.

본인이 미군들과 근무하면서 자주 외식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늘 소위 더치 페이를 함으로써 자기가 먹을 만큼 시키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이제는 각종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회식과 가족과의 외식 횟수를 줄이고 필요에 의해서 회식 및 외식을 하더라도 최소의 지출로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경제살리기를 위해 어느 때보다 절약이 요구되는 오늘의 현실에서 이와 같은 그릇된 외식문화의 거품을 걷어내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일이다.

근검절약으로 경제위기 극복

사치와 낭비가 국가적으로 화근을 불러 일으킨다는 냉혹한 교훈을 우리는 지금 IMF 관리체

제 하의 어려운 경제난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다시 태어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에 접어든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IMF 경제위기를 벌써 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하는 조짐들이 우리 주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한동안 뜸했던 교통량이 눈에 뜨게 늘어나 IMF시대 이전처럼 교통혼잡이 재연되고 있고, IMF사태 직후 대도시의 컴컴해졌던 상가의 네온사인이 밝게 비치면서 고객들이 흥청거리고 있으며 일반 대중음식점도 손님들이 격증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론 외환위기의 한 고비를 넘겼을 뿐 본격적인 IMF시대는 지금부터 시작이며 현재로서는 물가, 고용, 성장전망 등 어느것 하나 밝은 것이 없다.

이런 위기상황 극복은 우리 모두의 고통과 희생, 인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냄비처럼 뜨겁게 달았다가 솥사리 식어버리는 습성으로는 경제위기의 긴 터널을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절약을 실천하여 이 난국을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경제난 극복 추진운동은 외식의 변화없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걸치고 다니던 구태의연한 낡은 의식을 과감히 벗어 던져야만 밝은 내일을 기약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혹독한 고통도 감수하겠다는 결의와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경제



이제 우리의 소득수준에 맞는 근검·절약의 생활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난 극복을 위한 의식개혁 운동은 지휘관의 솔선수범과 장병 및 가족개개인의 자발적이고 올바른 시민정신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한다거나 남의 눈을 의식해 마지못해 하는 표리부동한 타성을 가지고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경제난 극복은 극기운동이나 다름없다. 올바른 시민의식으로 고통을 감수하는 실천적 행동이 뒤따라야만 오늘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것이다.

IMF 관리체제 하에 놓인 우리 모두는 이에 걸맞는 소비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활해 왔던 소득의 2~3배 수준의 소비형태와 욕구 수준을 한 단계 낮추어야 한다. 이를 몸소 실천하지 않으면 중국에는 두 단계 내지는 몇 단계까지로 낮출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한 의식의 변화가 곧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이다. 「나」 자신부터 근검·절약하는 제어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자기를 제어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를 실천하지 않고는 희망이 없으며 여기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우리모두 근검절약을 행동화하고 습성화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지금까지의 과소비 형태의 거품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우리의 소득수준에 맞는 근검·절약의 생활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10여년 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나라의 3~4배 정도의 소득수준인 미국인들의 근검·절약하는 모습을 인상깊게 본적이 있었다. 미국의 주택가에서 흔히 볼수 있는 "Garage Sale", 즉 가정에서 사용 안하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이용



할 수 있도록 개인이 직접 자기 집 앞마당에 내놓고 아주 싼 값으로 파는 것이다. 또 하나는 우리의 중고품 매매센터에 해당하는 “Thrift Shop”을 운영하여 사용하던 물건을 싼값에 다른 사람이 사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계 최고 소득수준인 미국인들도 근검·절약이 생활화되어 있고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아직도 더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마구 버리고 폐기하는 우리의 무절제한 과소비 생활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수도물, 전기, 물자를 아끼고, 외식을 자제하고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면서 실생활에서 장병들과 자녀들로 하여금 근검·절약하는 습성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과소비, 이는 우리에게 부끄러운 말이다. 허례허식 그리고 분수를 모르는 과소비 형태는 지탄 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우리는 「땀」의 진정한 의미와 거기서 얻은 대가가 무엇인지도 모른채 유흥과 허세로 흥청망청 살아왔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이제는 「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거기서 얻은 대가를 건전하게 소비하고 건전한 사회와 국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사용해야 한다. 근검절약의 건전한 국민정신으로 무장된 민족에게는 밝은 미래가 보장되지만 이와 반대로 나태하고 놀기만 좋아했던 민족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이번 IMF 사태는 또한 경제문제가 군사·외

교문제 못지않게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을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일깨워 주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만이 심각한 위협적인 것으로 알아왔던 국민의 대다수는 예기치 못한 심각한 외환·금융위기 발생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며 우리의 경제능력이 바로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는 국가안보능력 자체라는 사실로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 군도 이번 IMF 사태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군운영 전반에 걸쳐 긴축운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더구나 환율인상에 따른 막대한 추가 환차 소요도 예상되어 경제적인 군운영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가 그 어느때 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우리는 국가 경제력 뒷받침 없이는 군사력 건설뿐만 아니라 군운영 전반에 걸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공군 전장병과 가족은 혁명적인 절감 운영과 절약으로 국가 경제난 극복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날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불과 40여년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민족적인 저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결코 여기서 주저앉아서는 안되며 경제적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 피눈물나는 노력과 강철같은 의지로 다시 뛰어야 한다.

우리모두가 경제위기 극복은 나로부터라는 의식으로 나부터 근검·절약을 생활화 해서 오늘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등론**



‘주인정신’으로 극복하는 경제위기

윤 중 군

중위/군수사령부 자원계획부



지난 해 몰아닥치기 시작한 금융위기로 인하여 연 초부터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를 비롯하여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니다. 남·북한이 대치한 지 반세기가 되고 있지만 커다란 화해의 변화가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경제위기는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에도 많은 짐을 지우고 있다. 한 나라의 보존을 위해서는 국방력이라는 바탕이 전제가 되어야만 한다. 외부의 침략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사력의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비록 ‘국방비 삭감’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우리 나라처럼 남북이 분단되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완벽한 안보유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생산적인 일보다는 소비만 한다라는 말을 들어오던 군도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군 자체적으로 실시 가능한 방안을 찾아본다면 경제회복에 앞장설 수 있을 것이다.

올 초부터 국가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에 공군을 비롯하여 육군, 해군, 모두가 적극 동참하고 있다. 우리 군수사령부도 정부와 공군본부의 방침에 따라 경제회복을 위하여 전 장병 및 군무원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외화 소요를 줄이기 위한 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득이한 해외출장 및 국제 군사회의 참가를 줄여 외화소요를 줄이고 해외정비를 해야하는 품목들을 국내에서 정비하도록 추진 중이다. 국내창에서 수리할 수 있는 품목들은 국내창 수리로 전환하고 민영창과 군창 간의 기술 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창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 공군은 많은 물자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해외 수송비 절감을 위해 긴급한 품목을 제외하고 항공수송에서 해상수송으로 전환하고 있다. 수입 품목 중 항공수송비율을 4%로 감소하고 항공수송을 이용하는 품목에 대한 통



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전량을 수입하는 유류는 '97년에 비하여 10%이상 절약하도록 추진 중이다. 난방유류 절약을 위해 기온에 따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가까운 거리는 도보와 자전거의 이용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개개인의 작은 관심만 있으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전기와 수도의 절약은 점심시간 소등과 컴퓨터, 전기기구 스위치 끄기, 불필요한 야근의 금지, 야근시 통합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화장실이나 복도 등의 공동 사용시설의 수도, 전기 절약은 미흡한 실정이다. 공동 사용시설들에 대한 주인정신이 아직은 부족하여 각각 시설에 대한 책임구역을 설정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또한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와 폐자재의 집중수거로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폐지, 공병, 캔,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 인근 재활용업체에 매각을 하고 있으며, 수입 부품의 포장자재를 재활용하여 230만원의 금액을 절약하였다. 2월부터 재활용품 수집을 주 2회에서 3회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전 장병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홍보를 계속 실시하여 자원 절약의 의식을 키워나가고 있다. 또한 군수사령부는 피복재활용 센터를 운영하여 피복류 및 전투화를 지원하고 있다. 크기가 맞지 않는 옷들이나 전역자들의 피복을 회수하여 장병들이 필요시에 무상으로 나누어주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알뜰 장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각 가정에서 쓰지 않는 일용품들을 상호 교환하고 판매 이익금을 어려운 이웃과 장병돕기 성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사랑 금 모으기 운동에도 동참하고 있다.

1,2차에 걸쳐 각 가정에서 소지하고 있는 금 15.8kg을 모았으며, 개인적으로도 금 21g을 국가에 헌납하여 나라사랑에 대한 관심을 보여 줬다.

군수사령부는 '97년 5월부터 군수 지휘관리 시스템을 개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군수 지휘관리 시스템은 지휘관 참모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기존 문서에 의존하던 보고 및 결재를 전산화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군수 지휘관리 시스템의 도입으로 예하부대에 대한 실시간 상황보고가 가능하게 되었고, 문서보고에 의존하던 행정력의 감소와 전자결재의 확대로 1장당 약 7원의 문서절약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피복판매 전산화를 구축하여 '98년 1월부터 전 공군의 피복 판매 전산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복 판매 전산화를 통하여 많은 예산절약의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이전의 피복구매 방식은 종이에 인쇄된 피복 구매권을 이용하여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 한번 쓰고 나면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관리의 어려움과 분실 등의 손해를 볼 수 있고, 피복 구매권을 이용하게 되기까지 인쇄, 기지배분, 판매, 구매권 회수, 소각 등의 단계를 거쳐야만 했기 때문에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가 컸었다. 이전 구매권 인쇄시 약 318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지만 구매카드 사용으로 218만원을 절약하게 되었고, 행정소요시간도 14,09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대폭 줄어들어 많은 시간의 절약효과도 생기게 된 것이다. 피복 구매카드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매년 새로 재발급할 필요가 없고 재사용이 가능하며, 기지 간 피복자산의 효과적인 수급조절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IMF 체제 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각자의 소임에 충실한다면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파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리고 간부들은 간부로서 해야 할 일을, 병들은 자신들의 맡은 일들을 열심히 완수해 나간다면 경제난 극복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다.

부자와 머슴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바로 생각의 차이다. 머슴은 시킨 일만 하고 돈을 벌지만 부자는 스스로 자신이 소요한 모든 것을 '주인정신'을 가지고 아끼며 생활하는 것이다. 배에 구멍이 생겨 물이 새어 들어오고 있

는데 자신의 배가 아니라고 쳐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배의 침몰을 막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의식의 전환이다. 과거 선배들이 어려웠던 생활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루었듯이 모든 장병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면된다'라는 신념으로 우리 앞에 밀어닥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면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설 수 있다고 본다. 덧붙여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국방에 단 한점의 허점이 보이지 않도록 노력한다면 경제와 국방 두 가지 모두 튼튼한 국가를 이룩할 수 있다고 믿는다. **등원**



IMF 시대의 잘못된 경제상식

여 한 구

중위/작전사령부 정훈공보실



I. 어느 중산층 가정의 일기

1997년 1월

무역회사에 다니는 중년의 김한국씨(47)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 20여년 일해온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 집도 마련하고 바쁜 생활 중에서도 삶의 여유를 즐길 정도의 생활 수준이다. 아내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애들이 다 대학에 입학한 후로는 레저와 건강에 부쩍 관심을 가져 수영과 헬스를 등록하여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다. 1남1녀 중 맏딸은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 중 영어공부도 하고 경험을 넓히겠다며 미국동부의 한 사립대학으로 1년반 예정의 어학연수를 떠났고, 이번에 소위 명문대학에 입학한 아들은 다음 여름방학때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난다고 열심히 과외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 강남 지역의 고교생 아르바이트를 2건 하고 있는데, 돈벌이가 괜찮은지 최근에는 핸드폰도 구입하고 스키에 폭 빠져 스키세트도 구입하겠

다고 기대에 차 있다. 특별히 문화생활에 일가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쁜 생활 중에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가족들과 주말에 외식도 하고, 공연이나 연주회도 다니며 삶의 질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1998년 1월

나라가 엉망이다. IMF니, 구제금융이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어떻게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 지경이 될 수가 있는가? OECD 가입이니, 국민소득 만물시대니, 세계 12위의 경제강국이니, 금방 선진국에 진입할 것 같던 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으로 주저앉을 수가 있는가?

20여년 간 내 뼈를 묻혔던 회사에서도 어떻게 될 지 모른다. 어제 인사부장이 명예퇴직 희망자를 파악한다고 과장급 이상 간부를 소집했는데 꼭 나를 두고 하는 말 같아 영 불안하다. 아마도 조만간 명예퇴직 실시와 함께 정리해고를 할 방침인 것 같다. 아예 명예퇴직해서 퇴직금으로 가



게나 내 볼까, 아니면 끝까지 버텨볼까, 정말 한숨만 나온다. 저번 주에 미국에 가 있는 딸한테 전화가 왔다. 별일 없냐고 묻는 목소리가 수심에 가득찬 것 같이 들렸다. 아무 걱정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빨리 들어오고 해야 할 것 같다. 환율폭등으로 늘어난 경제적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다.

이제부터는 초긴축으로 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기름값이 너무 올라 작년에 큰 맘 먹고 구입했던 신형 중형차도 당분간은 집에 세워놓고 지하철로 출퇴근을 해야겠다. 집사람도 수영과 헬스를 그만두고 등산을 하겠다고 한다. 지난 번에 한번 관악산에 다녀와서는 평일에도 젊은 남자들이 많이 등산을 온 것에 놀랐단다. 나도 그런 신세가 될 지 누가 알겠나? 아들 녀석은 과외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고나서는, 휴대폰도 팔겠다고 한다.

주말에 여자친구랑 가던 스키장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한다. 저번 주에는 선배들을 만나 밤 늦게 술 마시고 들어오더니, 난데없이 군대에 가겠다고 한다. 소위 명문대 나와도 취직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들다보니 먼저 군대에 다녀오겠다고 생각했나 보다. 요새는 군대 가기도 힘들다고 하던데……. 오늘 조간신문에도 IMF와 관련해서 자살한 중소기업 사장 얘기가 보도되었다. 그 심정이 이해가 간다.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고 버겁다.

Ⅱ. IMF시대의 여파

요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년 가

장의 이야기다. 결코 나와는 거리가 먼 사례가 아니다. 위에서 예로 든 김 한국씨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이웃집 아저씨의 모습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우리가 60년대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래 80년대 초반 2번의 오일쇼크, 외채망국론 등 여러 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성장해왔지만, 이번 경우처럼 총체적으로 그리고 개개인의 일상생활 구석구석까지 그 여파가 직접적으로 미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제위기를 통해 우리가 느끼는 여파가 뼈마디까지 와닿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민간부문의 단기외채 과다로 인한 단기적 유동성 부족이라는 국제금융 위기에 있다.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국제경제는 서로 마디가 물려있고 고리가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어 밖의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국민들의 대응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사태가 전개되면서 바로 나오기 시작한 대응은 소비절약, 국산품 애용운동, 금모으기 운동, 에너지 절약운동 등이다. 반만년의 역사를 통해 931회라는 외침을 받아 외세에 대한 일종의 피해의식이 잔존해 있고, 유교적인 청렴의 미덕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교훈을 귀에 닳도록 들으면서 자라온 우리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나온 이런 자연스러운 대응이 일견 이해가 된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변화된 경제환경의 패러다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러한 우리의 전통적인 대응방식에 달리 생각해 볼 점은 없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국경이 통합되어 가는 변화된 국제경제



환경에 우리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나온 것인데, 우리의 이런 대응방식은 전통적인 20세기적 패라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아울러 이번 IMF사태가 경제적 문제점으로 부터 발생했지만, 결국 이의 해결책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치, 사회체제와 반만년을 내려오면서 형성된 우리의 문화와 의식구조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 접근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던 경제상식 중 우리의 변화된 경제환경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점들을 일상생활에서 흔히 부딪치는 사례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Ⅲ. IMF시대의 잘못된 경제상식

1. 근검절약은 미덕인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처음 나왔던 반응은 우선 과소비 자제, 근검절약 등이다. 경제학에서는 경제주체를 합리적인 소비행위를 한다고 전제하는데서 출발한다. 그러면, 합리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예산제약 범위 내에서 자신의 만족(후생)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소비를 한다는 것이다. 부자는 부자의 소득범위 내에서, 가난한 사람은 그 소득범위 내에서 분수에 맞게 소비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비수준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부자들이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부자의 소비수준이 보통사람들 눈에 매우 높다

고 그것을 무조건 과소비라고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흔히들 우리나라 경제를 생산이 주도하는 공급자 중심의 경제구조라고 하고, 미국경제를 소비가 주도하는 소비자 중심의 경제구조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설연휴 등으로 4~5일 연휴가 끼면, 생산이 줄어들고 수출이 줄어든다고 걱정한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크리스마스 연휴 등 4~5일의 연휴가 있으면 소비자들이 쇼핑을 하고 여가생활을 즐기므로써 소비가 촉진되어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경제마인드가 틀리다 보니까, 같은 현상을 놓고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것이다.

조선말기 대표적 실학자였던 박제가 선생은 '소비는 마르지 않는 우물과 같아, 물을 퍼내지 않고 오래 있으면 물이 말라버리지만, 퍼내면 퍼낼수록 우물은 물이 차게 된다'고 설파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워 종전보다 씹씹이가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소비가 너무 위축되면, 소비위축은 기업들의 이윤 감소로 이어지고,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하고, 생산이 감소되면, 실업이 증가하고 기업활동이 위축되며, 근로자들은 임금이 삭감되고, 근로자들의 소득이 줄어들면 다시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게 된다. 심각한 경우에는 불황국면에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절약하고 내핍하는 것보다는, 쓸 때는 쓰되 합리적이고 똑똑한 소비생활을 하는 것이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2. 국산품을 애용해야 하는가?

최근에 모 여고 여고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외



최근 외국상표 메이커에 의해 국산품의 정의에 대한 논쟁이 일어난 적이 있다.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플래카드를 걸고 구호를 외치며 외제품을 불태워버린 것이 외신에 보도되어 해외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이런 캠페인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외제품을 배척하고 국산품을 애용하겠다는 데 무엇이 잘못되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렇게 외국자본이 필요하고 국내의 모든 행동이 국외에 여과없이 전달되는 지구촌 시대에, 괜히 오해를 사고 해외 투자자들을 자국시킬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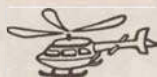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소비자로서 소비를 할 때, A제품은 비록 외국제품이지만, 품질이 좋고 한 번 사면 1년은 거뜰히 쓸 수 있는 반면, 동종의 B제품은 한국산이고 값은 외제보다 싸지만 품질이 뛰어나지 못해 1년에 3~4번은 바꿔야 한다. 이런 경우에 A제품을 사는 것은 매국노이고, B제품을 사는 것이 애국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물론 다른 조건(가격, 품질, A/S 등)이 비슷하다면 굳이 외제를 살 필요가 없고 국산을 쓰는 것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외제를 사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도 외제를 사면 매국노라는 취급을 하고 시민들이 나서서 외제불매운동을 벌이고 외제품을 불태워버리는 일이 흔하게 일어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분위기가 퍼지게 되면, 외국의 유망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자본을 투자하기를 꺼려하게 될 뿐 아니라(최근, 미국 다우코닝사 투자유치 실패의 예), 이미 우리나라에 와있던 외국기업들도 우리나라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외국자본을 유치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선진 기업들을 유치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이익(고용촉진, 선진 기술 습득 등)을 놓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 기업들은 국민들의 애국심(?)이라는 든든한 무역장벽이 있는 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술 개발과 서비스 및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려는 유인을 잃게 된다.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과거에 국내 자동차시장이 단혀 있을 때는 동종의 국산 차량이지만 수출용과 내수용에 상당한 기능과 품질의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결국 닫힌 국내시장 덕분에 해외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품질의 차를 더 값싼 가격으로 팔고, 그 손실을 국내소비자들로부터 보상받는 것이다.

국산품 애용운동은 그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때 의의가 있는 것이지, 품질, 가격 등 여러 측면에서 외제를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도 무조건 국산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산품을 구매한다면, 그것은 소비자의 희생 위에 경쟁력이 없는 기업을 키우는 것과 같다.



3. 그럼, 과연 국산품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국산품의 정의를 확실히 할 필요가 생긴다. 얼마 전에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상표메이커가 신문에 게재한 광고 때문에 국산품의 정의에 대한 논쟁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상표는 우리나라 것이지만, 실제로는 중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어 역수입된 것이 국산품인가? 혹은 외국상표이지만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이 국산품인가?

세계경제가 밀접하게 연결되고, 가장 최적인 지역을 찾아 자본과 사람과 기술과 정보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국경없는 경제(Borderless economy) 시대에는 우리 기업과 국산품에 대한 전통적인 통념에 혼란이 생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소비자가 GM의 상표가 붙은 폰티아크를 구입하고 2만불을 지불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20,000불이 다 미국인들의 수입으로 그들의 호주머니 속에 귀속될 것인가? 실질적인 배분과정을 보면, 1,500불은 설계대금으로 독일에, 4,000불은 부품대금으로 일본과 대만 등에, 6,000불은 조립작업에 참가한 한국에, 500불은 광고와 마케팅서비스 대금으로 영국에 지불되고, 정작 미국인의 수중에 떨어지는 것은 40%에 불과한 8,000불이다. 미국민들이 애국심에 의해 미국차를 구매한다고 해도 60%는 한국, 일본, 독일, 대만의 노동자, 부품생산자나 설계자에게 귀속되고 미국의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후생은 거의 없다. 단지 적은 몫만이 미국투자자에게 이윤의 형태로 배분되며 나머지는 뉴욕의 은행가, 워싱턴의 법률가, 로비스트, 디트로이트의 전략가에게 배분된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 유럽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화가 덜 진행되었으나 우리나라 기업의 상표가 붙은 상당 부분의 작품은 현재도 동남아, 중국, 미국, 유럽 등과 국제적 분입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10년, 20년 후 이런 형태의 산업구조가 더욱 보편화될 것이 분명한 것이다.

이런 국제경제환경 하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기업 상표가 붙은 상품이 국산품'이라는 단순하고 평면적인 국산품의 개념에 상당부분 수정을 가해야 하는 것이다.

4. 어떤 기업이 우리에게 더 이익을 주는가?

IBM Korea vs SAMSUNG USA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번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해야 하는 이유와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는 이유를 예를 들어 설득력있게 설명했다.

미국 상무장관인 IBM JAPAN과 TOYOTA U.S.A 중 어느 기업이 미국에 더 이익을 주는 미국기업인가, 하는 질문을 받고 TOYOTA U.S.A가 미국민에게 더 이익을 주는 미국기업이라고 잘라 말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제의 범세계화에 따라서 이러한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경제 전쟁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은 국내에 공장을 짓고, 내국민들을 고용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며, 생산과정에서 선진기술들이 우리 기술자들에게 체화되고 그럼으로써 선진기술이 이전된다. 또한 생산과정(예, 가전제품)에서 전방관련



산업과 후방관련산업에 선순환의 파급효과를 미쳐 국내산업이 활성화된다. 또한 수출을 할 경우에는 우리 수출 증가에도 기여하며 세금도 규정에 의해 정상적으로 낸다. 단지 생산에 따른 최종과실(이익금)과 상표로알티가 본국으로 송금된다는 것인데, 다국적 기업이 국내경제에 준 이익을 생각할 때, 이는 용인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기본원리라고 생각된다. 이것이 두려워 외국기업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이 아닐까?

최근의 통계의 의하면, 한때 전 세계에 걸쳐 식민지를 경영했던 영국은 외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나라라고 한다. 우리의 기업들이 영국에 공장을 지을 때 영국 여왕까지 날라와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은 과연 그들이 외국기업의 진출에 의한 국내산업의 식민지화를 환영해서일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5. 정리해고할 것인가? 감봉할 것인가?

80년대에는 연공서열제, 종신고용제로 표현되는 일본 및 우리나라의 기업문화가 종업원들의 애사심을 높이고 조직과의 심정적 일체감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경제기적에 기여한 것으로 미국의 많은 학자들은 분석했다. 하지만, 정보화 시대로 요약되는 다가오는 경제전쟁 시대에서 이러한 요소는 신축적이고 민첩한 기업의 대응을 불가능하게 해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천덕꾸러기 신세를 받고 있다.

사실 80년대 초반만 해도 저물어 가는 태양이라고 했던 미국경제가 약 10~15년의 경제구조과정을 거쳐서 다시 재기에 성공한 원인 중의 하

나로 효율성을 최대가치로 삼고 조직과 인원을 신축적으로 조정해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했던 기업풍토를 꼽고 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기업의 유연성과 신축성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무기라 할 수 있고, 우리 기업도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감량경영이 불가피할 경우 정리해고가 바람직한 것인가? 감봉이 바람직한 것인가? 물론 현실사회에서 이의 판단에는 단순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판단보다는 사회보장시스템의 존재 여부, 실업으로 인한 사회불안 등 경제외적인 측면의 고려도 매우 중요함을 부인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부실화되어 종업원을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하자. 종업원을 30% 삭감하는 것과 모든 종업원을 그대로 두는 대신 급료를 30% 삭감하는 것, 두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후자는 은정주의적 입장에서 내가 급료를 덜 받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일할 수 있는 후자의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정말 능력이 있고 회사에 필요한 사람은 임금이 삭감되어 자기 능력에 상당한 보수를 찾아 회사를 떠나겠다는 결정을 하는 반면,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은 조직에 남아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조직이 하향평준화되고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만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고통스럽더라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해고하게 되면, 조직은 슬림화되고 효율화되어 회사가 살아나게 되고 경기가 좋아지면, 효율화된 기업들이 경제를 살리고 계속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도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경제전체적으



로 인력이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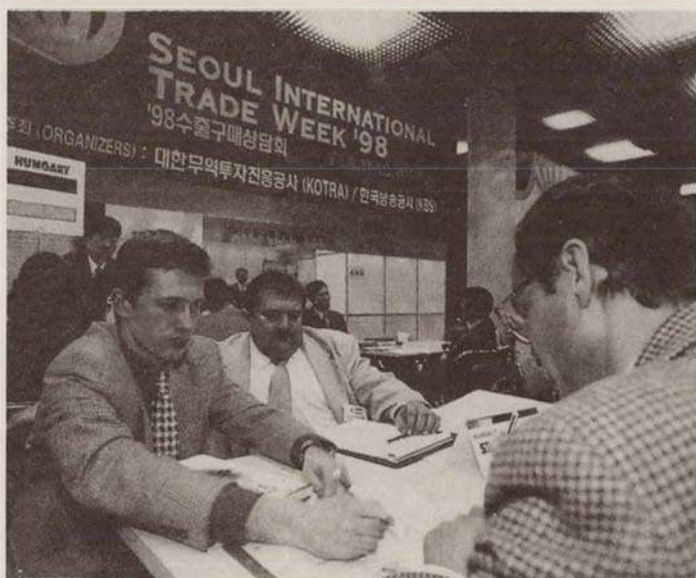
6. IMF는 우리의 적인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이후,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IMF때문이며, 아직도 약한 우리나라를 보호해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어려운 틈에 자신들의 실속만을 차리려고 한다는 일종의 야속함과 분개감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 퍼져 있다.

그렇지 않아도 2년전 영국의 한 경제전문지는 전세계적으로 화교가 경제적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의 외국인 차별, 외국인 혐오증을 꼬집은 적이 있었다.

최근의 외국신문에는 외국인들이 서울거리를 다니는데 위험을 느낄 정도라는 다소 과장된 보도를 내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데 있다. 물론 아시아 경제위기의 전개과정에서 일부 국제투기꾼들의 음모론, 미국의 동아시아 견제론, 등 다양한 설이 내외에서 제기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 모든 것들이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 저명한 경제학 교수는 자신이 10여년 전에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기고문들을 신문지상에 발표했던 것을 엮어서 최근에 책을 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때의 기고문 내용을 별로 고치지도 않았는데 현재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통찰력이 뛰어 나서라기보다는 10여년 동안 우리가 마땅히 했



정보화 시대로 요약되는 경제전쟁시대에서는 기업의 유연성과 신속성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무기라 할 수 있다.



어야 할 개혁과 구조조정을 여러 이유로 실천하지 못하였었고, 결국은 그것이 오늘의 이런 사태를 야기하게 된 것이었다고 그는 한탄했다.

개인 간의 금전 대차관계에 있어서도 채권자는 그의 요구를 세부적으로 달게 마련이다. 채권자는 원금의 회수를 보장받고 싶어하며, 위험을 무릅쓰는 만큼 투자의 성과를 보장받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IMF와 선진제국들이 자신들의 국민이 낸 세금으로 약 570억불에 달하는 자금을 한국이라는 나라에 지원하는 판에 그들이 원금의 상환을 보장받고 투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한다. 더욱이, 잘한 기업은 성하고, 잘못된 기업은 당연히 망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ABC라고 믿고 있는 이들은, 한국이 잘못해서 생긴 이번 사태를 국제사회가 나서서 도와준다면, 이는 경영을 잘못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국제사회에 남기는 것이라며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혹자는 이번 한국 사태는 서방선진국들이 2년전 멕시코 사태때 지원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냉소적으로 말하기도 한다. 그 때, 잘못된 나라를 살려주는 나쁜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룰을 망쳐놓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IMF 구제금융 신청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없는 것이며, 그들이 내걸은 지원의 전제조건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해 가야하는 길이라면 더욱 더 그렇다. 따라서 이왕 가야 할 길이라면 질질 끌려서 가느니,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 어

이번 IMF구제금융 신청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보다 냉철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과연 우리의 경제수준은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그동안 우리는 국민소득 만불시대, 수출 천억불 돌파, 무역규모 세계 11위, GNP 세계12위, 조선 건조 세계 2위,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선진국 클럽인 OECD 가입, 2000년대 초반에는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가 된다는 등 온갖 장미빛 구호에 파묻혀 우리의 능력을 과신하고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을 영위해 어느새 거품공화국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올해 한국경제는 오일쇼크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인구 150만명, 1인당 외채규모 250여만원, 1인당 국민소득은 6,600불로 줄어들고, 경제규모는 세계17위로 5단계나 강등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우기 우려되는 것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이제 약육강식으로 요약되는 국제 자본주의의 황량한 벌판에 내던져졌다는 점이다. 약자에 대한 동정도, 강자에 대한 매도도 없고, 개인이건, 기업이건, 국가건 이제 믿을 것이라고는 자기 실력과 경쟁력밖에 없으며,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냉혹한 국제적 승부의 세계에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IMF는 우리에게 보약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번 위기는



국제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경제가 가지고 있던 구조적 모순과 문제점이 백일천하에 드러났고, 나라가 경각의 위기에 처했고 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온 국민에게 형성된 만큼, 충분히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결국, IMF는 우리가 10년에 걸쳐서도 하지 못한 일을 단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고마운 친구인 것이다.

그로부터 2년 후... 김한국씨의 일기

1999. 12

이제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다. IMF에 국제금융을 요청한 지 어느덧 2년..... 다행히도 작년 마이너스 성장을 한 이후, 올해 경제성장률은 6%, 경상수지도 60억불 흑자고, 물가도 5%선에서 잡혔다. 이제 우리가 상환해야 할 외채도 50억불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에는 완전히 IMF를 졸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기업들

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친 다음 서서히 신규 투자를 늘리기 시작하고 있다. 정말 모두가 움추리고 춥고 고통스러웠던 긴 터널이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IMF가 우리나라에는 천우신조의 기회였던 것 같다. IMF 덕분에 우리경제 구조가 합리화될 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10년전부터 해야했던 일을 이렇게 단기간 내에 완수할 수 있었던 것 같다.

IMF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아찔하다. 국민 모두가 선진국이 된 마냥 흥청망청하고 우리 내부의 상처가 썩어 쪼아 들어가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었을 것 아닌가? 정말 가래로 막을 뻔 했던 일을 호미로 막았다는 생각이 든다.

IMF로 인해 뛰기에도 거추장스러웠던 몸집이 한결 날씬해지고 날렵해진 것 같다. 날아갈 것 같다. 이제 21세기가 새로 시작된다. 우리 모두 새로운 출발점에 다시 섰다.

다시 한번 힘차게 뛰자! 이번에는 선진국 진입을 향하여!

대한민국 화이팅! **등문**

공/군/논/단



- 21세기를 향한 군정신교육의
국민인성교육 도량화 모색
- 신(新) 공군기본교리
개정배경 및 의의

21세기를 향한 군정신교육의 국민인성교육 도량화 모색

김 규

준장/방공포병사령관



본 연구문헌은 그동안 작전부대 지휘관과 방공포병 학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장병 정신교육 체계의 상태를 분석, 그 효율성을 모색하고 이를 인성교육 부재상태에 있는 국민교육의 도량화로 하였으면 하여 연구한 것으로 각급 지휘관들의 장병 정신교육 및 훈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I. 서론

한국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화라는 상징적 국가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정보화, 지식산업화로 함축되는 21세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왔다. 이에 걸맞게 지방자치제 실시, 시장경제체제 확충, OECD 가입 등 숨가쁜 여정을 달려왔다. 그러나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경제체제 문제와 천민 자본주의에서 오는 사치와 과소비 풍조 등으로 인해 마침내 1997년 11월에는 증권

가 폭락에 따른 증시 대혼란과 달러 환율의 급상승으로 인한 외환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IMF의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는 당분간 제정긴축, 금융체제 재편, 저성장, 물가상승 및 실업 증대 등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제 한국이 선진국화 문턱에서 좌절하느냐 아니면 이 위기를 제도약을 위한 전기로 활용할 수 있느냐는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 그리고 가계의 근검, 절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경제의 주체가 되는 국민 개개인의 의식이 창조적, 개척적, 선진화가 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즉 국민 개개인의 의식성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보화 지식사회화로 특정지워지는 21세기는 적자생존의 냉엄한 경쟁원리가 그 기저에 흐르고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이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21세기의 한국을 이끌어갈 부정적 이미지로 특정지워진 [X세

대]를 우리 기성세대는 그에 걸맞게 교육하고 방향제시를 해주고 있는지 자문자답 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한국의 총체적 교육체계와 가정과 사회의 가치체계를 혁신하지 않는다면 어려울 것이라는데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21세기를 코 앞에 둔 현 시점에서 단 기간에 이를 정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오랜 기간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정신문화와 사회체계의 변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인 정신 문화 속에 잠재한 진취적이고 역동적이며 창조적인 국민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21세기형 선진국 의식을 한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국민의무로 수행하고 있는 군복무기간을 통하여 단 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국방임무 수행 간 실시되고 있는 군정신교육을 [국민 인성교육 도량]으로 하는 방안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 그 핵심이 되는 군 인성교육체계 분석과 활용에 논술범위를 한정하였다.

Ⅱ. 군 의무복무자의 의식분석

1. 한국사회교육체제 실태

교육은 국가발전의 100년 대계라고 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의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학교의 인성교육 현주소는 어떠한가?

첫째, 모든 사람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인간관계를 통하여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가정문화 속에서 인성의 형성과 가치관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70년대이후 고도 산업사회로의 진

입과 함께 핵가족화하면서 물질 중심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인성을 길렀고 둘째,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체계적 육아 교육 프로그램 없이 모성애에 대한 갈구 속에 정체감과 안정성이 결여된 유아기를 보내고 셋째, 이혼의 점증현상은 자녀들에게 불안, 갈등, 분노를 심어주며 넷째, 대중매체의 범람과 무분별한 프로그램 노출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분별력을 저하 시키는 폭력물이나 선정적 화면으로부터 폭력성과 도덕불감증에 젖어든다. 그리고 자녀 개성이나 능력을 무시한 부모들의 지나친 기대와 요구로 인한 욕구불만, 열등의식 등은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겠다.

사회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대중매체와 사회풍조는 청소년들의 인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발생하는 병폐 중 하나인 폐쇄적 이기주의는 방관과 무관심으로 청소년들의 잘잘못에 대한 칭찬, 계도, 꾸중이 없어져 제멋대로의 인성을 키운다. 게다가 무분별한 상업성은 주택, 학교 근처까지 유해업소들을 파고들게 하여 청소년을 항상 불건전한 사회현상에 노출시킨다.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는 건전한 놀이공간과 문화공간을 제한하여 청소년들에게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갖게 하고 있다. 또한 가장 감수성이 강한 청소년기의 교육은 지식을 상품화한 입시위주의 교육이다. 인성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거나, 하지않아야 유리한 대입제도 등, 거의 인성교육 부재상태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큰 사회문제로까지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 교육체제와 실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의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대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 유도 및 공동체 연대의

식 함양을 위한 [21세기 공동체 더불어 사는 서울대인], 문체부가 '95년 2학기부터 없앤 초, 중, 고 생활통지표 제도 폐지, 충남교육청의 '96년 이후 실시하는 「이웃사랑운동」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동」, 대구지역 초등학교사와 교육생들의 농사일과 시장보기,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자연과 사회 안에서 어울려 사는 것을 가르쳐 정서 및 창의력을 기르려는 「여름대안학교」 등 많은 인성 교육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사회 시스템하나 국민 교육 체제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총화적 의식개혁에는 미흡하다. 오히려 대부분의 청년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군대에서의 인성교육을 통해 국민 의식의 개혁과 그 확산을 시도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의식의 개념

의식(意識, Consciousness)의 정의는 사전적 의미로 볼 때 통상 “현재 직접 경험하고 있는 심적 현상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 어떤 외부 현상에 대하여 무엇인가 느끼고 생각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저명한 심리학자 제임스는 의식의 기본기능을 “감각적 측면과 운동적 측면에서 외계와 관련지어 자발적으로 하는 선택작용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종합할 때 의식이란 어떤 대상을 총괄적으로 판단, 분별하는 정신적 작용으로 역사적·사회적으로 규정되는 사상, 감정, 이론, 견해 등을 일컫는 것으로 자각(自覺)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은

고정 불변적인 것이 아니며 항상 기능적으로 흐르면서 감각, 상념, 연상작용을 하는 것으로 교육은 인간의식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

3. 신세대의 일반적 의식 성향

통상 한국의 X세대라고 불리는 신세대의 특성에 대하여 분석한 많은 자료 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다.

국방부에서 연구 보고한 “현대 청년의 심리적 특질” (군대심리Ⅱ, 국방정신연구원, 1991)에는 5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사상, 태도가 현실적, 실제적이다. 둘째, 자기주장이 명확하다. 셋째, 태도가 비교적 밝다. 넷째, 대이성(對異性)태도가 진보되어 있다. 다섯째, 안정감이 없고 정신적 깊이가 결여되어 있다.”고 하면서 신체적 측면에서는 체격의 향상에 비해 체력의 약화, 지적 측면에서는 사고력, 창조성의 저하, 성격측면에서는 주체성의 결여와 과민성, 욕구과다 등을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신세대를 영상세대라 명명하고 기성세대와 다른 특징을 갖게된 배경을 성장환경의 차이로 분석하면서 이들의 성장배경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기도 한다.¹⁾

이러한 성정 배경 하에 자란 신세대는 자기 중심적 의식구조, 이기적 태도, 사회적 대의보다는 일상성(日常性)에 집착, 탈 이념적이고 현세적 태도와 소비적 향락적인 생활태도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1) 정근원 “영상세대의 출현과 인식론의 혁명” [세계의 문학] '93. 여름

〈표 1〉 신세대의 성장배경

구분	요 소	성 향
가정	• 가정교육 부재 • 과보호 교육	• 공동체 의식결여 • 개인주의 폐쇄적 경향 • 독립심, 체력약화 • 복종심, 충성심 약화
학교	• 입시 지식위주 교육 • 사회계층 상승이동의 수단 • 교육자의 사명감, 책임감 저하	• 가치관 윤리관 교육결여 • 명령주의 편법주의 • 논리성, 자율적 수확능력 부족 • 적극적인 자기표현 • 지적 수준의 향상
사회	• 정치적 사회적 갈등 • 물질 만능 주의 • 무질서, 부패현상 만연 • 경제적 풍요 경험 세대	• 국가의식 결여 • 집단이기주의 경향 • 준법정신 결여 • 합리주의 성향

또한 동아일보는 '97년 10월 연재기사에서 80년대에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을 그 이전 세대들과 확연하게 다른 두드러진 특징을 갖고 있는 I 세대(Instinct/즉각반응, Image/매스컴 노출, Independence/탈권주의, Individualism/개인주의)라 규정하면서,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참을성 결여”, 범람하는 각종 매스컴의 급속한 화면 변화와 속도감을 주제로 한 오락물에 빠져들면서 형성된 “조급한 성격”, 부모들로부터 적절한 인성교육을 받지 못해 전통

윤리가 실종된 상태에서 멋대로 행동하는 “자유분방한 성격”, 과보호와 경쟁 교육속에서 자라나 “양보와 희생정신 결여”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상기의 연구 및 분석 자료를 종합해 볼 때 현재 한국의 청년층을 구성하고 있는 신세대의 사고와 행동의 특징을 (1) 탈 이념의 현실적 개인주의 (2) 탈 권위주의 (3) 가치관과 윤리의식이 결여된 자유분방(4), 안정감 결여 (5) 인내력 부족 (6) 밝고 명랑한 성격 (7) 명확한 자기주장 (8) 국가의식 결여 등으로 규정해볼 수 있겠다. 이들 의식의 부정적 요소들은 부모구타, 살해, 강도, 강간사건과 같은 범죄형태로 표출되고 있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병폐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97년 6월 26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전국 고교생과 대학생 1,0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에 전쟁이 나면 외국으로 피난 하겠다는 응답이 14.2%, 지방으로 피난하겠다는 응답이 19.7%로 신세대 학생 3명 중 1명이 전쟁이 나면 도망가겠다는, 극히 국가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장래에 많은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상기 예시에서만 보더라도 21세기를 대비한 청소년 의식 순화는 국가적 차원의 과제가 되고 있다.

Ⅲ. 군 교육의 국민교육 도량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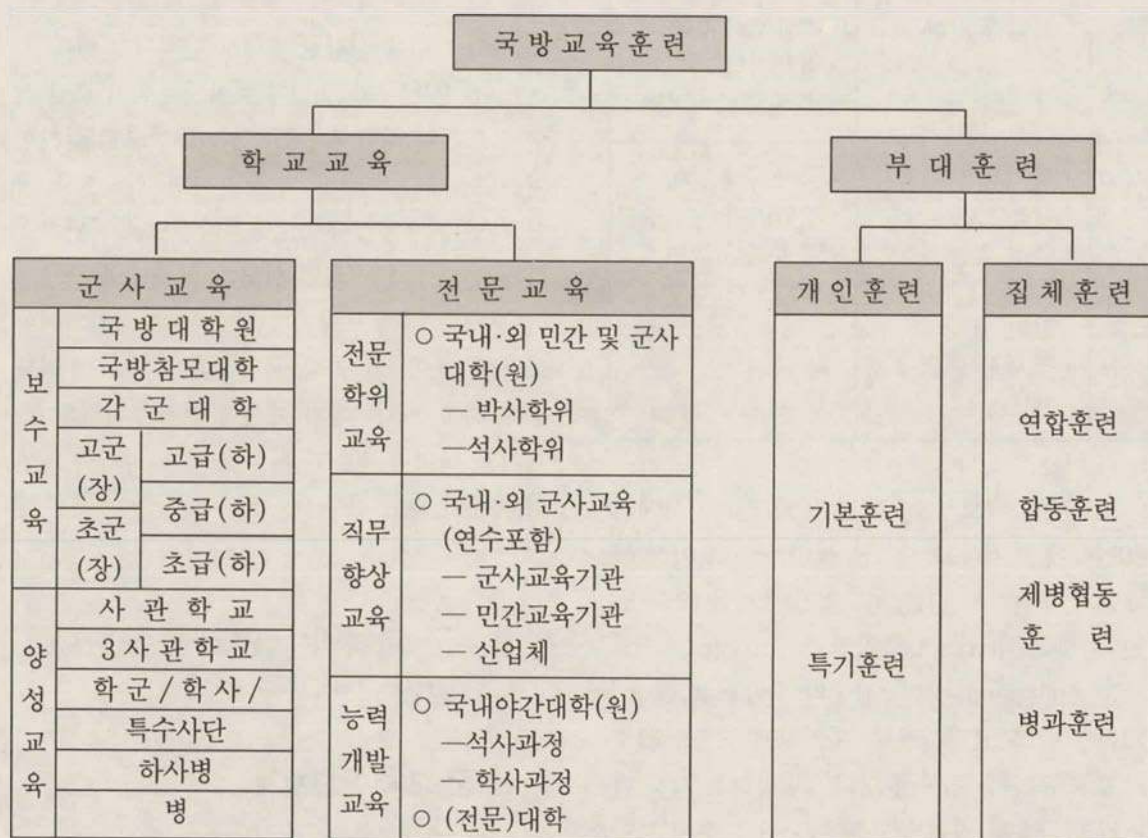
1. 군 교육 훈련체계

국방부의 교육훈련 체계는 “국방 교육훈련 규정”에 잘 명시되어 있는데 학교 교육과 부대 훈

련체계로 대별되어 있다. 학교 교육은 다시 군사 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부대훈련은 개인훈련과 집체훈련으로 구분된다. 군사교육은 보수교육과 양성교육으로 세분되는데, 병역의무 복무자(병, 단기하사, 단기복무장교/ROTC, 학사장교등)의 교육은 민간인을 군인화 하는 기초군사 훈련을 담당하는 각 군의 훈련소 및 직무수행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특기(병과) 학교의 전문기술교육과정을 거쳐 정규군에 편입되는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만 수료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여 학교 교육을 마치고 정규군에 편입되는 장병은 부대

배치 후 전역시까지 기본전투 수행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개인훈련과 개개인의 전투력을 조직화하여 제대별 부대로서의 통합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집체훈련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실시하게 된다.²⁾

이 중 국민 의식 개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무 복무자의 교육훈련 중 인성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양성교육과 부대훈련 중 정신교육 실태를 살펴보겠다.



2) 국방부, 「국방백서 (1997~1998)」 1997. 10. P167

2. 군 교육훈련의 사회화 실태

군별로 살펴보겠다.

먼저 민간인에서 군인으로의 신분전환을 위한
군 양성교육체계(훈련소 교육훈련) 실태를 각

가. 신분전환 교육 훈련실태

○ 육군

구 분 \ 신분별	장 교 후 보 생	하 사 관 후 보 생	신 병
교육기간(주)	12	8	6
교 육 중 점	• 군인화교육 • 장교 자질 함양 • 군인 기본 자세 • 기초 전기 전술 • 민주 시민으로서 직업 윤리	• 군인정신 • 군 기본 자세 • 하사관 자질 • 군인으로서 자긍심	• 군대예절, 군기본 자세, 투철한 군인정신 함양 및 복종심 배양 • 강인한 체력 단련 • 전투기술 숙달
정신교육내용	• 규정 방침 • 군대 윤리	• 규정 및 방침 • 군대 윤리 • 충효예	• 군대 윤리 • 도법 • 인격지도

○ 해군

구 분 \ 신분별	장 교 후 보 생	하 사 관 후 보 생	신 병
교육기간(주)	14	8	4
교 육 중 점	• 초급장교로서 군사 기본지식 함양 • 정신무장강화 및 체력 단련	• 군인정신 함양 • 병 통솔능력 배양 • 기초지식 배양 • 장비 운용 및 정비능력 함양	• 군인 정신 함양 • 전기 전술연마정신 • 강인한 인내력 배양 및 체력단련
정신교육내용	• 민족이념 • 국가이념 • 반공이념 • 통일이념 • 군대윤리	• 민족사 • 군대윤리 • 자유민주주의 • 북한관 및 통일관 • 군법, 인격지도	• 민족사 • 군대윤리 • 자유민주주의 • 북한관 및 통일관 • 군법, 인격지도

○ 공군

구 분	신분별	장 교 후 보 생	하 사 관 후 보 생	신 병
교육기간(주)		14	12	5
교 육 중 점		• 초급장교 자질향상 및 정신무장 • 군사일반지식 습득 • 군기본자세와 전기 배양 • 지휘통솔 능력 배양	• 군 기본자세 및 군사 지식 • 투지 및 감투정신 배양 • 전투기량 배양 • 기지경계 및 방어 전술 습득	• 군 기본자세 및 정신자세 배양 • 군 기본지식 • 기초전술능력 배양
정신교육내용		• 군의 역할과 사명 • 군인정신과 복무 규범 • 한국사 재인식 •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 남북통일정책	• 군의 역할과 사명 • 군인정신, 복무규범 • 한국사 재인식 • 자유 민주 주의와 공산주의 • 남북한 통일정책	• 군의 역할과 군인정신 • 민주시민상 • 한국사 재인식 • 한국안보와 남북통일 • 군대생활 의의와 보람

병역의무 입대자인 단기복무 장교, 하사관 및 병 양성 교육시 육군은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군 기본자세 확립교육과 체력 단련 및 기본 전투원으로서 필요한 전기 교육에 중점을 둔다. 이중 정신교육은 군기강 확립을 위한 각종 군법 및 규정 교육과 군대의 특성인 충성심 및 군대윤리 교육으로 군인으로서의 의식화에 역점을 둔다.

해군의 교육중점은 육군과 대동소이하나 정신교육은 역사의식과 통일관 및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교육이 특이하고, 공군도 교육중점은 육, 해군과 비슷한 정신교육은 군의 위상과 관련된 군의 역할과 사명감, 통일정책, 군생활의 매력, 그리고 국가관 확립을 위한 한국사 교육 등

타군에 비해 특이하게 실시하고 있다.

나. 부대 교육훈련의 사회화 실태

국방부는 군이 국가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하도록 군복무 간 군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첨단 군사과학 장비의 운용 및 정비를 위해 양성한 기술인력을 사회 복귀후 관련 사업 분야에 곧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 기술 자격 검정시험에 응시, 소정의 자격을 취득토록 권장하고 있는데, 지난 22년간(1975~1996년)에 기계, 통신 등 110개 분야에서 18만 여명이 기능자격을 취득한 바 있어 군기술교육은 산업분야에 기술인력의 공급원이 되고 있다.³⁾

3) 국방부, 앞의 책, P208

또한 국책사업 지원을 위해 군 고유업무 중 국민 편익증진과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농경지 정리, 도로 개설 등 국토 개발사업 참여, 그리고 농촌 일손돕기, 대민 봉사활동, 대민지원 업무, 재해·재난 구조, 환경보존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토 방위의 기본업무 외에 그 업무 능력을 넓히고 있다.

다. 병영생활간 실시하는 장병인성교육 실태

국방부는 정보화 시대인 21세기를 앞두고 군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제도적 개혁과 병

행하여 군의식 개혁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지침을 하달하였다. 각 군은 이 지침을 각 군의 특성에 맞게 정신교육에 적용하고 있다. 먼저 단기 집중식 인성교육으로 자아성찰을 통해 자기 혁신을 모색하는 감수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감수(Receiving) 단계로 어떤 특성 개념을 자신이 명확하게 자각하도록 유도한다. 둘째는 반응(Responding) 단계로 어떤 현상이나 자극에 대한 나의 반응을 느껴보게 한다. 셋째는 가치화(Valueing) 단계로 자신의 개념이 가치가 있는 지를 판단하게 한다. 넷째는 조직화

○○○부대 인성교육 프로그램

구 분		1 일 차	2 일 차	3 일 차	4 일 차	5 일 차
시 간 \ 주 제		나의 모습	조직속의 나	진정한 군인	하나되어	새로운 출발
일 과 전	06:30~07:00		기 상 및 아 침 운 동			
	07:00~08:20		아 침 식 사 / 학 과 준 비 / 자 기 낮 추 기			
	08:20~08:30		명 상 의 시 간			
1	08:30~09:10	교육과정 소개	블라이트 워킹	국가관 (필승의 신념)	현장체험Ⅲ (만승 장애자 자립원 노력봉사)	안보관
2	09:20~10:10	입과신고지휘관시간	현장체험Ⅱ (타부서 근무)		이미지 교환 소감문 작성	
3	10:20~11:10	만남의 시간				
4	11:20~12:00	자서전 작성 및 발표				
5	12:00~13:00	점 심 시 간				
6	13:00~13:50	현장체험Ⅰ (재활용품 처리장) 한마음구보(10km구보)	인생의 참의미	산악행군 (전장환경과 정신력 20km)	현장체험Ⅳ (만승 장애자 자립원생과의 즐거움 시간)	단막극 준비
7	14:00~14:50		단학수련체험		달성 단막극 다과 / 수료	
8	15:00~15:50					
9	16:00~16:50					
일 과 후	17:00~18:30	저 녁 시 간				단막극 준비 나의 군대생활 (달성모닥불포럼)
	18:30~19:20	신변정리	체련활동	신변정리		
	19:30~20:00	자서전 작성	명사강연	출전식		
	20:00~21:20	및 발표	VTR 시청			
	21:20~22:00	교 제 의 시 간				
	22:00~	취 침				

(Organizing)단계로 여러 가치를 체계화하고 목적달성을 확신케하는 적응능력을 배양한다. 다섯째는 상품화(Characterization) 단계로 학습내용을 자아개념으로 정착시켜 개인을 특성화 하는 것이다. 즉 의식화하는 것이다. 단기 집중식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정형적으로 반드시 단계화하지는 않고 부대특성에 맞게 진행하고 있다. ○군 ○부대에서 실시하는 실태를 보면 군 생활에 대해 자량과 즐거움 및 보람을 갖도록 부

대 전장병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연수교육 형태로 앞의 표와 같이 실시하고 있다. (연수자 구성 : 영관장교(1), 위관장교(2~3), 하사관(3~4), 준사관(1~2), 일병~병장(11~12)/18~20명)
(앞페이지 ○○부대 인성교육 프로그램 참조)

4박 5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교육 후 성과측정 및 효율적 시행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 감	의 식 성 향	관 련 프 로 그 램
•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가슴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 국가관 확립	• 정훈교육(명사강연, 필승의 신념, 안보관) • 출전식
• 세대간 신분간 상호 이해의 계기가 되었다. • 뜨거운 전우애를 느꼈다. • 봉사정신 배양	• 더불어 사는 의식 형성 • 협동심	• 만남의 시간 • 자기 낮추기 • 자서전 발표 • 구보 및 산악행군 • 이미지 교환 • 현장체험(Ⅱ, Ⅲ, Ⅳ) • 브라인드 워킹
• 극기력과 인내심 배양 • 자신감 배양	• 자신감과 강한 정신력 배양	• 산악행군, 구보 단학수련
• 자신을 건강하게 키워준 부모에 감사, 국가에 감사	• 충효사상 고취	• 현장체험(Ⅲ, Ⅳ) • 출전식 • 브라인드 워킹 • 자서전 발표 • 인생의 참의미
• 환경보존 중요성 인식	• 환경보존	• 현장체험(Ⅱ)
• 뱃심과 용기를 얻었다.	• 용기	• 산악행군 • 단학수련 • 명상의 시간

상기와 같이 병영이라는 특수환경에서 실시된 단기 집중식 인성교육이 짧은 기간에 비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인간은 망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주기적으로 반복할 때 의식을 내면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이 단기집중식 인성교육과 병행하여 장기지속적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의식개혁 토론회”와 “정신교육의 날” 행사가 그것이다.

의식개혁 토론회의 주제는 업무효율적 추진 방안 및 자기성찰,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 상부지시 시행결과(국가경쟁력 10% 향상 동참하기 등), 내무생활 합리화 위한 건의사항 등으로 대대장급 지휘관에 의해 주 단위로 구체적인 토론 내용이 설정된다. 진행방법은 전 요원이 윤번제로 사회자가 되어 지정된 토의 주제를 제시하면 2~3명이 자기주장(혹은 실천결과)을 발표하고, 2~3명이 토론에 참가한 후 지휘관이 토의 결과를 종합 강평(혹은 조치계획)을 하고 종결한다.

이러한 의식개혁 토론회는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정신교육의 날 행사는 대대급 이상 지휘관 책임 하에 매주 1회 4시간씩 정규과목화하여 일과 중에 실시하는데 주 내용은 애국심 고취, 안보관 확립, 통일관, 군대윤리 및 시사안보교육과 문화활동으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이의 체계적 교육과 자료제공을 위해 국군 정신전력교본과 매 월 단위 국방 정신교육 지침을 하달하고 있다.

이러한 군의 전투태세 확립과 병행한 인성교육 성과를 전역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첫째, 상호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둘째, 인격함양과 의식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셋째, 발표력이 향상되었다. 넷째, 토의문화 정착으로 인간관계가 개선되었다. 다섯째, 사회는 더불어 사는 것임을 터득하였다고 답하였다. 더욱이 군생활 전반에 대한 소감은 국가관과 안보의식이 몸에 배이게 되었고, 체력이 향상되었으며 하먼 된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얻었고 국가의 주인인 성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간직하고 군을 떠난다고 하였다.

구 분	1일 토론회	월간 토론회	분기 토론회	반기 토론회
시 간	20~30분	2시간	4시간	4시간
주 관 자	내 무 반 장 (윤번제)	중 대 장	대 대 장	연대급 이상 부대장
방 법	토 론	토 론	중 대 별 발표자 발표	대 대 별 대표자 발표

3. 군복무가 신세대 의식에 미치는 영향

국군은 국민 개병주의에 입각하여 군 조직에 소요되는 절대다수의 병력을 징집에 의해 충원하기 때문에 한국 국민이 갖는 사회적 성격이 그대로 군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군은 합법적 폭력집단으로서, 그리고 국가 안보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모든 징집자들을 엄격한 규율과 통제로 다스리게 된다.

이에 따라 신세대들은 가정을 떠나 이질적인 조직에 던져지는 상황이 되어 심리적, 육체적으로 불안한 요인을 지니게 되고 사회생활로부터 격리된 채 반 강제적으로 집단교범을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세대의 의식이 불과 수주 일만에 차츰 변화되고 있음을 신병교육을 마친 병사들의 인성과 행동에 미치는 재사회화 과정과 영향을 객관적 측면에서 분석한 논문 “군복무 경험이 한국남성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⁴⁾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군생활을 통하여 한국의 젊은이들은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생활하게 됨에 따라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독립심을 기르게 된다. 군 특성상 단체생활과 어려운 훈련에서 체득하는 동료간의 유대감은 단체의식을 갖게 하며, 자기자신을 돌아보고 자아개념을 구성하게 하여 타인과의 정서적 관계에서 협동, 타인이해, 동정, 공감 등 정서적 능력을 발전시켜 더불어 사는 정신을

체득한다. 또한 군임무 수행방식이 협동심을 귀중한 가치로 강조하기 때문에 협동과 단결심을 배양하는 비슷한 또래와 병영생활을 통해 심신을 단련할 수 있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함께 사회성을 키울 수 있게 된다.

즉, 군생활(현역, 단기사병, 카츄사, 의무복무장교)을 마친 신세대들은 군교육훈련의 사회화 노력 결과로 일부 부정적 성향으로 의식화되는 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군생활 동안 체득한 긍정적 의식성향으로 국가관 확립, 협동심 배양, 의리(원만한 인간관계), 강한 정신력(인내심 육성), 책임감, 리더십, 자신감 등 더불어 사는 성숙한 선진국민의식을 갖게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세대 재사회화 의식은 상기 논문에서 군복무 후에도 지속되어 긍정적 국민 의식 개조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21세기를 대비한 진취적 국민의식개혁을 위해 군교육훈련을 국방목표를 위한 수단만으로서 시행하는 차원을 넘어 국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국민인성교육 도장화를 위한 국가 경영차원에서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IV. 결론

현대사회 연구소가 1985년 조사한 “군복무 경험이 국민 의식에 미치는 영향분석”⁵⁾에 따르면 군복무 경험이 국가적 차원에서 반공의식과,

4) 고야마 이쿠미 “군복무 경험이 한국남성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5. 8

5) 김동현 외, “군복무 경험이 국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현대사회연구소, 1985

국가관을, 사회적 차원에서는 책임감, 협동심, 원만한 인간관계 및 예의범절을, 개인적 차원에서는 인내심, 생활력, 독립심을 함양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대학생과 직장인 모두 군필자가 미필자보다 군복무 효과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되었다.

이는 10년 뒤인 1995년에 연구 분석한 “군복무 경험이 한국 남성의 의식에 미친 영향”이란 “Ⅲ”장에 인용한 고야마 이쿠미의 학위논문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군복무가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국민 인성교육 함양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1세기에도 군의 인성교육은 국민 인성교육 함양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좋은 군대문화로 계승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하겠다. 우리 한국은 '90년대에 들어와 과거 불행했던 군의 정

치개입 등으로 인해 파생한 부정적 요소들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모든 군사문화를 단죄하자는 일반적 사회분위기에 휩쓸려 군 고유의 특수문화마저도 청산 대상이 되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군은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로서의 몫을 다하고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군에 심기 위해서도 좋은 군사문화 중 하나인 군의 정신교육 체제를 국민 인성 교육 도량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한다면 21세기의 한국은 선진화를 향한 순풍을 더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군의 정신교육 체제를 평화시 군의 제2의 과업으로 설정하여 단기 집중식 인성교육과 장기 지속적 인성교육을 과학화, 체계화 하여 21세기를 지향한 선진 국민의식 함양을 위한 국민인성교육 도량화로 발전시켰으면 한다. **등문**

신(新) 공군기본교리¹⁾

개정 배경 및 의의

안 재 봉

중령/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1. 서 언

우리는 상시(常時) 공군교리에 의하여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공군교리를 근간(根幹)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공군력의 운용과 건설

에 관한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할 경우에 판단의 기준으로 공군교리의 원리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이 우리의 찬란한 문화를 잇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군이면서

1) 「신 공군 기본 교리」라는 용어는 1997년 10월 1일자로 발간된 공군기본교리에 대하여 필자가 붙인 명칭이다. 그 이유는 종전까지의 공군기본교리보다 내용 및 편집 차원에서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교리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세부 내용은 후술하겠지만 먼저 내용측면에서 '전쟁과 공군력'에서 전쟁의 본질 및 수준을 이해하고 전쟁에서 공군력의 역할을 조망하고 공군력의 특성 및 능력을 이해한 상태에서 공군의 목표와 임무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한다. 또한 공군력을 이용하여 어떻게 항공전역(Air Campaign)을 수행하고 작전술(Operational Art)을 운용할 것인가와 공군의 작전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전쟁 이외의 작전에서 공군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 등에 대하여 원리와 원칙을 기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군을 어떻게 조직하고, 교육 및 훈련시킬 것인가와 공군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기본 지침을 기술하고 있다.

편집 측면에서는 독자들이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사진과 CG, 그림을 칼라로 인쇄하여 기존의 공군기본교리 개념으로부터 탈피하였다. 또 한 가지는 발간 부수를 대폭 늘려 총 5,000부를 발간하였으며, 특히 대외부서의 공군 요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한부씩 배부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필자는 개정된 공군기본교리에 대하여 종전의 공군기본교리로부터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였다는 점과 내용 및 편집측면에서 한 차원 높게 끌어 올렸다는 점에서 본 고를 통하여 「신 공군기본교리」라고 칭하고자 한다.

공군교리²⁾의 중요성을 잊고 생활하고 있는 현실이 아쉽다. 교리(敎理, Doctrine)라는 용어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교리가 무엇이라고 질문해 보면 막연하나마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은 바 있다.

특히, 공군기본교리에 대하여 똑같은 질문을 해보면, '공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는 '공군의 헌법(憲法)과 같은 것'이라고 대답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리에 대하여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공군의 교리에 대하여 아는 대로 이야기 해보라고 하면 대부분의 공군 요원들이 주저하게 되고, 대답을 회피하려고 화제를 바꾸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보편화된 공군의 의식이고 공군문화의 한 단면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은 의식이 공군문화의 저변에 자리잡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의 견해로는 제도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공군 요원의 대부분이 교리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접할 때가 공군대학교 초급참모과정(SOS)이었으리라고 본다. 실제로는 그 보다 훨씬 이전인 공군에 입대(입교)해서부터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상태에서 교리를 접하였고, 또한 교리에 의하여 군무(軍務, Military Affairs)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바로 그와 같은 원리와 원칙이 교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

었을 뿐이다.

특히, 조종사라면 매일같이 실시하는 실전과 같은 훈련이 곧 교리에 입각한 전술 전기의 연마라는 점을 모를 리가 없건만 비행훈련 자체가 작전적 또는 전술적 수준의 교리에 근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조종사는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을까?

필자의 소견으로 이유를 들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첫째, 공군의 제복을 입은 이후부터 교육과정 이 아닌 일상에서 공군교리와 공군기본교리에 대하여 한 번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고, 이를 강조하는 선배들과 지휘관 또한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공군기본교리가 수 차례 걸쳐 개정, 발간되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발간 부수가 한정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주변에서 열람할 수 없었으며, 또한 편집 서식이 획일적이어서 독자들의 눈길을 끌지 못하였다.

셋째, 공군기본교리 내용 자체가 독자들로 하여금 관심과 흥미를 끌 만큼 새로운 내용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내용 서두에서부

2) 공군규정 1-1(1995.9.1) "교리발전업무"에 의하면, "공군교리라 함은 공군력으로 국가목표를 지원함에 있어서 공군의 활동지침이 되는 기본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권위있는 것이나 적용시에는 판단이 요구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보다 쉽게 정의한다면 "공군력을 운용하는 데 있어 '최선의 방법(the best way)'이라고 믿는 원리(原理)와 원칙(原則)으로서 공인된 신념(信念)"이라 할 수 있다.

터 국가안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부터 시작함에 따라 공군과 공군력 운용개념에 관하여 쉽게 이해하려는 독자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충분히 유발해내지 못하였다.

공군본부에서는 지난해 10월 1일 공군의 공인된 신념으로서 “공군력을 어떻게 준비하고 운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을 담고 있는 공군기본교리를 개정하여 발간하였다. 금번에 개정된 공군기본교리는 서두에서 언급한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전투발전단에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부서(부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수 차례의 실무토의를 거쳐 공군본부 차원의 심의위원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공군본부 정책회의의 의결을 거쳐 발간에 이르기까지 만 2년 1개월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금번 개정된 「신 공군기본교리」의 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개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그 의의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2.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최근 들어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군에도 첨단 무기 및 장비 개발이 보편화되었고,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Software)중심의 정보작전 및 정보전의 수행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전을 수행하고 첨단 무기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작전개념의 재정립과 신교리의 발전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탈냉전 이후 화해와 협력의 무드 속에서도 지역 간, 민족 간의 갈등 양상은 오히려 점증되는 전환기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었고,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 위협에 동시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또한 1995년 당시 합참에서는 군사기본교리(초안)을 작성하여 교리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었으므로³⁾ 이와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군의 기본교리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가장 직접적으로는 1993년에 개정된 공군기본교리에

3) 합참에서 작성, 발간한 군사기본교리(합동교범 1)는 1989년 KIDA에서 군사용역과제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간으로 1992년부터 국방참모대학에서 군사기본교리(연구안)을 작성하여 합동교리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993년 12월에 발간하였다.

그후, 다시 합참 및 국방참모대학에서 각군대학 및 장성(將星)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1994년 12월에 군사기본교리(초안)으로 발간하였으며, 이를 실무에 적용하여 문제점을 도출, 보완한 후 각군 대표연구관의 실무토의와 합동교리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997년 9월에 군사기본교리로 발간하였다. 그러나 교리로 발간된 군사기본교리는 각군 대표연구관의 실무토의 및 합동교리심사위원회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합동전장운영 개념”의 주요 내용이 교리로 작성됨으로써 해군과 공군이 이에 이의(異意)를 제기하여 합참의장과 해·공군 참모총장의 합의(合意, 1997. 10. 6)에 의해 합동교범(초안)으로 배포된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참(교리과)의 실무자는 이를 부인(否認)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근거 : 기관기 33830-2865('97. 10. 7) 합동교범1(초안) 군사기본교리 배포 결과 통보

대하여 개정 순기(매 3년)⁴⁾가 도래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적 여건에 부합한 공군기본 교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와 같은 인식을 토대로 전투발전단 전쟁연구실 실무담당자를 중심으로 공군기본교리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1995년 10월부터 1997년 7월까지 만 1년 10개월간의 연구끝에 현재의 교리인 제6차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다.⁵⁾

신 공군기본교리는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론, 전쟁과 공군력, 공군력 운용, 공군의 준비 등 총 4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총론은 합동교리와 연계성을 유지하고 공군기본교리의 작성 목적과 범위,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본교리 틀로부터 벗어나 새롭게 기술하였다.

제2장 전쟁⁶⁾과 공군력에서는 전쟁의 본질과 수준에 관하여 기술하고 공군이 채택한 전쟁의 원칙으로서 ① 목표, ② 공세, ③ 집중, ④ 절용⁷⁾ ⑤ 기습, ⑥ 보안, ⑦ 지휘통일, ⑧ 기동, ⑨ 간명⁸⁾ 등 9개 원칙에 대한 원리를 기술하고 있다. 제2절 공군력에서는 공군력에 대한 개념 정의와 고도, 속도, 거리, 융통성 등 공군력의 특성을 기

4) 공군본부, 교리발전업무(공규 1-1, '95.9.1), 제11조

5) 필자는 1990년 12월 20일 공군전투발전단 창단과 함께 보임 이래, 공군교리 연구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1993년도 공군기본교리 개정시 작성 실무자로서 참여한 이래, 두번째로 현재의 교리개정연구에도 참여하였다. 최초 연구위원회 구성(1995.10.1)시에는 상근 연구위원으로서 개정 작업에 직접 참여하였으나 1997년 1월 20일 부로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전략기획처 개념발전/교리담당으로 보임됨에 따라 제1,2차 기본교리심의위원회 및 공군본부 정책회의의 심의를 주관하는 실무자로서 발간시까지 수 차례의 감수 및 교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금번 공군기본교리 개정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발전적으로 어려운 결심을 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기회를 빌어 실무자로서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제1차 기본교리심의회의(1997.2.5)시 부결(否決)을 결심하시고, 또한 그 결과를 전면 받아들여 현재의 공군기본교리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전략기획처장(금기연(진)대령, 현 처장), 전쟁연구실장(김은기 대령, 현 공본 작전처장, 후임(1997.5.~) 이경환 대령, 현 실장), 전략기획과장(구본담 대령, 현 17비 비행전대장, 후임(1997.5.~) 한성주 대령, 현 과장), 교리발전담당관(한기범 중령, 현 제233탐색구조비행대대장, 후임(1997.6.~) 홍순만 중령, 현 담당관), 그리고 홍성표 중령(전발단 기본/합동교리담당)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6) 전쟁이라는 용어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의 하나다. 예컨대, 신문지상이나 방송 매체를 통하여 '범죄와의 전쟁', '입시와의 전쟁' 등 너무나도 흔하게 사용되는 용어다. 스포츠 분야에도 빠지지 않고 쓰이는 용어 중의 하나가 바로 '전쟁'이라는 용어다. 그러나 정작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비해야 할 군인의 입장에서 '전쟁'이라는 용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쟁의 본질 및 수준 등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전쟁을 이해한 상태에서 전쟁에서의 공군력의 역할과 임무, 작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항상 생각하고 대비하는 자세를 촉구하고자 "전쟁과 공군력"이라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하였다.

7) 종전의 공군기본교리에서는 '경제성의 원칙'으로 번역하여 사용해 왔으나 미 공군의 항공우주기본교리를 확인한 결과 "Economy of Force"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보다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절용의 원칙'으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종전의 공군기본교리에서 기술하고 있는 '경제성의 원칙'을 고수하자는 의견과 '절용의 원칙'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였으나 교리의 본질인 원리와 원칙을 바탕으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하여 '절용의 원칙'으로 개정하였다.

8) 간명의 원칙은 1993년도 개정된 공군기본교리에 단순성의 원칙으로 새로이 정립하였으나 보다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간단명료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간명의 원칙으로 개정하였다.

술하고 있다.⁹⁾ 공군의 능력은 감시성, 신속대응성, 이동성, 침투성, 치명성¹⁰⁾, 생존성, 정밀성으로 정립하고 각각에 대한 개념을 발전적으로 기술하였다.

제3장 공군력 운용에서는 공군의 목표¹¹⁾ 및 임무¹²⁾에 대하여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있으며, 지휘 및 통제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제와 분권

적 임무수행 원칙과 함께 전장에서의 항공력 지휘 및 통제체제에 대한 개념과 통제체제를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기술하고 있다.

공군 요원뿐만 아니라 지상군 및 해군에게도 공군력 운용에 관한 개념을 일원화하고자 공군력을 지휘 및 통제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① 공중우세는 모든 작전에 필수적이다. ② 공군력은 기본적으로 공세전력

목 차		
제1장 총론		
1. 목적	2. 범위	3. 적용
제2장 전쟁과 공군력		
1. 전쟁	2. 공군력	
제3장 공군력 운용		
1. 공군의 목표 및 임무	2. 지휘 및 통제	3. 항공전역 및 작전술
4. 공군의 작전	5. 전쟁이외의 작전	
제4장 공군의 준비		
1. 조직	2. 교육 및 훈련	3. 유지
4. 발전		

〈그림 2-1〉 신 공군기본교리91997.10.1) 목차

9) 공군력의 특성은 종전 교리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보다 능동적이고 광의의 개념으로 정립하였다. 특히, 융통성은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능동적으로 작전할 수 있으며, 주도적으로 새로운 상황을 창출하여 우군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이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특성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융통성은 공세적 행동으로 극대화되며, 전장주도권 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적극적인 개념이다.

10) 종전에는 파괴성으로 기술하고 있었으나 미래 전쟁양상과 공군무기체계의 특성상 “One Target One Kill” 개념을 적용함과 동시에 침투성과 정밀성을 결합하여 결정적인 표적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파괴함으로써 적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아군의 작전성과를 제고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치명성으로 개정하였다.

11) 공군의 목표 중 ‘영공 방위’를 보다 확대한 개념인 KADIZ 방어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기각되었다. 그 이유는 KADIZ 자체가 영공방위를 위한 작전조치선이라는 점과 원리와 원칙을 기술하는 공군기본교리에 명문화할 수 있는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였다.

12) 공군의 임무에 대하여는 1993년도 개정판에서 최초로 정립하였다. 금번 개정된 “신공군기본교리”에서 재개정자는 의견도 제기되었으나 지속시키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해를 돕고자 1993년 당시 공군의 임무를 정립하게된 배경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다. ③ 공군력은 전쟁의 모든 수준에서 동시에 병행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④ 공군력은 고유의 제한성¹³⁾을 가지고 있다”라고 새로이 명시하였다.

또한 공군기본교리 사상 최초로 기술한 항공전역(Air Campaign) 및 작전술(Operational Art)에서는 항공전역 계획, 공군의 전장(戰場), 작전술¹⁴⁾에 대하여 정립하였으며, 전장의 전 중심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병행작전¹⁵⁾ 개념을 최초로 기술하였다.

공군의 작전에서는 제공작전, 전략목표 공격작전, 항공차단작전, 근접항공지원작전, 전자전, 감시 및 정찰작전, 공수작전, 공중급유작전, 탐색 및 구조작전, 대비정규전, 기지방어작전, 화생방 방어작전, 방호 및 복구 등 13개의 다양한

작전 형태에 대하여 발전적인 개념을 보완하였다. 작성 형식에 있어서도 작전에 대한 정의 및 기본 개념, 수행원리, 그리고 작전을 통하여 달성해야 할 목표 및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각각의 작전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작전 수행장면을 사진과 그림 등을 첨부하였다.

특히, 정보 및 전자전의 개념에 대하여 새로운 개념을 보완하였으며, 종전의 기본교리에서 전자전투(EC)에 포함하여 기술하고 있던 대공제압(SEAD) 임무를 공세제공작전에 포함하여 개정하였다.

방공포병분야에서는 ‘방공포병작전’이라는 명칭으로 작전개념을 별도로 정립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군의 한 분야로서 모든 공군작전에 방공포병작전을 포함하였고, 특히 제공작전

개정 당시 공군의 임무에 대하여 공군의 주요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대외용 브리핑 자료에 의하면, 공군의 임무가 천차만별로 소개되고 있었다. 즉, 통일된 개념이 없이 각 부서(부대)마다 필요할 때마다 지휘관의 방침에 의하여 공군의 임무를 소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공군의 임무를 명명백백하게 정립함으로써 언제, 어디서, 누가 공군의 임무에 대하여 소개할지라도 공군 요원들이 한결같이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공군기본교리에 공군의 임무를 명시하게 되었다.

13) 공군력의 제한사항으로 기지 의존성, 한정된 탑재량, 비영속성을 들고 있다.

공군본부, 공군기본교리(공군교범 0-1), (대전:공군본부, 1997, 10. 1), pp.24~25.

14) 공군의 작전술에 대하여 “전략적, 작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항공전역과 주요 작전을 계획하고 운용하는 술(術)로서 전쟁의 모든 수준에 걸친 공군력의 주요 활동들로 표현된다.”라고 정의하고, 작전술 전개과정을 “정보융합, 전투평가, 표적선정, 임무계획, 작전수행”으로 정립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반대 의견의 주요 내용은 새로운 개념인 작전술에 대하여 개념적인 내용만을 기술하고, 작전술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작전적 수준의 교리에 기술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와 같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군기본교리에 작전술 개념을 최초로 정립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5) 병행작전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작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서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중심을 포함한 여러 표적들을 동시에 공격하는 작전이다. 예컨대, 적 중심에 위치한 주요 표적에 대하여 전략목표공격작전을 수행함과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항공차단작전을 실시하고, 전선에서는 근접항공지원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에서 이중무기체계 운용개념을 강조하였다.¹⁶⁾

또한 공중급유작전은 체공 중인 항공기의 작전영역을 확대하는 개념보다는 항공기가 갖는 제한성을 극복하여 작전 성과를 제고함과 동시에 예비기지로의 귀환 등 다양한 상황변화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개념으로 정립하였다.

한편, 탐색 및 구조작전, 공수작전 등에 대하여는 전천후 작전 및 은밀침투 수행능력의 필요성과 전자전 등을 통하여 자체보호할 수 있는 방호능력의 구비 등 정보전 수행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공군력 운용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쟁

이외의 작전' 개념을 새로이 명시하였다는 점이다. 전쟁이외의 작전이라 함은 전쟁이 아닌 영역에서의 광범위한 군사작전으로서 주로 분쟁을 억제, 해결하고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군사활동을 총칭¹⁷⁾하며, 전투작전과 비전투작전으로 구분된다.

전투작전은 평화유지 및 분쟁해결을 위하여 공군력을 전투에 직접 투입하여 운용하는 작전으로서 평화위협 세력에 대한 제재 조치, 공해상항로에서의 안전보장, 평화위협 요소들에 대한 타격 및 공습, 대침투, 대테러 작전 등이 있다.

비전투작전은 적군과 아군 간의 교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정책을 지원하는 작전으로서 재난구조, 재해복구, 지역개발 지원, 마약퇴치, 유사

16) 1993년도 교리 개정시에도 방공포병작전 개념에 대하여 공군 작전의 한 형태로서 정립하자는 의견이 방공포병 분야로부터 제기되었으나 공군의 한 병과분야로서 공군의 주요 작전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개념으로 정립하였다. 즉, 제공작전 및 전략목표공격작전, 항공후방차단작전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항공기와 방공포병무기를 동시에 운영한다는 이중무기 운용개념으로 정립하였다.

17) 전쟁이외의 작전(MOOTW : 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이란 1960년대초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시기에 베트남에서의 반란군 소탕을 위해 게릴라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저강도 분쟁(LIC : Low Intensity Conflict)이라는 용어의 대체 개념이다. 저강도 분쟁이라는 용어는 '저강도'의 수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강대국인 미국의 입장에서 저강도로 규정할지라도 약소국인 당사국 입장에서는 초 고강도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으며, 미 국무부에서조차 외교적인 문제를 이유로 용어 사용을 거부해 왔다.

이로 인하여 용어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오다가 1990년대 초에 미 합동간행물 JP 3-07로 "LIC"을 발간한 후, 1992년 가을에 JP 3-07을 "Joint Doctrine for Military Operations Short of War"로 개정하였고, 1993년 여름에 JP 3-07 "Joint Doctrine for 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개정하였으며, 1995년 6월에 미 합참의장의 승인을 받아 합동교리로 발간한 이래 범 세계적으로 통용되었다.

이에 영향을 받아 대한민국도 합참에서 발간한 '군사기본교리(97.9)' 및 육군의 '작전요령(96.7.31)', 해군의 '해군기본교리(96.8.29)', 공군의 '공군기본교리(97.10.1)'에 "전쟁이외의 작전"을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편, 미 육군은 기본교리적인 'Operation(FM 100-5, '93.6)'에 "전쟁이외의 작전"을 명시하고 있으며 미 공군은 현재 개정 중인 '공군기본교리(94년부터 개정 착수)'에 "전쟁이외의 작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쟁과 전쟁이외의 작전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1991년 걸프전을 실례로 들어본다면, 1991년 1월 17일부터 42일간에 걸쳐 수행한 "Desert Storm" 작전은 전쟁(War)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병력을 전개하고 군수 및 정보, 작전지원 활동 등을 수행한 "Desert Shield" 작전은 전형적인 "전쟁이외의 작전"이라 할 수 있다.

시 해외교민 철수, 인도주의에 의거한 난민 철수 및 유엔평화유지활동 등을 총칭한다. 공군은 공군력의 특성 및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보, 감시 및 정찰, 공수, 탐색 및 구조, 의료 및 군수 지원, 통신능력 등을 통하여 비전투작전을 수행한다.

제4장 공군의 준비에서는 공군력의 특성과 능력을 발휘하여 미래안보 환경 및 미래전에서 공군에게 부여될 임무를 완수하는 데 부합하여 공군을 어떻게 조직하고, 교육 및 훈련시킬 것이며, 어떻게 유지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공군 요원 모두는 정보화 군을 선도해 나가는 전문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지식을 함양함은 물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하여 공군 발전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부록에서는 교리의 일반적인 개념 및 교리의 성격, 군사교리체계 등을 소개함으로써 교리를 이해하려는 독자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합동교리와 공군교리와의 관계 등을 정립하여 교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용어정의에 대하여는 부록으로 기술하자는 의견과 삭제하자는 의견이 대립하였으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 발췌하여 부록에 포함하여 발간하였다.

3. 개정 의의

금번 개정된 신 공군기본교리가 갖는 의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내용적인 측면, 편집적인 측면, 그리고 교리개정 기간, 활발한 토론 및 회의, 이에 직접 참여한 전문인력의 확산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금번 개정된 공군기본교리는 공군 창설 이래 수 차례에 걸쳐 개정된 어느 공군기본교리보다도 한 편의 이야기처럼 논리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이다.

필자가 처음에 공군기본교리를 읽은 것은 1986년도 공군대학 초급참모과정(SOC)으로 기억된다. 당시 공군기본교리를 읽고 난 후의 소감은 시간만 소비했을 뿐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게 솔직한 표현이었다.

물론 공군작전에 대해서는 당시 전투비행대대 생활을 통하여 배우고 터득한 상태에서 별 어려움은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논리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1993년도 공군기본교리 개정시에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고, 금번 교리 또한 이를 염두해 두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금번 신교리는 총론에서부터 왜(?) 공군기본교리를 발간하는가에 대하여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고 적용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전쟁이라는 영역에 대하여 본질과 수준, 전쟁을 수행하는 원칙을 기술하면서 공군력의 특성 및 능력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본

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공군의 목표와 임무를 명확하게 각인하고, 공군력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항공전역, 작전술, 작전, 전쟁이외의 작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원리와 원칙을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공군을 어떻게 조직하고 교육 및 훈련시키며, 유지·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기술하였다. 이렇듯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편의 스토리를 엮어가듯이 논리적인 전개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기존의 공군기본교리 편집 방식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하여 신세대 장병들의 기호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정보화 군을 지향하는 유리한 입장을 견지하였다는 점이다.

1993년도 공군기본교리 개정시에도 당시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고 있는 교리내용을 한글로만 작성하는데도 적지 않은 반론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 연연하지 않고 한글전용으로 발간하였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공군요원들이 큰 의미를 부여하였던 일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다.¹⁸⁾

개정된 신 공군기본교리는 이 차원을 뛰어넘어 칼라사진과 컴퓨터 그래픽, 그리고 그림 등을

삽입하여 독자들이 이해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¹⁹⁾

셋째, 신 공군기본교리는 개정을 위한 상근연구위원회 편성에서부터 발간에 이르기까지 만 2년 1개월이 걸렸으며, 순수하게 연구기간만 1년 7개월이 소요되었다.²⁰⁾

이 과정에서 수 차례의 실무자 토의와 관련부서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여러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쳤다. 때로는 새로운 기념을 정립하기 위한 토론장에서 하나의 문장을 대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열변을 토하기도 하였으며, 회의장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장소를 옮겨 밤이 깊도록 고민한 적도 많았다.

1993년도 개정시와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기본교리 토의에 참여하는 요원들의 수준이 매우 향상되었으며, 실무토의에서 분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에는 소관 부서장을 통하여 관철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곧 공군기본교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자기분야의 발전을 위한 관련근거로서 기본교리를 적극적으로

18) 당시의 공군기본교리는 거의 한자로 작성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한자를 배우지 않았던 신세대 장병들은 공군기본교리를 읽기조차도 힘들 정도였다.

19) 1993년도 교리에도 도표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당시의 여론은 교리로서의 권위가 실추된다는 이유 아닌 이유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하였다.

20) 이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작성과정에서 위원장, 간사, 연구위원이 여러 차례 교체되기도 하였지만 근본적으로는 심도있는 연구를 위하여 교리발전과 관련된 부서의 전문요원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새로운 기념을 정립시에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참조하여 수많은 실무토의를 거쳐 확정하는 신중함을 견지하였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빨리 빨리 병”을 배제하고, 오로지 내용의 질적 발전에 최우선을 두신 분들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과정이었다.

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반가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4. 결 언

공군력을 운용하고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지침이 되는 “공군기본교리(공군교범 0-1)”는 1949년 10월 1일 창군이후, 1966년 “공군 작전운용요강”을 최초의 교리로 발간한 이래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쳐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전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군교리는 현대전의 교훈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첨단 무기체계의 도입 등 현실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군의 임무와 역할이 더욱 다양화되었고, 이를 완수하기 위한 작전 형태가 더욱 분화(分化, Specialization)²¹⁾됨과 동시에 전문화됨에 따라 작전개념 또한 전문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1903년 동력항공기가 출현한 이래, 채 4반세기 되지않아 항공기는 현대전에 있어서 핵심전력으로 자리매김되었으며, 공중우세를 확보하지 않고는 현대전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초기에는 단순한 연락임무만을 수행하다가 점차 상대방의 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과학기술의 발달과 항공전략 사상이 및

군사작전의 요구에 힘 입어 화력의 연장 수단으로, 또는 공중을 이용한 수직적 우회 수단으로서 지·해상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지원전력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현대전을 거듭하면서 적 중심에 위치한 중심(重心, Center of Gravity) 공격을 통해 전쟁을 종결짓는 핵심전력으로 발전하였다.

즉, 유사시 공중우세를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서 평시에는 공중우세를 확보하여 최단시간내에 전쟁을 종결짓는 결정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초기의 항공기에 비하여 현재의 항공기는 기민성이 뛰어나는 뿐만 아니라 무장 탑재능력 및 정밀성, 치명성이 두드러지게 향상되었고, 행동반경도 크게 확대되었으며, 전자기술의 발달로 전천후 작전을 수행함과 동시에 스텔스 기술을 이용하여 은밀침투능력을 보유했다.

이와 같은 항공력의 역할 변화는 곧 공군교리로부터 비롯되기도 하였으며,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파생된 역할 변화로부터 공군교리갈 발전하기도 하였다. 분명한 사실은 한국 공군의 경우, 과학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미흡한 관계로 결국 선진국인 미 공군의 무기체계와 교리의 영향을 크게 받아 왔던게 사실이다.

21) 공군의 작전이 매우 다양화됨에 따라 각각의 작전에 대한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된다. 즉, 미래전에서 정보와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에 대비키 위한 신 개념으로서 정보전(IW) 및 정보작전(IO) 등이 정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항공력을 이용한 작전은 1회의 작전으로 작전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밀성 및 은밀침투성, 치명성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작전과 관련된 분야의 분화(分化)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공군력을 운용하는 원리와 원칙을 담고 있는 공군기본교리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 공군의 기본교리를 여과없이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필자가 1995년 미 공군교리본부(AFDC) 및 항공우주교리교육대학(CADRE)에서 연수를 통하여 터득한 바로는 우리가 안고 있는 교리상의 문제와 미 공군이 안고 있는 교리상의 문제가 대동소이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즉, 공군교리에 대하여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공군의 현실과 거의 같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필자는 우리 현실에 알맞는 공군기본교리를 정립하고 이를 완전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공군력을 운용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공군력을 미래지향적으로 건설해 나간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 일류 정예공군 건설”이라는 공군 지표와 “전략형 공군력” 기반이 튼튼하게 구축된다고 본다.

금번 발간된 신 공군기본교리를 한 편의 소설책을 읽듯이 숙독한 다음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번쯤은 가져보도록 했으면 하는게 필자의 간절한 바램이다. 이를 통하여 교리는 터득되어지고 공군과 공군력을 이

해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공군 요원 모두는 이러한 상태에서 ‘공군’이라는 상품을 파는 외판원처럼 매사에 신 공군기본교리를 인용하고,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공군력 운용에 적용해야 한다.

또한 합참 주관으로 합동작전 차원에서 연구 발전 중인 군사기본교리 및 합동교리에도 공군력 운용 개념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교리발전 관련요원뿐만 아니라 공군요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공군의 새로운 문화정착을 위하여 공군요원 모두가 공군기본교리를 숙독하여 교리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공군교리 발전을 위해 함께 고뇌하고 노력하는 신 공군이 되자.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수행하는 모든 군무(軍務, Military Affairs)가 공군의 목표와 임무에 적합한 것인지(?) 한 번쯤 성찰해 보고, 자신의 위치와 직위에 알맞게 교리의 중요성을 주변에 강조함은 물론 “신 공군기본교리”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여유를 스스로 창출해보자. **공군**

한일어업협정 파기의 분석과 전망

조 홍 제

소령/제15혼성비행단 정훈실



I. 서론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동해의 파고가 또다시 높아지고 있다. 외교교섭 중에도 어업은 특히 어려운 분야인데, 해면에 물리적인 경계선을 긋는 것이 불가능하고 어획규제는 바로 국내 정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 그 본질적 이유가 있다.

더구나 한국과 일본처럼 역사적으로 영토를 둘러싸고 이어져온 감정적인 대립이 여기에 얹히면 더욱 어렵다. 그런데 지난 1월 23일, 일본 정부는 우방국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는 외교적인 관례를 깨고 한일 어업협정 종료를 한국 측에 일방적으로 통고했다.

지난 94년 발효되어 양국이 이미 비준한 UN 해양법조약은 연안 2백해리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정해 어획가능량 설정과 연안국의 단속을 통해 자원을 관리 보존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양국도 12해리 영해¹⁾ 밖이라면 상대국 연안에서의 조업이 자유로운 현 협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수차례 개정협상을 통해 우리는 이미 독도 영유권과 어업문제 분리를 수용, 최종단계에서는 한일 양국이 조업할 수 있는 잠정수역을 독도 주변에 설정하는 데 동의하는 수준까지 양보하기에 이르렀었다.

1) 영해(territorial sea)는 국가의 영토와 내수외측(內水外側)에, 그리고 군도국가(群島國家)의 경우는 군도수역의 외측에 인접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의 바다'로서 국가의 영유권에 속하는 공간이다. 광의의 영해는 국가가 영유하고 있는 수역의 모든 부분을 말한다. 이에는 협의의 영해인 연안해(沿岸海)이외에 항구, 하천, 만, 내해, 영해기선의 육지측수역 등의 '내수(內水)' (internal waters)가 포함된다. 협의의 영해는 해안의 일정한 기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까지의 바다, 즉 연안해를 말한다. 따라서 이에는 항구 하천, 만, 내해, 영해기선의 육지측수역 등은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영해란 협의의 영해를 뜻한다.

막바지에 이른 개정 교섭이 결렬된 원인은 잠정수역의 범위를 둘러싼 작은 대립이었고, 그 결렬의 배경에는 해묵은 상호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일본정부는 자국 내 어업단체와 정당을 설득, 교섭을 마무리할 지도력이 부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일 양국은 어업협정 규정에 따라 앞으로 1년 간은 기존 체제 아래서 조업하지만, 이 기간 내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동해는 각자의 주장에 근거한 상대방 어선 나포 사태가 빈발하는 무질서 상태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한일어업협정의 파기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향후 진행되어갈 협상의 방향을 예측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따라서 한일어업협정 파기의 원인과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와 앞으로의 개략적인 전망을 결론에서 다루기로 한다.

Ⅱ. 한일어업협정²⁾의 위기

1. 한일 어업협정의 내용

어업전관영역(exclusive fishery zone) 또는 영인접수역(adjacent fishery zone)이란 양자·다자조약 또는 연안국의 일방적 선언에 의해 연안국이 어업에 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

는 영해와 접속한 공해의 수역을 말한다. 그 범위는 영해측정기선으로부터 대체로 12해리 또는 200해리 이내이다. 어업전관수역은 국제법상 확립된 것은 아니나 많은 국가에 의해 인정되어 있다.

1982년과 1994년의 '해양법협약'에 의해 영해의 폭이 12해리로 확장됨에 따라 '12해리 어업전수관수역'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고, 200해리의 경제수역 제도의 확립에 따라 '200해리 어업전관수역'도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양자조약에 의해 어업전관수역을 정한 예로 '영국·노르웨이 어업협정'(1960.1.17), '한일어업협정'(1965.6.22) 등을 들 수 있고, 다자조약으로는 런던에서 체결한 '유럽어업협약'(1964)이 있다.

1965년 6월 22일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 동경에서 체결되었고, 여기서 한일 간의 어업에 관해 '한일어업협정'이 함께 논의되어 동년 12월 18일부터 효력을 발생했다.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설정된 전관수역은 국제법상 어업전수관역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12해리 어업전관수역형' 그리고 조약형(條約形)에 해당된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 한일어업협정은 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의 일환으로 체결된 협정으로, 두 나라에서 각각 국내법으로 불법 규정했던 상대국 인근해역에서의 조업을 합법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어선에 대한 단속을 어선의 국적국에서 하고(기국주의), 연안으로부터 12해리를 전관수역으로 한다는 것과 공동관리수역 등을 설정한다는 것 등이다.

- ▲ 양당사국은 전권수역을 설정하였다. 즉 양당사국은 자국연안의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12해리까지의 수역을 자국이 어업에 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으로 설정하는 권리가 있음을 상호인정한다(제1조).
- ▲ 다만 일방당사국이 이 어업수역의 설정에 있어 직선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방당사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동조 단서)
- ▲ 양당사국은 도표에 표시된 공동규제수역을 인정하고 있다(제2조) 공동규제수역 내에서 양당사국은 어업자원의 최대의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중략)... 규정한 잠정적 어업규제조치를 실시한다(제3조)
- ▲ 외측에서의 규제 및 재판관할권은 어선이 속하는 당사국만이 행사한다(제4조)
- ▲ 양당사국은 공동규제수역의 외측에 공동자원조사수역을 설정하고 있다. 그 수역의 범위 및 수역 안에서 행해지는 조사는 어업공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양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제5조)
- ▲ 양당사국은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일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유지한다. (제6조)
- ▲ 양당사국은 본협약상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해야 하며(제9조 제2항·제3항), 중재에 복해야 한다(동 제4항)

한일어업협정이 제정될 1965년 당시에는 한일간의 어업규모의 차이가 현격해 주로 일본어선의 한국영해에서의 불법어로행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었다. 이에 대해 자유당 정부는 이러한 일본어선의 불법어로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1952년 '평화선' (한반도 주변 50~100해리)을 선포하고 평화선을 침범하는 외국어선들의 어로활동을 적극 단속했었다.

그런데 1965년 한일수교협상의 와중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은 양측이 공동규제수역(평균 50해리)을 설정하고 서로 자율적인 조업규제를

하도록 하였다. 더구나 이 협정은 당시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구간의 불법어로 활동에 대해 연안국이 불법어로 행위를 단속하게 하는 연안국주의 대신 선적국이 불법어로를 단속하는 '기국주의'를 채택했다.

이 협정의 발효에 따라 평화선은 유명무실화되고 일본어선의 한국연안에서의 불법어로가 한동안 기승을 부렸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제정 당시 한일어업협정은 일본측에 크게 유리한 것이었다.

2. 한일어업협정 파기

그런데 1970년 이후 한국어선들의 성능이 개선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성능이 개선된 한국어선들의 일본어장(훗카이도, 규스수 근해) 침범이 빈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일 어업협정이 양국 간 어선의 불법어로 단속에 대해 '기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일본은 한국어선의 불법어로 활동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자국이익의 변모에 따라 일본 정부는 198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한일어업협정의 개정을 요구해 왔다. 또한 양국은 '연안국주의'를 바탕으로 한 유엔해양법을 각각 비준함에 따라 일본이 96년 7월, 한국은 96년 9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EEZ를 선포하고 이 체제에 맞추기 위하여도 '기국주의'에 기초한 양자조약인 한일어업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였고, 이에 따라 96년 8월부터 10차례 한·일 어업협정 개정협상을 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해양질서 구축과정에서 양측은 끝내 마찰을 피하지 못하고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최근에 이루어진 교섭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한·일 어업협정 협상 일지〉

- ▲ 96. 3. 2 방콕 정상회담 : EEZ 경제협력 조속협약의 합의
- ▲ 96. 4. 30 외무장관회담 : 어업협정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 합의
- ▲ 96. 7. 24 외무장관회담 : 어업회담 및 EEZ 경제협력 회담 개최 합의
- ▲ 96. 8. 8 2차 어업회의 ▲ 96. 8. 13 1차 EEZ 회담 ▲ 96. 11. 7 3차 어업회의 ▲ 97. 3. 6 4차 어업회의 ▲ 97. 4. 30 5차 어업회의 ▲ 97. 5. 26 2차 EEZ회담 ▲ 97. 6. 13 6차 어업회의 ▲ 97. 6. 8~7. 8 우리 어선 5척 나포
- ▲ 97. 7. 8 외무장관 회담 어선나포 재발방지 합의
- ▲ 97. 8. 13 7차 어업회의 ▲ 97. 9. 10 8차 어업회의 잠정 어업협정 체결방안 합의

- ▲ 97. 10. 8 9차 어업회의 ▲ 97. 10. 29 어선 나포
- ▲ 97. 11. 3 3차 EEZ 회담 ▲ 97. 11. 26 10차 어업회의
- ▲ 97. 11. 30~12. 5 고무라 일본 외무차관 두차례 방한 협의
- ▲ 98. 1. 23 일본정부, 한일어업협정 파기 통고

(I) 한일어업협정 파기의 배경

한일 어업협정 개정교섭이 일본의 파기통보로 파국을 맞게 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독도문제를 비롯한 동해의 신 해양질서 구축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일본의 협상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일본은 12해리 직선기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해법을 96년 초 통과시키고 9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동해상의 일본영해를 늘리게 되었으나, 한일어업협정의 1조 1항 단서규정에 의거 협정변경내용을 한국과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했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과 독도의 영유권 문제까지 증첩되어 협상의 교착상태에 빠지자, 일본은 한국측의 '독도문제 유보'라는 양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한일어업협정 파기 통고라는 극약 처방을 시도한 것이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한국어선 나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한일어업협정의 개정이 지지부진하자 일본은 자신들의 새 영해를 기정사실화하고 향후 재개될 한일 어업협정 개정협상에서 우리 측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어선 나포와 어업협정 파기 등의 강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한일 어업협정 파기의 배경에는 일본 측 국내정치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협상이 막바지에 달했던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일이다. 양국은 실무자회담을 통해 개정협상의 몇가지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절충을 벌여 일정부분 거리를 좁혀나가고 있었다.

최대의 현안이었던 독도 주변수역에 관해서는 대략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독도 주변수역을 한·일 양국의 한쪽 영역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수 없는 현실을 절충, 한국이 사실상 점유해온 상태를 비공식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양측의 배타적 수역폭과 협정대상 수역의 동쪽한계선이었다.

한국은 24해리, 동경은 137도를 제시했고 일본은 35해리, 동경은 135도를 제시했다가 다시 동쪽한계선을 135도와 137도 사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좁혀졌다. 그러나 더 이상의 접근은 12월 5일까지 실무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일본은 아무 소식이 없다가 3주일이 지난 뒤 돌연 당초 일본안인 「수역폭 35해리, 동경 135도」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협정을 파기하겠다고 외교적 관례에 어긋난 최후 통첩을 해왔다.

이같은 강경입장 선회에는 일본 내 정치적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의 내각은 현재 강경 보수파의 지지 위에 위태롭게 연명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과거 문부상 재임시 한국 관련 망언을 일삼은 시마무라 농림수산상으로 대표되는 각료의 다수도 강경 보수파인 나카소네파벌 소속이다. 즉 협상이 한일 간 양보로 순조롭게 개정될 경우,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외상을 비롯한 하시모토 내각은 함께 사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일본은 협상 막바지에 거부로 돌아섰던 것이다.

결국 협정 파기의 표면적 이유로는 새로운 어업수역 확정협상에서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조업할 수 있는 잠정수역의 일본쪽 한계선과 양국의 전속 어업 관할수역의 폭(幅)에 서로가 타협하지 못한 점, 즉 우리는 양국이 공동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을 보다 넓게 주장한 반면 일본은 자신들이 배타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수역을 보다 크게 가질 것을 요구했던 점을 지적할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일본 정부의 '치킨게임' 적 협상전략과 일본 정치적 내부변수가 숨어 있는 것이다.



독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는 F-16

(2) 한일어업협정 파기의 영향

한일어업협정이 파기되고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이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일 양국은 제3차 해양법 체제 하에서 해양법 조약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배타적 경제수역의 외적 한계선을 결정하는 조문 74조, 한일 양국의 경제수역경계를 왕래하는 어족을 규제하는 63조1항, 자국선의 공해침범시 어족자원 보존 및 개발에 대한 조약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한 118조, 해양자원의 관리 및 지속적 개발에 대한 관리등을 규정한 119조등이며 또 제3차 해양법 조약 15장에 규정되어 있는 분쟁처리 절차 등도 적용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제3차 해양법은 국가 간에 경제수역의 외적 한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접국가들끼리 어족자원의 보존 및 개발에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국의 경제수역 내에서도 남획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 한일 어업협정이 파기되더라도 한일 양국은 인접국가로서 양측 경제수역 간의 경계선 왕래 어족에 대한 어족자원보존 및 개발에 대한 책을 지게 되어있다. 또 3차 해양법 조약은 지역국가 간에 어업관계 및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당사국들이 지역적 기구를 만들어 어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일본이 우리에게 통고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할 때는 통고날자로부터 1년 동안 계속해서 협상시

간을 현 협정이 유효한 가운데 가질 수 있는 반면, 합의하여 파기하여 협정이 즉각 파기될 때는 일방적 파기 때와 달리 현 협정이 즉각 무효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합의파기라는 정책은 우리에게 바람직하게 작용하지 않으므로, 현 한일어업협정 10조에는 협정의 종료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즉 동 규정에는 현 협정의 당사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 또는 파기할 때는 현 협정은 파기통고를 한 날부터 1년 동안 유효하게 남아 있다가 종료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정 기간의 냉각기를 거친 후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년 간의 기간 내에 한일어업협정 신규 합의가 무산되면 한일 양국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서로 일방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현재 우리 어선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는 수역 가운데 적어도 절반을 잃게 된다.

상실될 어장은 일본 서부 해안의 오징어 채낚기 어장의 절반과 홋카이도 연안 명태 트롤어장 2개와 콩치붕수망 어장 1개소 등이다.

이들 어장에서 우리 어선들이 잡는 물고기는

연간 명태 6만5천톤, 콩치3만톤, 오징어 1만3천톤 등으로 금액으로는 6백억~7백억원 어치에 이르고 있다.³⁾

(3) 우리정부의 대응

일본의 한일어업협정 일방파기에 맞서 이미 한국정부는 대응카드로 외무부 대변인 성명(98. 1. 23)을 통해 향후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일본 정부에 있음을 밝히면서 한일조업자율규제⁴⁾ 합의 파기를 중간 통보한 바 있다.

자율규제합의를 파기하여 자율규제조치가 풀리면 우리 어선이 대거 일본영해에 바짝 접근해 조업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연간 1만2천t의 추가어획이 가능할 것이 예상된다.

돈으로 따지면 1백20억원으로 큰 액수는 아니지만 어업협정 파기를 가장 강력히 요구해온 일본 홋카이도(북해도)어민이 가장 큰 곤경에 처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자율규제합의가 파기되면 일본 어선들도 우리 영해 부근 해역에서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일본 주변 수역은 우리 영해 주변보다 자원 관리 상태가 좋아 실제로 이같은 일이 벌어지면 일본 수산업계가 입는 타격이 매우 클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3) 서일본해의 갈치, 조기 등을 잡고 있는 대형 기선저인망업계는 연간 3천6백억원어치에 이르는 생산액 가운데 1천7백억원 이상의 조업 손실을 예상하고 있으며 다른 어업계의 손실 예상액을 합치면 국내 총어획량의 10% 안팎이 줄어들어 금액으로는 3천억원 이상의 조업손실을 보게될 것으로 수산업계는 최근 밝히고 있다.

4) 조업자율규제합의는 80년에 한-일간에 맺어진 일종의 '신사협정'으로 상대국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설정한 수역에 들어가는 자국 어선들의 조업량 등을 자율적으로 제한하자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일본에 대해 한국이 자율적으로 조업을 규제해 왔던 수역은 홋카이도와 규슈 근해의 저인망어선조업 뿐만 아니라 오징어채낚기, 장어통발어선의 조업 등을 대상으로 일본 열도 전반에 걸쳐 있다.

특히 자율규제합의는 협약 당사국 가운데 하나가 파기 통보를 하는 날부터 효력을 잃게돼 통보 때부터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어업협정 파기보다 한층 위력적인 것이다. 실상 이 합의가 적용되는 수역은 양국이 EEZ를 선포하기 전에는 공해였기 때문에 어느나라 어선이든 마음대로 조업할 수 있었던 곳이다.

이밖에 최근 일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불법 나포 행위를 일삼았던 서일본연안 장어잡이 통발어선에 대한 조업기간 제한(3월16일~5월15일)이 없어지는 것도 일본으로서는 바라지 않는 사태 가운데 하나이다.

Ⅲ. 결론 : 전망과 대책

한일 양국은 앞으로 1년 간 새로운 어업협정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갈 것이다. 협정의 대체적 방향은 이미 두 나라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시켜 왔기 때문에 실제협상은 그리 오래 아지 않을 수도 있다. 동해가 '혼란의 바다'로 방치되지 않기 위해 일본은 국내 정치적 압력을 배제, 일방적이고도 무리한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차가운 분위기와 한·일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번 상황을 매듭하기까지 상당 기간 관계의 냉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은 어업분규로 양국 사이가 긴장돼 있지만 불편한 관계에 따른 피해는 어업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일본 정부의 조치는 일본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로 일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일본 전체의 국가이익에 보탬이 되지는 않을 것임은 일본 정부에 인식시키고, 지속적으로 협정파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협정을 파기하라는 일본 어업 관계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협정파기에 뒤따라 우리 정부가 일본 연안 공해상에서 우리 어선에 대한 자율 어업규제조치를 해제한 데서 드러나듯 오히려 당장 일본 어민들이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같은 어업분쟁에 따른 손익계산이 아니다. 어업분쟁을 계기로 관계악화 현상이 다른 부문으로까지 번져갈 가능성에 더욱 관심을 돌려야 한다.

한일관계의 특수성은 사소한 문제라도 자칫 감정적인 차원으로까지 발전할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2월초 일본 농수산성은 한국 어선들이 홋카이도(北海道)부근 어로 자율규제수역에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한국에 대한 어획 할당량 배정을 백지화하는 방안을 검토기로 하는 등 분쟁의 악순환 조짐은 더욱 불안감을 더해준다.

해양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던 한국의 국민에게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한일어업협정 일방파기는 해양의 중요성과 이를 지켜야 하는 한국 방위력의 현실을 검토해 보는 큰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냉전 종식 이후에 국경분쟁, 영토 분쟁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국제정세의 추이로 보아 우리의 영공과 영해를 수호하기 위한 독자의 방위력을 구축해야 되는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또한 독도와 배타적 경제수역의 문제는 단지 일본과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러시아 등 동북아 지역의 현안 문제인 만큼 이들과의 균형을 맞추어서 종합적인 대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 역시 유엔의 상임이사국으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는 입장인 만큼, 한일 관계가 더 이상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북한·중국·일본·러시아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적 기구를 설립하여, 이 문제를 풀어나가

는 것도 생각해볼만 하다.

정치적 기구의 창설이 어렵다면, 우선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과학연구기구의 창설을 모색할 수도 있다.⁵⁾

아울러 동북아의 해양질서가 각 국가의 안보 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국제적 협력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해양외교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함과 더불어 영공 및 공중에서 분쟁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각종 제도적 보완과 연구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5) 예를 들어 남태평양 제국(諸國)은 1972년 남태평양 응용지리과학위원회(South Pacific Applied Geoscience Commission : SOPAC)를 설립하여 공동 연구·조사를 통해 환경협약,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 등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IMF 상황 인식과 우리의 각오

신 동 현

중위/공군본부 정훈공보실



1. IMF 상황에 대한 인식

환율 급등과 주가 급락으로 시작된 현재위기는 제 15대 김대중 대통령 취임 전후로 점차 안정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이 정부 수립 50년만에 처음으로 여야간 정권교체 실현의 감격을 앞세우기보다는 국가 부도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국민에게 “땀과 눈물”의 고통 분담을 호소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

진정한 위기는 IMF 금융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위기의 본질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방법이 결여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곧 반”이라 했다. 시작이 곧 반이 되려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책이 세워져 있어야 하고, 대책을 행동으로 옮길 의지가 충만해 있으며, 주변 여건이 호의적으로 조성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우리는 지난 날의 역사 속에서, 발전과 변영이

어려운 시간 속에 탄생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6·25 직후의 잿더미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음을 기억한다. 현재 경제위기 또한 철저한 반성과 적극적 타개 방법의 모색을 통해 온 국민의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새로운 국민적 에너지를 창출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위대한 역사적 과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IMF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하게만 조성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부터 할 필요가 있다. IMF에서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조건은 크게 다음 5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1. 정책의 투명성 보장
2. 세율 인상과 긴축 재정에 의한 국가 재정 흑자 전환
3. 부실 금융 기관 정리 등을 포함한 금융 개혁
4. 상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
5. 무역 자유화, 시장 개방, 기업정보 공개

위 5가지 항목들은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고 당연한 조치들이었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여건상 미루어왔고, 또 제지되어 있었다. 비록 외부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번 기회에 김대중 대통령의 새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 관치주의 경제 탈피, 기업과 금융의 구조 조정 ▲ 경제 주체의 자율과 자유보장이라는 국정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2. 과소비(過消費)와 과소비(寡消費)

과소비(過消費)가 경제 위기의 주범으로 비난받았다. 그래서 외식비도 줄이고, 문화비도 줄이고, 외제 물품을 폐기하거나 불매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세금이 늘고 소득이 줄었으니 당연한 선택이다. 그러나 무조건 아끼고 절약하고 바퀴 쓰고 다시 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은 유치하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과소비(寡消費)는 과소비(過消費)만큼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괴물일 뿐이다. 결국 경기 침체로 기업은 도산하고, 매출이 없어 유통은 마비되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는 부메랑 효과가 나타날 뿐이다. 적절한 소비는 국가 경제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이 '적절한 소비' 인가가 또 문제가 된다.

오늘날에는 생산자보다는 소비자 위주의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소비행위가 경제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고, 소비에

의한 건전한 문화형성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이다. 우리의 지난날 소비가 먹고 마시고 향락을 즐기는 쪽에 치우쳤다면, 이제 자아발전을 기약하는 투자 쪽으로 소비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한달에 1.5권의 독서량을 가진 세계에서 교육 수준이 제일 높은 나라 국민이라는 아이러니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아의 발전을 위한 투자에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나'만을 위한 소비행위에서 '우리'를 위한 소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웃의 따뜻한 손길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양로원과 고아원은 그 어느 곳보다 IMF 한파를 실감하고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것이다.

'금모으기' 운동과 더불어 국산품 애용이 한창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산품에 대한 집착은 외국 언론에 극단적 국수주의로 비쳐 투자 자체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제품을 팔아 이윤을 남기는 것이 기업의 목적인데, 한국에 투자해서 공장을 세워봐야 팔리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투자하겠는가?

다행히도 김대중 대통령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개혁'이 필수적임을 지적하고, '개혁'을 '개방'과 동일시하여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외국자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취임식 만찬식장에서 김대통령은 "우리는 결코 일방적으로 세계의 지원에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고, WTO 체제가 요구하는 「개방과 협력의 자세」를 견지할 것을 공언했다. 이제 우리는 '열린 경제'로 인식을 전환해야 하고, 우리 시장을 열고 동시에 열린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3. 우리의 각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되면서 북한에서는 유화 제스처를 보였다. 2월 20일 뉴욕 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 및 국내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남북 간의 화해를 촉구(연합통신 2월 21일자)했다. 또 '서울 불바다' 발언의 주인공인 박영수는 베이징 '남북해외학자 통일회의'에 참석해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명(2월 23일자 한겨레신문)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남 침투요원의 훈련을 강화하고, 러시아 등에서 테러장비를 구입하는 등 대남혁명전략을 강화(2월 12일자 연합통신)하고 있다. 특히 IMF 금융지원으로 국내 정국이 불안할 때, 위조 지폐의 밀반입을 기도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결국 우리의 정국 불안이나 시위·파업이 발생할 경우 북한이 우리 나라 상황을 오판하고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

우리는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함은 물론 국가와 민족에 변함없는 충성을 다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우리 공군은 경제난국을 초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저축 증대와 에너지 절약, 과소비 억제, 아껴쓰고 버리지 않기 등으로 각종 경비 절감 등에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경제와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해 주는 두 개의 큰 기둥이다. 경제가 취약하면 국방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군인에게는 군 기강의 확립과 신중한 언행이 요청된다. 우리는 자

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 동시에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 로마의 번영과 멸망이 시민의 책임에 대한 자각 여부에 달렸음을 깨달아, 공인으로서 군인의 모범은 국민의 믿음과 성원에 보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공군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바탕 위에 건강한 사회 건설을 위한 민족적 가치관의 확립에 주력하여 조국에 헌신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찬 준비에 철저해야 할 것이다.

군대는 위기를 대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군대는 백년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단 하루라도 할지라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兵可百年不用 不可一日無備)는 다산 정약용의 말대로 국가경제가 어려울수록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현대전의 결정력으로 자리하는 우리 공군은 고도의 대북 경각심을 바탕으로 전환기 안보상황에 부응하는 능동적이고 신축성 있는 철벽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군에 있어 경쟁력은 전투력이다. 무기체계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결국은 그것은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다. 따라서 불굴의 필승 정신을 갖춘 군인이 더욱 요청된다.

우리 공군은 정부와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위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보의 울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기본 임무인 철벽 영공방위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21세기 희망찬 조국건설의 국민적 지주가 되는 것이다. 오늘, 이 순간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강한 정신무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까닭이 바로 그것이다. **공군**

IMF 체제 하에서의 나의 제언

이 용 기

6급/항공의학적성훈련원



IMF로부터 빚(긴급구제금융)을 얻고 IMF 체제로 들어선 지 4개월이 되었다. 알고는 있었지만 생소하기 만한 IMF 체제에 들어섰을 때에는 단 한치 앞도 제대로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미로에 선듯한 느낌이었다. 정말 어리둥절 했다. 왜 이렇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단 말인가.

다행히도 우리는 이제 이 원인이 기업 생존의 수익성을 무시하고 차입에 의한 기업확장에 몰두했던 경영형태, 관치금융에서 비롯된 상업성을 무시한 금융기관의 대출관행,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는 복지증대를 요구한 노동조합의 집단이기주의, 낭비와 과소비를 즐겨온 무분별한 소비형태, 당리당락에 치우쳐 경제개혁을 기피하고 실기해온 정치행태 등 누구라고도 할 것 없는 우리 모두의 부조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거에는 한나라 국력이 군사력, 정치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오늘날의 국력은 산업경쟁력의 우의를 바탕으로 한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이러한 부조리로 인해 우리의 경제는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가 되었으며 이것이 세계 경제 경쟁력에서 뒤지게 된 것이다. 그 결과 1,530억불, 4인가족 1가구당 3,157만원의 외국 빚을 지게 되고 이것은 우리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쉬지않고 이자가 늘어나 매년 150억불 이상의 흑자로 달러를 벌어들이지 못하면 모라토리엄(국가부도)까지 맞게 된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부도가 나면 모든 산업은 마비되고 직장 출퇴근조차도 하지 못할 처지에 빠지게 되니 실로 6.25동란 이후 국가존망의 최대 위기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때마다 그랬듯이 외화, 금불이모으기, 국산품애용, 근검절약, 임금동결, 심지어는 헌혈로 외화유출도 막아

보려는 그야말로 피눈물나는 애국심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이 IMF 체제를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인가? 물론 이러한 원인들을 꼭 파악해야 하고 이에 적절한 대책들을 마련하여 모두가 앞장서서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보다 더 거시적인 원인 파악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거시적인 원인 중 하나는 그릇된 의식과 가치관(부조리)을 관행으로 고착시켰고 다른 하나는 개혁과 개방, 지식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세계사의 흐름을 타지 못한 채 오히려 퇴보했다는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5년 전 문민정부가 들어섰을 때 주창했던 슬로건이 “세계화” 아니었던가? 당시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념전쟁이 종식되었고 세계는 치열한 국경 없는 경제 전쟁을 예고했었다. 세계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경제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 세계 일류국가가 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식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일류가 될 수 있게 구조를 바꿔야 했고, 현재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부실과 부조리로는 세계화, 일류국가가 될 수 없기에 또 계속되어 온 타성과 관행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고비용 저효율의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계경쟁 전쟁에서 패배해 영원한 후진국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기에 개혁을 하자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정경유착, 관치금융, 도덕성 타락, 퇴폐문화난무 등 어두운 소리만 들어와야 했다.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노사관계개혁

법! 금융개혁법! 무엇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는가? 이렇게 구태만을 답습한 채 변화와 개혁을 거부한 대가로 IMF 경제실태통치라는 굴욕적인 체제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제 보다 더 정의로와지고 투명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거시적으로 취해야 할 자세를 제언하고자 한다.

“자본주의의 미래”를 쓴 레스터 서로 박사의 말을 빌리면 한국을 포함한 세계각국은 “자연자원 경제체제”에서 “브레인파워 경제체제”로 급격히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자원의 경제체제란 산업혁명 이후 있는 자원을 활용한 제조기술 중심의 활용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을 말하고, 브레인파워 경제체제란 앞으로는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 기술, 제도를 창출해 필요한 것을 얻는다는 것이다. 또 피터 드러커는 새로운 사회는 “지식사회”라고 규정하며 지식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앨빈 토플러는 경제력과 군사력의 부수적 요소였던 지식은 앞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의 본질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며 “모든 자원이 지식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를 유추해 보면 21세기에 접어들게 되면 근본적인 경제적 문화적 구조변혁을 겪게 될 것이며, 지식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이를 위해서는 계속되는 개혁이 있어야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메시지는 우선 공군의 일원인 나, 이를 실천하는 주체인 나부터 돌아보아야 한다고 본다. 임무에 대한 진정한 관심, 능력의 향상, 지식

● 나의 주장 ●

의 함양이라는 일찍이 세계화에 발맞춰 우리 공군이 제창했던 자기혁신 운용의 구호가 “진부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스스로 계급의식, 자기비하, 자기과시로 불합리한 것을 파생시키지는 않았는가? 구태의연해 왔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지금 IMF체제에 들어서면서 안보논리는 경제논리에 밀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이것은 우리국가가 고비용 저효율을 유지하여 IMF 신탁통치를 받게 되었듯이 우리 군도 스스로 고비용 저효율 요소를 개선하여 체제와 운영을 고도화하고 효율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새로운 국방 산업(지식창출, 우리 손으로 군수장비를 만들어 스스로 조달하고 신장비, 신기

술을 개발해 수출까지 하는 등)을 창출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들은 기울어져 가는 국운을 일으켜야 하는 동시에 절대명제, 국방을 수호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 이 막중하고도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어떤 조직보다도 더한 도덕적, 사회적 계율이 요구되고 있다. 조직의 구성요인인 개인 각자는 보다 더 투명하고 정의로워야하며 보다 더 지식을 창출하려는 자세를 가져야한다.

그리고 조직은 그것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구조를 갖추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본다. 이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패러다임(paradigm)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공론**



삶에 대한 책임

장 원 석

상병/공군사관학교 정훈공보실



사람이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른'이라고 부르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만20세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성인으로 인정 되어,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행동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일상 생활에서 단순히 20세 되는 날 자정 1초 전에는 어린 아이이고, 정각부터 어른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듯이, 아무리 나이가 20세가 넘었더라도 어른 답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반대로 나이는 20세가 안되었더라도 어른 같은 사람이 있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선, '어른'이라는 단어의 기원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어른'이라는 단어는 '어르다'라는 단어에서 생긴 말이라고 한다.

'어르다'는 옛말로써 '혼인(婚姻)하다'라는 뜻이다. 즉, '어른'이라는 단어는 장가들거나 시집간 사람이라는 뜻에서 지금의 성년의 뜻이 되

었다고 한다. 즉, 예전에는 혼인을 한 사람만을 '어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왜 우리 조상들은 혼인을 성년, 즉 '어른'의 전제 조건으로 생각했을까?

아마 생각해보건데, '책임'이 '어른'의 조건이라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 사람이 혼인을 하게 되면 일단 그전과는 다른 '책임'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결혼 전에도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옛분들께서는 혼인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생각하셨을 것이다. 혼인을 하기 전에야 자기 몸 하나만의 책임을 지면 된다. 그러나 한 사람이 혼인을 하게 되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상대방을 믿고, 상대방을 기만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으면서 혼인 생활을 충실히 해나갈 것에 대한 책임감. 이 '책임감'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이루는 가정의 기본이요, 곧 가정의 기본이 사회의 근본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다.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책임감은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마 다른 사람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믿음을 주지 못한다. 결국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깨뜨리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사회인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을 때, 난 정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아니 어른이 되고 싶었다기 보다는 빨리 성년이 되고 싶었다. 왜냐하면 난 이미 클 만큼 큰 어른이었지만, 법적으로 아직 성년이 되지 못했을 뿐이었기 때문이었다. 성년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단순했다. 우선 술 마시러 갈 때 맘 놓고 가고 싶었기 때문이었고, 그 다음으로 선거 때 투표를 한 번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성년이 되었을 때,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어제와 성년이 된 오늘의 나는 큰 차이가 없었다. 매일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도 그대로였다. 생활 자체가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정말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내가 그토록 바랬던가? 아무래도 뭔가에 속은 기분이었다. 억울했다. 역시 이미 난 어른이었고, 성년이라는 잣대는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일방적인 잣대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정말 그땐 난 어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해 한해 지나 가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 정말 어른이 되기로 어려운 일이구나' 라고. 점점 내가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배워갔다.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다. 이제는 나의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했고, 고등학교 때만 해도 내가 잘못된 일이라도 부모님께 혼나는 일 외에는 대외적으로는 부모님이 책임을 지셨다. 또한 어떤 중대한 결정이 있을 때에도 부모님의 역할은 컸고, 또한 책임 부분도 매우 컸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어떠한 결정도 이제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 우린 매일 매일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간다. 매 순간 순간 무엇을 할 것인지 결심하는 것으로 하루는 채워지고 있다. 그러한 모든 결정을 이제 내 스스로 해야 했고, 그것에 따른 책임이 이제 내게로 돌아 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수습해야 한다. 결국 내가 어른으로서 스스로 알아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내가 곧 내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삶에 대한 책임’

난 이것이 어른이 되는 첫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일은, 적어도 나에게 만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가끔씩 난 내 자신에게 물어 보곤 한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얼마나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 삶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러면 난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불안해 지기도 한

다. 노력한다고 생각하지만, 웬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예전에 많이 생각했었던 질문은 그럼 과연 삶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였다. 그 질문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대답은 간단했다. 내 삶에 충실하자. 지금 주어진 삶에 충실하자. 그것이 내 답이었다. 항상 삶에 감사하고, 그 삶에 충실하자고 매번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다 아는 사실이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지만, 이것만큼 나에게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다.

늘상 그렇듯이 매일 매일을 돌아 보고, 한 달을 돌아 보고, 한 해를 돌아 보는 때에 서면, 후회만 남는다. 그 때 왜 그렇지 못했는지, 좀더 충실하게 내 삶을 살아볼 수 있었는데, 너무 무책임하게 내 삶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가. 젊음이란 이유로 삶을 방탕하게 보낸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채 하루 하루를 메꿔온 것 같았다. 내가 살고 있는 하루 하루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인데.

그러나 그렇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다시 한번 맘을 고쳐 잡고 내 삶에 충실하자고 다짐하곤 한다. 후회와 또 다른 다짐이 반복되지만, 삶에, 매일 매일의 삶에 충실하자는 다짐은 변함이 없다.

벌써 군에 입대한지도 1년이 지나갔다. 이미 계급도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 상병이면, 병과 4계급 중에서 위에 속하는 위치로 상급자에 속한

계급이다. 올해가 되면서 늘상 하던 대로 작년 한 해를 돌아 보았다.

군에 입대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었다. 과연 내가 지금 군대를 꼭 가야 할까? 훈련은 얼마나 어려울까? 군대에서 시간은 얼마나 빨리 갈까? 등등……. 하지만 그런 걱정들은 아무런 소용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훌훌 털어버리고, 지금 주어진 생활, 매일 매일 내가 맞이하는 일상에서 충실하자고 내게 다짐했다. 처음에는 실수 투성이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었다. 하지만 매사에 충실하고자 노력은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지난해를 돌아 보았을 때, 나의 그런 노력들이 정말로 나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삶에 충실하고자 하는 내 결심에 얼마나 부합했는가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난 오늘도 또 다시 다짐하고 내 삶에 충실하고자 노력해본다. 하루 하루를 그냥 시간 때우기식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내 일, 내 일에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자고. 그리고 내가 전역했을 때, 아니 늙어서 내 지금 젊은 날을 반추해볼 나이가 되어서 어느 누가 '당신은 당신 삶에 충실했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당당하게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삶이 되자고.

아직 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른이 될려면 아직 멀은 것 같고, 할 일이, 해야만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언젠가 당당한 내가 될 수 있게 삶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삶에 충실하자고 다시 한번 다짐해본다. **등문**

축소된 세계를 만드는 즐거움

최 창 환

병장/제8219부대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아마 한번 쬼은 이런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학교 앞 문방구에서 500원이나 300원 정도하는 조립식 장난감들을 사던 어릴 때의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메칸더V니 그레이트 마징가 등을 만들어 친구의 장난감 로봇 군단과 전쟁을 벌일 때의 재미는 각별한 것이었다. 비록 요즘 어린이들 한테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 되어 버렸지만 말이다.

모형제작은 어떻게 보면 어릴 때의 재미있던 기억과 연관이 되어 있다. 박스를 열고, 부품을 꺼내서 끼워 맞추는 재미, 하지만 현실세계를 축소시켜 재현한다는 점에서 모형제작은 또다른 느낌을 준다. 모형은 흔히 프라모델이라고도 불린다. ‘프라모델’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은데, 쉽게 생각해서 성인용 조립식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면 개념은 잡힐 것이다. 하지만 단적으로 말하면 모형(프라모델)은 장난감이 아니다. 장난감은 말 그대로 ‘가지고 놀기’ 위한 것 이지만

프라모델은 실물을 정해진 스케일대로 가장 정확하게 축소시켜 재현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다.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는 점에서 프라모델은 장난감과 차별된다. 그런데, 사실 프라모델이라는 단어는 그다지 옳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영어를 이상하게 비틀기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조어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축소모형이란 뜻이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프라모델(축소모형)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이 단어가 광범위하게 퍼져서 지금은 외래어처럼 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말이다. (축소모형 등의 단어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참고로 이 프라모델을 만드는 사람들을 모델러(modeler)라고 부른다.

원래 축소모형의 고장은 유럽이다. 이곳 사람들은 프라모델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주석이나 납으로 기마병 인형 등을 만들어 왔다. 지금도 TV의 풍물기행 같은 것을 보면 유럽 어느 나

라 작은 마을의 머리가 하얗게 새 할아버지가 자신이 손수 만든 거라며 수십개의 비행기 모형을 늘어놓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가끔 보이는데, 이것들은 모두 손수나무를 깎거나 붙여서 만든 자작품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재료와 도면을 구해서 자작품을 만드는 '경지'에까지 오르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라모델'을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프라모델의 경우는 제작회사에서 금형 기술 상의 한계로 비행기 같은 모형을 완성된 채 통째로 뽑아내지 못하고 잘게 부품을 나누어 배치한 다음 모델러에게 설명서를 참고로 조립하도록 하고 있다. 바로 이 '조립한다'는 점 때문에 우리의 인식이 프라모델이란 조립식 장난감이라고 박혀있는 것인데, 진정한 모델러라면 이러한 통념에 맞서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 프라모델은 대체 어디서 구해서 만들 수 있는가?

일단 모형제작을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우선 모형점을 찾아야 한다.

프라모델을 비롯하여 무선조정 자동차, 비행기, 최근에 인기있는 서바이벌 게임용 총 등을 취급하는 곳이 바로 모형점인데, 시내 변화가나 고등학교, 대학교 주변 혹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 입구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직은 그리 쉽게 접할 수 있는 가게는 아니므로 약간의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모형점에 들어서면 진열대 위에 각종 전차나 비행기 그림이 그려진 박스가 쌓여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 박스를 모델러들은 '키트'라고 한다. 우선 자신의 마음에 드는 키트를 골랐다면 제일 먼저 스케일을 확인해야 한다. 스케일이란 축소된 비율을 뜻하는데 비행기 모형은 1/32, 1/48, 1/72의 세 가지 스케

일이 있다. 1/32같은 경우 크기도 크고 더 정밀한 부품이 많이 들어있지만 값이 비싸며, 1/72는 너무 작고 때로는 조잡하기까지 하므로 피하는 게 좋다. 초보자에게는 1/48을 권한다. 반면에 전차, 장갑차, 보병 등의 지상 무기류는 1/35 한가지로 통일되어 있으니 고민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가끔씩 이상한 스케일 (1/30, 1/25등)을 가진 제품들이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제품들은 피한다.

큰 비행기 한 대를 기분 좋게 가방에 넣어 집으로 가져온 다음, 키트의 뚜껑을 열면 부품이 들어있는 큰 플라스틱 테두리(아무 쓸모없는)를 '러너'라고 한다. 러너에서 부품을 떼어낼 때는 부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디퍼로 부품과 러너 사이의 연결부위를 잘라주면 좋다. 러너에서 분리된 부품은 약간의 흠집이나 작은 러너 조각 등이 붙어서 울퉁불퉁한데, 나중에 접착할 때 매우 좋지 않으므로 반드시 고운 사포로 갈아내야 한다. 그런 다음 조립인데 장난감들과는 달리 키트 안에 접착제는 들어있지 않으므로 모형점에서 키트를 살 때 접착제도 같이 사야 한다. 접착제는 사각형 병 모양으로 뚜껑에 붓이 붙어 있어 편리한데, 이 붓으로 접착부위에 필요 최소량만을 발라 주어야 한다.(안 그러면 지저분해진다.)

다음은 색칠인데, 색칠할 때 쓰는 붓은 모형점에서 파는 일제가 있지만 비싸다.

화방(미술용품 파는곳)에 가면 보병인형의 얼굴에도 칠할 수 있는 작은 세필부터 전차 겉면에 쓰는 큰 붓까지 다양한 종류를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며, 도료는 모형점에서 '에나멜'이라 하여 플라스틱 겉면에 칠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한 색깔대로 구비되어 있다. 에나멜은 전용의 희석제

(신나)가 필요하니 같이 구입하도록 한다. 가능한 붓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서 칠해야 하는데, 완벽할 수 없는 일이다. 미술도구인 에어브러쉬를 사용하면 붓자국 문제도 해결되고 은은한 위장색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좋지만 워낙에 고가의 장비인지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붓칠을 할 때는 파레트에 에나멜과 신나를 적당히 섞어(약 2:1)하되 한 번에 끝내려 하지 말고 연하게 시작하여 점차 농도를 짙게 하여 덧칠을 하는 것이 좋으며 사용 후에 붓을 반드시 신나로 씻어 주어야 한다. 안 그러면 페인트가 엉겨 붙어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키트안의 설명서 뒷쪽에는 각 부위에 따라 사용해야 할 색상이 영어로 표기되어 있으니 그대로 따라야 한다. 그래이만 '실물' 모형이 된다. 파란색이 좋다고 온통 파란색으로 칠해 버린다면 장난감 수준으로 전락하게 된다.

색칠이 끝난 뒤 하루 쯤 지나면 도료의 피막이 완전히 굳게 되는데, 이 때 비로소 전사지(마크)

를 붙인다. 전사지는 키트 속에 들어있으니, 미지근한 물에 충분히 담가두어 불린 다음 찢어지지 않게 핀셋으로 떼어내야 한다.

모형만들기를 대략 알아보았지만, 이젠 말 그대로 '대략' 일 뿐 이대로라면 제대로 완성했다고 할 수 없다. 모형생활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전문잡지의 구독을 권하고 싶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모형잡기는 '취미가' 나 '데렐러 2000' 등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람부터 매니아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모형만들기의 궁극적인 목적이 '프라모델'이 아니라 '자작품'을 만드는 것이라 할때, 풍물기행의 그 유럽인 할아버지처럼 만들 수 있는 손재주의 기초와 이론적 지식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또한 모형잡지는 프라모델이라 하더라도 더욱 더 실물에 근접하게 만들 수 있는 '대가'들의 작품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대상 모형의 실



물적 가치(즉, 그 비행기가 어느 전쟁에 어떤 편으로 등장하여 어떻게 활약 하였으며 성능은 어떤가 등)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는데, 단순히 '만드는' 것보다 자신이 지금 만들고 있는 모형에 대한 사전 지식이 풍부하다면 몇 배나 더 만족스러운 모형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며, 군사 지식이나 역사상식(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므로 전쟁사를 알게 되면 역사가 보인다.)도 상당해질 것이다.

그러나, 모형생활의 진짜 묘미는 디오라마를 제작해 보는 데에 있다.

디오라마란 하나 하나의 완성된 단품들을 커다란 베이스 위에 배치하여 정경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서, 모델러의 취향과 실력에 따라 실전과 똑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사실 프라모델은 이미 정해진 모양대로 다시 짜 맞추는 과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아무리 노력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여 '진짜같은' 느낌의 모형이 완성되었다 해도 그것은 제작이지 '창조'는 될 수 없다.

하지만 디오라마는 모델러 자신의 자유로운 상상력에 의해 완성되는 것으로 마치 화가가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듯 배치해 가다가 보면 하나의 작품을 창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디오라마를 만드는 방법 역시 모

형잡지에 있으므로 타 잡지들과는 달리 실제의 취미생활에 많은 관계를 맺고 있다.

모형생활에 있어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외제, 특히 일제 제품이 많다는 것이다. 대개 비행기 키트는 일본의 하세가와나 후지미 등의 메이커가 전차 키트는 역시 일본의 타미야가 각각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

미국이나 유럽대륙에서도 이들 일본회사들은 업계 1위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데, 일본의 광범위한 저변인구와 '그까짓 장난감' 하며 무시하지 않는 그들의 풍조가 이들 메이커들에게 계속하여 질 좋은 상품들을 개발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아카데미' 같은 메이커가 상품의 질이나 양에 있어 이들 일본회사들을 급속하게 추격하고 있고, 해외 수출물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모형제작은 돈과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취미이다.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노력만 기울인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긴 시간동안 방에 처박혀 작은 부품들을 정성을 다해 다듬고 조립하다 보면 어느새 차분해지고 인내심이 높아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완성된 작품을 마주 대하는 성취감 또한 만점이다. 꼭 한번 쫓 권하고 싶은 취미생활이다. **◆◆◆**

군 유일의 공업계 국립고등학교 공군기술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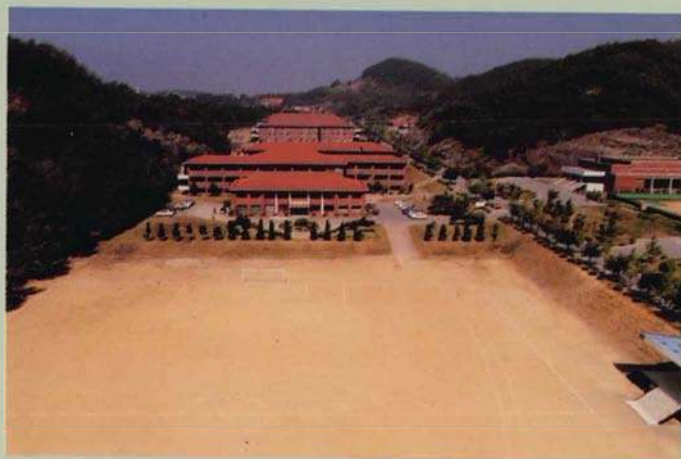
21세기 항공우주시대를 선도하는 항공기술 전문 인력의 산실



올해로 29주년을 맞이하는 공군기술고등학교는 항공산업과 공군의 항공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군 유일의 공업계 국립고등학교이다. '참되고, 슬기롭고, 씩씩하게'라는 교훈에서 알 수 있듯이, 공군기술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지적, 정서적 발전 도모와 공군인으로서의 기본 자질 함양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공군의 울타리를 벗어나 전국 최고의 명문고로 자리잡기 위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이 학교는 21세기 항공우주시대를 선도하는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이다.

부 · 대 · 탐 · 방



▲ 학교 전경



▲ 영어 수업 시간



▲ 특별활동

공군의 장기 복무 항공기술 하사관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군 유일의 공업계 국립고등학교인 공군기술고등학교는 공군기술 교육단 예하에 창설된 공군을종 간부학교가 모체가 되었다. 지금의 학교 명칭은 71년에 개칭 되었으며 학칙개정, 학교편제 개편, 어학실습실 설치 등으로 항공기술 전문 학교로서의 면모를 다져왔다.

공군기술고등학교의 자라는 먼저 항공기술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걸맞은 학교 시설이다. 학과교실, 실습교실, 정비실습실, 기숙사, 식당, 강당, 도서관, 체육관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일반 대학교에서나 볼 수 있는 학생회관은 학교가 학생 복지 면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는가를 짐작케 한다.

교육에 대한 열의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 학교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군사훈련을 담당하는 학생대와 교과 수업을 담당하는 교육대로 구분되어 있다. 이는 교관이나 선생님들의 업무 과중을 피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시간과 관심을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실습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다. 2명의 외국인 강사 임용과 영어 LAB실의 설치로 학생들의 언어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각 전공별로 여러 개의 실습 공간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제, 통신, 전산, CAD, 기체, 장비 실습실 등에

부 · 대 · 탐 · 방

서 학생들은 3년 간 항공 전문 기술인으로 탄생하기 위해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는 것이다.

우수한 시설과 항공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 덕택으로 이 학교는 건설교통부로부터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다. 항공정비면장 시험만 통과하면 졸업과 동시에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의해 국제항공정비면장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 학교는 학생들의 지적·정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동력항공기반, 서예반, 미술반, 기악반, 사물놀이반, 보컬그룹반, 컴퓨터반 등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다양한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날개" 축제를 통해 학생들은 매주 3시간의 특별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실력과 기량을 학부모, 동문들에게 발표한다.

최근 공군기술고등학교는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내무반을 기숙사로, 교관을 선생님으로 군대용어를 일반용어로 바꾸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현 김덕선 교장의 '군인이 되기 전 학교에서 학생이길 원한다'라는 지도이념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런 노력에는 공군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전국 최고의 명문고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공군기술학교의 의지가 담겨 있다. 21세기 항공우주시대를 향한 공군기술고등학교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해본다.



▲ 미술 수업 시간



▲ "날개" 축제



▲ F-16 무장정비실습

자 · 랑 · 스 · 런 · 공 · 군 · 가 · 족



'97 최우수 조종사 정상화 소령

◀ 제19전투비행단 정상화 소령이 '97 최우수 조종사'에 선정되었다. 최우수 조종사는 공중사격대회 우승자인 '탐건'과 달리, 특수작전, 적기 격추 능력, 전술 폭격 기량, 체력 등의 25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선발되는 명실공히 공군 최강의 독수리이다.

공사 부녀 동문

▶ 부녀 동문의 주인공은 국방부에 근무하는 박동형 대령(공사 20기)과 차녀 박다현 생도이다. 50기 사관생도로 첫 출발을 하는 박생도는 박대령의 30년 후배가 된다. 박생도는 하늘을 지키는 조종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교 소감을 밝혔다.



자 · 랑 · 스 · 런 · 공 · 군 · 가 · 족

현역공군, '정보통신기술사 시험' 첫 합격

- ▶ 제15훈련비행단 이용식 소령이 제 52회 정보통신기술사 시험에서 16대의 1의 경쟁을 뚫고 합격했다. 현역군인으로서 이 시험에 처음 합격한 이소령은 87년 통신장교로 임관한 뒤, 방위력개전사업 통신분야에서 근무해 왔다.



11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 ▶ 제3훈련비행단 213대대는 구랍 27일, 11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수립하였다. 이 기록은 세계 공군사에 길이 남을 최장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으로, 96년 5월 당 대대가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세운지 1년 7개월여만에 이루어진 쾌거이다.



베어링 세척 자동화 장비 개발

- ▶ 공군사관학교 김재천 상사가 베어링 세척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여 '97 국방부 창안상 은상을 수상하였다. 이 장비의 개발은 손 세척으로 야기되는 솔벤트 독성에 의한 인체유해를 방지함은 물론, 세척용제 절약으로 외화절감 효과까지 가져왔다.



영 · 공 · 방 · 위 · 이 · 상 · 없 · 다

강한 군인은 강한 훈련을 통해 태어난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는 능률한 공군 장병들의 모습에서 철벽 영공방위 임무완수를 위한 강한 결의와 자신감을 읽을 수 있다.

한 · 미 연합 '공군 쌍매 훈련'

▶▶ 제19전투비행단은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한미 공군연합비행 훈련인 쌍매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에서 한미조종사들은 F-16 4기를 동원하여 공대지 사격훈련과 공대공 전술훈련 등 각종 고난도의 비행훈련을 펼쳤다.



영 · 공 · 방 · 위 · 이 · 상 · 없 · 다

방공포병 야외종합전술훈련

- ▶ 방공포병의 동계야외 종합전술훈련이 2월 19일 펼쳐졌다. 전쟁지속능력과 방공작전 임무수행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이날 훈련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긴 박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아전속영 및 냉수마찰, 10km 야지 행군 등은 장병들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방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영공감시장비 10년 무중단

- ▶ 30방공관제단이 자동화 방공작전 무중단 10개년을 수립하였다. 방공작전 무중단이란 중앙방공통제소를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연속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록은 일본, 대만 등 동일 시스템을 도입한 세계 선진국가들도 이루지 못한 쾌거이다. 시스템 운영능력 향상과 부품 개량 등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이번 기록 수립을 뒷받침했다.



신형 경장갑차 기동시범

- ▶ 교육사령부, 10전투비행단에서는 신속한 기지방어능력 향상을 위해 도입한 K-200A1 신형 경장갑차 기동시범을 가졌다. 각종 악지형 기동에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 효과적인 기지방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 · 공 · 방 · 위 · 이 · 상 · 없 · 다



대규모 화생방전 종합훈련

- ▲ 기지 생존성 확보와 작전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대규모 화생방전 종합훈련이 2월 10일 10전투비행단에서 실시되었다. 약 4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훈련에서 장병들은 대비·현장출동·정찰·제독·피해복구 등, 상황별 행동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임무를 완수하였다.



'98 동계작전 적응 훈련

- ◀ 제16전투비행단 방공포대는 2월 2일부터 4일까지 동계작전 적응훈련을 실시했다. 주진지 전개훈련과 주야간 전투준비태세 훈련 등 팀 단위 전력 극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고라니 생포 작전

- ▶ 18전투비행단은 2월 13일 산림관리청과 함께 고라니 생포작전을 전개했다. 이는 활주로 옆 숲속에서 서식하고 있는 고라니가 전투기 이착륙시에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날 생포된 5마리의 고라니는 산림관리청이 운영하는 야생조수 보호증식장에서 1년 간의 적응과정을 거친 뒤에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



눈물 젖은 케이크

박 희 권

병장/제29전술개발 훈련비행전대



어머님의 성화에 못이겨, 친구들의 편찬을 참을 수 없어 그렇게 막차에 올라타 입대한 지 어느새 2년. 박찬호가 던진 강속구에 실밥 돌아가듯 그렇게나 빨리 2년이 지나갔다. 커피 두에 설탕 세 개. 이젠 내 취향을 아는 후임병들도 여럿이다.

수도꼭지를 돌렸을 때 세수하기에 딱 알맞은 온도의 물이 나올 때, 무심코 튼 라디오에서 내가 가장 듣고 싶어하던 노래가 나올 때, '오늘 하루는 기분이 참 좋군.' 하고 생각하게 된다. 하루하루 즐겁게, 그리고 재미있게 지내던 시간은 지나고 요 며칠 새 고민이 참 많아졌다. 내가 입대한 후 배운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 제대하고 난 후 군에서 배운 것을 자랑하고 활용할만한 게 있나 떠올려보니까 「이건 정말 아니올시다」이었다. 대신 눈치만 늘어서 이젠 선임병의 눈동자가 어떻게 굴러가고, 입술 떨림 하나하나에도 라면에 스프를 몇 개나 넣어야 할지, 커피에 설탕을 얼마나 넣어야 할 지 알 정도이다.

최상사님의 눈이 쏟아질 듯 커지고 입술이 짙어질 땐 300원짜리 빵 하나랑 군고구마 아이스크림을 사드리면 폭풍은 가라앉고 평온한 바다의 모습을 되찾는다는 사실도 안다. 하지만 엇그젠 정말로 나조차 눈치채지 못했던, 그리고 군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얻은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 발단은 그날 아침이었다.

수도꼭지에선 녹물만 나오고 라디오에선 '7년간의 사랑'이라는 구슬픈 노래가 흘러나왔다. 사실 그 날은 얼마 전부터 연락이 끊겼던 그녀의 생일이었다. 침울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다. 하늘에도, 땅에도, 심지어는 세숫대야의 세숫물에도 그녀의 얼굴이, 그리고 그녀와의 추억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만사가 짜증나고 도무지 일에 손에 잡히지 않았다. 평소에 활달하고 유머가 풍부하던 내가 그날은 오전 내내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니까 혼자 담배만 피워대던 내가 안쓰러웠는지 김상병이 말을 걸어왔다.

“박병장님! 뭐 안좋은 일 있습니까? 얼굴이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사실 기분 안 좋을 때 누가 옆에서 말 붙이는 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가. 하지만 최소한의 예의를 나눈 지켰다.

“응, 생일이라서...”

오후 시간에도 난 최대한 얼굴을 찡그리며 짜증 역력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될 무렵, 난 ‘내무실에 가서 슬픈 노래나 실컷 불러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퇴근한 줄 알았던 최상사님이 커다란 케이크를 사가지고 오시는 게 아닌가? 평소 먹는 게 철학이요 신앙이었던 최상사님이 케이크를 내 앞에 내려놓았다. 최상사님의 배만큼 커다란 생크림 케이크였다. 난 영문도 모른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최상사님 말씀하시길,

“최병장! 넌 쫄병 생일도 모르고 도대체 하급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거야!” 사람들이 나를 향해 웃으며 박수를 치는 걸 보니 아마 내 생일인가보다. 하지만 내 책상 위에 주민등록번호는 울릉도에 가서 옛이랑 바뀌었나? 내 생일은 아직 반년이나 남았는데.....

김상병은 “생일 축하드립니다. 박병장님” 하며 박수를 치고 황상병은 벌써 케이크를 먹고 있다. 권일병은 부랴부랴 접시를 들고 오고 있다. 낮에 내가 한 얘기가 좀 짧았기로서니 이렇게 와전될

줄이야. 자초지정을 얘기하니까 처음엔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김상병은 배신자 쳐다보듯 날 흘렸고 최병장님은 웃느라고 케이크를 하나도 못먹었다. 눈물이 날 뻔했다. 너무나 고마웠다. 조금 궁해 있는 동료들 보고 자신의 문제인 양 그렇게 걱정하고 관심을 가져줄 줄은 정말 정말 몰랐다.

오랜만에 크게 웃었다. 최상사님은 자신의 실수가 창피했던지 아니면 케이크 산 돈이 아까워서인지 그 커다란 배를 채우기 위해 말 한마디도 안하고 생크림 케이크를 드셨다.

2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은 그동안 쌓아온 친형제, 친부모 이상의 끈끈한 정이 있어서요.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깨달음이 있어서이다. 군에서의 업무는 사회에서 자랑하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다.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함에 있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 그로 인해 난 국민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후회없는 군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자랑할 것이다.

오늘 아침엔 라디오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에게서 편지가 왔다. 최상사님과 동료들은 이렇게 말했다.

“케이크 사오라고 해!” **등등**

30년 군 생활을 돌아보며

김 이 호

준위/제5전술공수비행단 야전정비대대



누구나 중년을 넘어서면서 과거를 회상하기 마련이다. 나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

세월의 흐름을 바람소리에 비교하는 이도 있듯이 공군에 몸을 바친지도 어느새 30년!

68년 초여름이었다. 부산 병무청에 육군장교 시험을 보기 위해 서류를 들고 찾아갔을 때의 일이다. 우연일까? 그곳에서 공군 하사 제복을 입은, 학교 한 해 선배인 문학천씨를 만나게 되었다. 반가움에 악수를 청하고 함께 점심 식사도 하게 되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선배는 “하사관 지원을 하면 야간대학에도 갈 수 있다”며 하사관 입대를 권유했고 나는 그길로 망설임 없이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부모님 슬하에서 어려움 없이 생활해 오던 나이기에 설레임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열차에 몸을 싣고 대전 교육사령부를 향해 입영의 길을 나섰다. 정문에 들어서면 순간 ‘N41 입대 환영’이라는 글씨가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

다. 장발이 유행하던 시절인 만큼 긴 머리로 교육사를 들어섰으나 이발하는 동안 싹둑싹둑 잘려 눈앞으로 떨어져내리는 머리카락을 보며 왜 그리 한숨이 쏟아지는지 그 때는 알 수가 없었다. 그길로 전투복과 전투화를 지급받았는데 옷은 내 몸을 몇 번 감아도 남을 만큼 헐렁하기 그지없고 신발은 뚫단배마냥 큼직하여 발가락이 자유스러웠다고나 할까? 아무튼 당시 상황은 지금 신세대 젊은이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훈련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대전의 겨울이 너무나 추웠다는 것이다. 하루하루가 고달픈 날의 연속이었다. 그때마다 마음 속에 굳은 다짐을 했던 것은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기에 할 수 있다는 신념 하나로 버티어 나갔다. 훈련을 마치고 항공기 지상장비라는 특기를 부여받았는데 무엇을 하는 특기인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궁금증이 더해지자 할 수 없이 선배를 붙잡고 물어보았다.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

어온다'라고 하기에 처음에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여러 비행단을 두루두루 돌면서 현재의 자리에까지 수많은 일들이 뇌리를 스쳐지나간다. 군은 특수사회라고 생각하며 강인한 군인정신과 단련된 체력이 합쳐져 인화단결 속에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때론 고된 작업 속에서, 때로는 가슴 벅찬 보람 속에서 하나하나 일을 배우고, 나름대로의 창의성을 보태면서 지금의 나의 위치에 오게 되었다. 비록 군문을 들어서던 그 시작은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올 정도로 당황스러웠고 군에 대해 무지하였으나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온 지금은 적어도 내 분야에서는 누구 못지 않은 전문가라고 자부해본다.

이러한 의지의 결정체로 91년 걸프전 참전에 망설임 없이 자원하였다. 진정 30년 군생활을 후회하지 않으며 국가와 군으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은 나에게는 어찌면 당연한 일이라 여긴다. 그 당시 장모님도 집에 와 계셨으며, TV에서 걸프전 상황을 계속 전파하고 있었다. 그때

이미 나는 결심했다.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이 전시를 위해 준비해 왔던 것이 아닌가.

다음 날 출근 즉시 당시 통제실장이었던 구본준 소령에게 걸프전에 참가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다. 우리는 대한민국 공군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이재기 단장 외 180명이 넘는 인원과 5대의 수송기가 걸프만 지역을 향해 힘껏 날아올랐다. 이역만리 어둠 속에 아랍에미레이트에 착륙하여 선발대 요원들의 환영과 함께 우리의 의지를 불태웠다. 더욱이 그곳 비행장 공사를 현대중공업에서 완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인이라는 것이 가슴 뿌듯해졌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공군은 사막의 모래바람과 폭염 등 수많은 악조건에서도 굴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왔다. 이제 나는 남은 군생활을 자부심을 갖고 공군의 일원으로서 마지막 정열을 후회없이 다 쏟고 싶다.

올해 2월 액체산소공장이 건립되는 순간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다. 얼마남지 않은 군생활이겠지만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 내 아이들에게 나는 군인으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충실을 기해왔다고 말하고 싶다. **김근**

오늘 나는

주 원 석

상병/방공포병사령부 행정처



오늘은 나홀로 채송실에서 근무했다. 항상 함께 근무해 왔던 내 고참이 어제 저녁 드러누웠기 때문이다. 며칠째 계속된 눈 사역과 연등근무로 인해 누적된 피로와 감기몸살이 겹쳐 급기야 드러눕게 된 것이다. 혼자 채송실에서 근무한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고참의 외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공백이란 사실이 내게 더욱 많은 생각을 가져다 주었다.

작년 이맘 때쯤 이곳 방포사에 전입해 와서 바짝 긴장해 있는 내게 P는, “난 일을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착하면 그만이다”라고 말을 건네며 자상하게 대해 주었다.

그 말을 대충 흘려들었지만 내 고참 P는 그 말을 지금까지 지켜주었다. 양 어깨에 노란 딱지를 달 때부터 상병이 된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수많은 실수와 핑크를 냈지만 그 때마다 자기 일인 양 앞장서서 막아 주고 직접 처리해 주었다. 함께 일차려도 받아가며, 밤 늦게까지 연등근무도 해 가며, 밤엔 한 이불을 덮으면서도 내게 언

제나 서슴없이 이불을 양보했던 내 고참. 나보다 4차수 위이자 나이로는 4살이나 위인 그지만 내게 곱은 일을 시키기 보단 자신이 직접 이렇게 하는 거라며 마대 빠는 일부터 내무실 일, 사무실 일 작은 곳까지 깊숙히 가르쳐 준 내 고참. 특히 이등병 때 나 대신 사역을 나갔다가 하나밖에 없는 비문함 열쇠를 가지고 나간 이유로 완전군장하고 연병장을 돌기도 한 일이나, 내가 유리컵 씻다가 그만 깨뜨려 오른손을 꿰매고 붓대를 감게 되었을 때, 대신 막내 일을 도맡은 일은 아직도 생각할 때마다 죄스럽고 미안하다. 지금은 내 무실의 실무, 부실무의 자리를 P와 내가 맡고 있지만 여전히 내게 고참으로서의 위압이 아닌 모범을 보이는 자로서의 겸손으로 대해 주는 P가 한없이 고맙기만 하다. 그렇게 고맙기만 한 고참이지만 난 언제 한번 고맙다고 마음의 표시를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지금껏 작은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 맘 속으로 P에 대해 실망과 원망을 많이 해온 게 사실이다. 때론 나도 잘할 수 있는

데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대해줄 땐 고참이 되려 귀찮고 없었으면 하는 맘이 들 때도 있었고, 내 생각엔 A방법이 훨씬 효율적이고 쉬운데 굳이 B를 선택한 그가 못마땅할 때가 많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줄부같은 내 자세와 맘이 내 고참에게 누적된 피로를 가져다준 게 아닌가 싶다. 내무실에서나 사무실에서나 바로 밑인 내가 잘 보좌했더라면 오늘처럼 드러눕게까지 하진 않았을 텐데 말이다.

오늘, 홀로 체송실에서 그가 말았던 뭇까지 혼자 하려니 여간 바쁘고 힘든 게 아니었다. 함께 있을 땐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으나, 홀로 있으면서 아침부터 죽 내 고참 P와의 지난 날들을 회상해보니 내 앞에 벌써 그는 큰 고목으로 성장해 있었던 게 아닌가? 그가 없이 보낸 체송실이 그토록 크고, 쓸쓸해 보임은 웬일이며, 체송낭을 어깨에 메고 30단까지 걷는 그 길이 그토록 멀게만 느껴짐은 또 웬일인가?

나는 체송실에서, 내 고참은 내무실에서 둘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함께 내무실에서 TV를 보

는데 “TV는 사랑을 싣고”란 프로에서 초대손님이 그의 군대시절에 그와 함께 단맛 쓴맛 다함께 맛본 고참을 찾는다며 나왔다. 해병대 시절 그와 함께 특별훈련을 받던 일이며, 자신의 잘못 때문에 본인이 혼나는 게 아니라 교육 잘못시킨 그 고참이 대신 혼났던 일들을 죽 회상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내 모습과 비슷한지 금세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눈가엔 벌써 붉게 물들어 버렸다. 누군들 이런 추억이 없으랴마는 이제서야 깨달은 내 모습이 너무나 어려보였고, 미숙해 보여 부끄러움의 진한 감동이 전해져 왔다. 몇 십년이 지나도록 진하게 흐르는 전우애를 못 잊어 TV에서 애타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초대손님처럼 나 또한 젊은 날의 짧은 군 생활을 통해 만난 그와의 우정이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 속에 다시 한번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오늘은 내게 여러모로 많은 생각과 감동을 전해준 뜻 깊은 날이었다. **등근**



CBT(과학화 교보재)란 무엇인가?

채 재 승

중령/공군본부 교육훈련감실



1. 서언

군 교육훈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명제는 “가장 짧은 기간(교육기간)내에 조직이 요구하는 제반 능력을 충분히 구비(교육성과 극대화)하여 실무현장에서 성공적인 임무수행(조기전력화)을 보장해야 하며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학적 교육훈련은 이러한 군의 교육훈련 요구를 실천하는 종합적인 발전방안이며 CBT 개발은 교육방법 측면의 교보재 과학화 사업인 것이다.

20세기 인류사적으로 가장 큰 업적은 컴퓨터의 발명이다. 컴퓨터는 다양하고 무한한 활용 특성과 급속한 성능향상, 그리고 관련 분야의 비약적 발전으로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으며 교육훈련 분야에 컴퓨터를 도입하여 제작한 첨단 시청각 교보재가 CBT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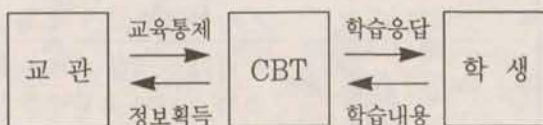
본 내용은 CBT에 대한 마인드를 조성하고

CBT 개발 및 활용을 제고할 수 있도록, CBT의 개념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2. CBT의 개념

가. 용어정의

CBT는 “Computer Based Training”의 약자로서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을 의미한다. 즉 CBT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학습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과학화된 시청각 교보재이다.



〈표1〉 CBT 운영 개념도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CBT는 컴퓨터에 학습자료나 내용을 입력시켜서 컴퓨터와 학생이



대화식으로 진행하여 학습성과를 증진시키는 교육기법인 것이다.

그런데 컴퓨터와 결합된 과학화 교보재를 사용하는 교육기법은 <표2>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용어로 호칭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컴퓨터활용 교육훈련” 의미의 CBT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컴퓨터와 결합된 형태의 교육기법을 CBT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자 한다.

약어	원어	비고
CAI	Computer-Assisted Instruction	컴퓨터 보조 교수기법
CMI	Computer-Managed Instruction	컴퓨터 관리 교수기법
CBI	Computer-Based Instruction	컴퓨터 활용 교수기법

<표2> CBT 관련 용어

나. CBT의 구분

CBT는 제작형태에 따라 <표3>에서와 같이 모의장비형(Simulator), 모의훈련형

(Simulation), 교과목형(Courseware)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CBT는 개발주체에 따라 용역개발과 자체개발로 구분하며 용역개발은 군외 CBT 전문 제작업체에 용역(예산지원)을 주어 개발하는 것으로 학습내용이 복잡하거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과목, 그리고 제작형태로는 모의장비/모의훈련형 CBT 제작시 적합하다. 자체개발은 CBT 소요부대에서 직접 제작하는 경우로 비교적 학습내용이 쉬운 과목이며 대표적인 제작형태는 교과목형이 적합하다. 이는 CBT 전문제작업체에 비해 자체개발 여건(별도의 개발조직 편성, 개발을 위한 시설/장비/제작도구 구비, 개발인력 보유 등)이 전반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이다.

한편, CBT의 개발에는 과목전문가(교관), 프로그래설계 전문가, 교육공학전문가, 컴퓨터그래픽디자이너, H/W 설계자 등이 참여한다.

다. CBT의 일반특성

CBT는 소개한 바와 같이 컴퓨터와 결합된 컴

구분	내용	비고
모의장비형 (Simulator)	각종 전투장비의 기능과 특성을 모방하여 컴퓨터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의장비	MCRC 콘솔, 호크미사일 콘솔
모의훈련형 (Simulation)	병력과 장비를 실제 운용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전과 유사한 훈련성과를 달성케하는 모의훈련 프로그램	WAR GAME
교과목형 (Courseware)	해당과목 교육내용을 음성, 그림, 영상, 동화상 등의 형태로 제작한 학습 프로그램	항공기식별 CBT

<표3> CBT 제작 형태



단의 시청각 교보재로서, 컴퓨터 및 관련 분야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기능을 갖게 되었다.

첫째, 종합적인 멀티미디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재래식 교보재는 청각(오디오), 시각(chart, slide 등) 시청각(VCR) 등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기능만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컴퓨터 및 관련분야의 발전으로 입체적/종합적인 멀티미디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현실 상황과 유사한 종합적인 시청각 묘사가 가능하다.

(입체영상/음향, 실전/실무현장 묘사, 가상현실기법 지원 등)

둘째, Two-Way Communication 기능이다. 재래식 교보재는 일방적인 학습내용만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나 CBT는 주어진 프로그램에 대해 응답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학습할 수 있는 쌍방 대화형 기능을 갖고 있다.

셋째, 학생수준을 고려한 단계적/반복적 자가 학습 및 완전학습기능이다. CBT는 학습내용 입력시 여러 형태의 프로그램을 작성/학생수준을 고려 활용함으로써, 단계별/반복적인 학습 및 자가학습이 가능하고 학습내용의 이해없이 다음 단계의 학습이 진행되지 않고 모르는 내용을 다시 복습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하여 완전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

끝으로 컴퓨터가 갖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컴퓨터는 기본적인 연산기능 이외에 Data 축적(DB화) 및 검색, Data 입/출력 및 Data

분석 처리 등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학생의 학습 내용 및 학습결과에 대해서도 상기 기능과 같은 Data 관리가 가능하다.

라. CBT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

CBT의 특성상, CBT를 개발하여 활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다.

첫째, 교육성고가 증대되어 조기전력화(교육기간 단축, 실무 조기적용)가 가능하다. 이는 멀티미디어기능 수행으로 학습내용 설명이 용이하고, 학생 흥미유발로 학습성취도가 향상되며 다양한 모의 실전상황 부여(현실불가능한 상황묘사도 가능)로 실전적 교육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차를 고려한 단계별 학습과 반복/완전학습이 가능하고 교관 주도 및 학생 자가학습이 가능하여 융통성 있는 교수활동이 보장된다.

둘째, 비용절감을 들 수 있다. 무기체계가 첨단화 될수록 신규 교육장비의 구입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실습교육에 필요한 장비 확보가 어렵고 종합적인 훈련을 위해서는 각종 무기체계(항공기/레이다장비, 시설물/훈련장, 비품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추가경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표4>는 CBT 개발로 실무장비 구입 비용을 절감한 사례이다.

구 분	실장비구입가격	CBT 개발가격
호크미사일콘솔	32억원	6억원
방공관제콘솔	17억원	5억원

<표4> 실무장비 대체 CBT 개발가격



※ 상기 금액은 실제훈련을 위해 항공기/호크 미사일, 레이다작동 및 운영유지 등에 따른 소요 경비는 포함하지 않았음.

셋째,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 CBT 개발로 실장비/훈련장 유지관리에 따른 인력소요 감소와 재래식 교보재 제작 및 관리등 행정소요 감소, 그리고 종전 인력에 의존했던 교육평가활동을 CBT를 통해 자동으로 Data를 처리함으로써 인력소요가 감소된다.

넷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미숙련 학생이 실무장비/실무장을 직접 사용하는데 따른 위험요소를 배제하고, CBT를 통한 단계별 숙달과 실무장비/실무장을 잘못 취급할 때 야기될 수 있는 위험상황도 CBT를 통해 체험케 함으로써 실무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다섯째, 컴퓨터가 갖는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CBT를 통해 실무부대에서도 업무의 능률을 배가할 수 있다. 즉 CBT를 통한 직무숙달 및 Data 관리와 각종 계획 및 훈련에 대한 사전검

증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업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3. 결론

20세기 출현한 컴퓨터의 비약적 발전은 군 교육훈련분야에서도 교보재 과학화를 조기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컴퓨터와 결합되어 제작되는 CBT는 과학적 교육훈련을 위한 첨단의 시청각 교보재이며 앞으로 컴퓨터의 발전에 따라 교육훈련분야에서 다양하고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CBT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고 CBT 개발여건이 미흡한 관계로 용역개발과 병행, 자체개발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향후, CBT에 대한 마인드가 조성되어 개발여건일 성숙되어 CBT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CBT를 개발/활용하는 것이 보편화되면, 교육성과 극대화 및 군 조기전력화에 기여하리라 확신하며 본 내용이 CBT개발/활용하는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중문**



엘니뇨와의 전쟁

이 경 덕

소령/73기상전대 연구부



지난 1997년은 금세기 들어 최악의 기상재앙을 몰고온 엘니뇨 해였다. 세계 곳곳에서는 물난리와 가뭄, 이상적인 고온현상으로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미국에서는 의회가 청문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동태평양의 주변 국가인 페루, 과테말라, 코스타리카에서는 국가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남아공에서는 비상각료회의를 설치하였다. 엘니뇨와의 전쟁을 선언한 셈이다. 지난해 11월에 기상청에서도 “한반도, 엘니뇨 안전지대인가”라는 워크숍을 열어 많은 분야의 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띤 토의가 있었고, 현재는 엘니뇨 대책반을 구성하여 엘니뇨에 의한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엘니뇨가 우리나라 기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고, 지난 겨울 이상적인 난동현상과 기습적인 한파, 동부 산악 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 눈사태, 남부지방 적설량 증가에 의한 지붕 붕괴 사고 등은 근래에 들어와서 보기 드문 겨울철 기현

상으로서 엘니뇨에 의한 이상 기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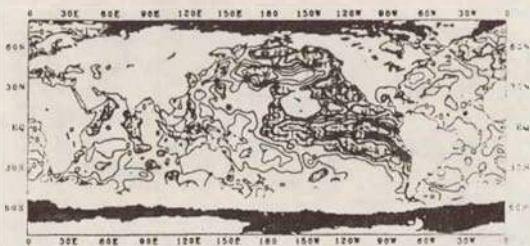
또한 우리나라는 많은 양의 곡물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특히 사료로 쓰이는 콩, 옥수수, 밀 등은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엘니뇨의 피해를 많이 받는 미국서부와 남미지역의 농작물의 작황은 우리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특히 올해는 IMF의 타격으로 국내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 하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엘니뇨가 앞으로 어떤 기상재해를 몰고 올지 염려된다. 어쨌든 반감지 않은 엘니뇨이지만 이것이 어떤 현상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가. 엘니뇨 현상은 무역풍의 약화가 원인

지구는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바다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



게 바다는 넓고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대기가 갖고 있는 전체 에너지의 3,000배의 열용량을 갖고 있다. 즉,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대기의 에너지의 90%가 해양에서 공급된다는 말이다. 태양의 에너지는 고작 5%에 불과하고, 그외 지열과 인공적인 열에너지라고 볼 수 있다. 결국에 해양의 열에너지에 의해 지구기후가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동태평양의 해수온도가 평균치보다 4℃ 상승(진하게 채색된 부분)하였다. 엘니뇨로 해양에 과잉 에너지가 발생하였다.

적도 근해는 태양으로부터 가장 강한 일사를 받게 되므로 많은 열에너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뜨거워진 공기는 상승하여 남북으로 나뉘어 이동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냉각되어 중위도 상공에서 하강한다. 하강한 공기의 일부는 다시 적도를 향해 불어 가는데, 이렇게 적도를 향해 불어 가는 바람을 무역풍이라고 한다. 무역풍은 지구 자전에 의해 약간 휘어서 동풍계열의 바람으로 바뀌어 불게 되는데, 이것을 북반구에서는 북동무역풍, 남반구에서는 남동무역풍이라고 한다.

이 무역풍에 의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면서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 힘에 의해서 동태평양의 해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흘러가

고, 동태평양에는 용승류라는 차가운 바닷물이 솟아올라 채워진다. 그래서 동태평양의 평균해수온도(23~25℃)가 서태평양 해수온도(25~28℃)보다 낮다. 이것이 태평양의 에너지 평형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년내지 6년마다 무역풍이 약해져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적어지면, 동태평양의 바닷물이 서태평양을 향해 흘러가지 못하고 정체하여 동태평양의 바닷물은 평균 해수온도보다 뜨거워지는데, 이러한 불균형 상태를 엘니뇨 현상이라고 한다. 이번 엘니뇨는 그 지수가 4~5℃(SSI지수 : 월평균 해수면평년편차)로서 금세기 들어서 최악의 상태라고 한다.

나. 엘니뇨가 이상 기후를 몰고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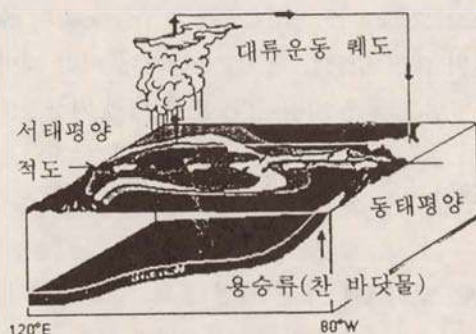
5대양에서 가장 넓은 태평양의 한가운데 위치한 동태평양에서는 해수온도가 평균값보다 더 올라가면 대기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과잉으로 발생하여 대류작용 즉, 상승기류가 평소보다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저압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거대한 저압대는 서태평양에 위치한 적도저압대를 불러들여 태평양 전체의 기압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또한 서태평양에는 반대로 저압대가 약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거대한 두 기단의 상태변화는 다른 지역의 정상적인 기압계를 무너뜨려 세계 곳곳의 이상기후를 초래한다.

태평양 주변의 엘니뇨현상의 직접적인 피해국가인 미국 서부, 남미에서는 적도저압대의 발달로 허리케인과 저기압이 자주 발생하여 육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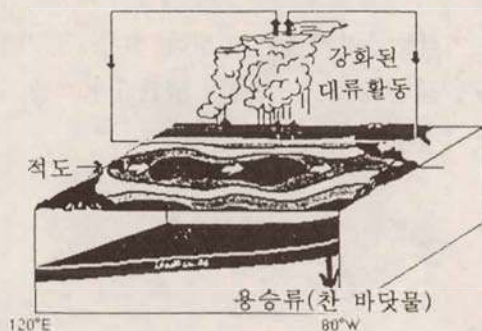


상륙, 홍수 등 비 피해가 생기고, 호주 등 동남아 국가에서는 고압대의 영향으로 가뭄 등 수자원의 고갈을 겪게 된다. 또한 동태평양의 과잉에너지의 발생으로 태평양 상공에서는 남북의 대기순환이 평소보다 강해지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극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한대 제트기류가 크게 굽어지면서 남북열교환이 강해지고 기압계 저지현상을 초래한다. 이러한 기압계 저지현상은 우리나라의 겨울철에 한·난의 차이를 크게 하여 이상난동, 폭한, 폭설 등 이상기후를 몰고 온다.

정상적인상태



엘니뇨 상태



동태평양의 해양에너지 변동으로 발생한 태평양 상공의 이상적인 대류운동

다. 97년 엘니뇨에 의한 피해상황

1997년 9월말까지 엘니뇨에 의한 피해상황으로 평년보다 두 배의 비가 내린 미국 서부, 페루 그리고 칠레에서는 홍수 피해가 발생하였고, 콜롬비아에서는 해수온도의 상승으로 어획량의 20%가 감소하였다. 또한 사하라사막의 옥수수 경작 피해는 아프리카 주민들의 식량부족의 위기까지 몰고 갔다. 서태평양 주변국인 파푸아뉴기니에서는 50년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흉작과 식수 고갈로 50여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고, 70만명이 아사 위기에 처해 있다.

가뭄으로 뉴질랜드에서는 농작물과 가금류의 피해액이 1억3천만달러를 넘어섰고, 호주에서는 밀 생산량, 필리핀에서는 쌀 생산량의 15%가 감소하였으며, 인도네시아는 산불피해뿐만 아니라 커피 생산량의 15%가 줄었다. 또한 홍수로 인도에서는 2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방글라데시에서는 국토의 1/3이상이 침수되었다. 중국에서는 2천만ha가 가뭄 피해를, 중국남부에서는 대홍수로 47억달러, 태풍으로 60명 이상의 사망자와 31억달러의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10년만의 최악의 기상재해로 기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여름철 고온과 가뭄으로 남부 일부지방에서는 물부족 현상이, 북한에서는 7월 경에 가뭄으로 수십만 ha가 피해를 입었다.

라. 엘니뇨에 의한 기상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

인간의 능력으로 자연의 재앙을 이겨낸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겠지만 피해를 최대한 줄여 보



려는 방책은 어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엘니뇨를 예측하기 위한 전구적 해양 관측 시스템과 기후 예측 시스템, 인공위성을 이용한 지구 관측 시스템은 온 인류가 자연의 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집념의 결과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렇듯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무한한 능력과 집념 앞에 언젠가는 어떠한 자연재앙도 결국 무릎을 꿇고 말 것이다. 올해 국가가 IMF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에 찾아온 엘니뇨에 의한 기상재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업무의 강화이다. 전세계적으로 해양 및 기상 관측망, 엘니뇨 예보시스템과 세계 기후정보망이 구축되어 있어 이를 통해 국내 및 전세계 기후변화를 예측하여 사전에 정부 각 부처에 전파, 대책을 수립토록해야 한다.

둘째, 각 부처에서 기후영향 평가를 실시, 대응방안을 수립,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자연재해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식량문제이다. 과거의 이상기후에 의한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앞으

로 예상되는 피해, 즉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 및 세계 곡물가 인상에 대비한 식량 수급정책을 수립,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계의 의견을 한 곳에 종합하여 정책을 수립, 실천해 가는 총괄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셋째, 국내의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를 최대한로 경감시키는 방재 시스템의 가동이 필요하다. 겨울철의 혹한과 폭설에 대비한 방재 업무를 가동시켜 피해를 줄이고, 봄 가뭄, 여름철 냉해에 대비하여 관정을 개발한다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물부족을 최대한 막는 방법도 좋고, 농작물의 파종을 적절한 시기로 바꾼다거나 기후에 맞는 품종으로 개종하는 방법, 또는 논두렁을 높여 물을 깊이 대어 냉해를 막고, 병충해에 미리 대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매일 기상정보 이용자는 돌변기상에 대비한 치밀한 안전업무 계획수립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엘니뇨에 대한 사전 홍보 및 교유이다. 특히 엘니뇨 현상은 자연현상이지만 사회, 경제, 산업등 모든 분야에 피해를 준다. 따라서 온 국민과 각 부처에서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 엘니뇨 및 기후변화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공민**

차량 운전자 간 수신호 방법

우 맹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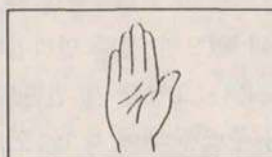
소령/공군본부 군수참모부



우리는 운전 중에 다른 차 운전자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을 때가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만 상대방 차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과거 문화방송에서 전개한 바 있는 '손으로 말합시다'라는 자동차 언어 캠페인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고맙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이름도 모르는 이웃 운전자에게 조그마한 도움을 받을 때가 많다. 양보를 받았을 때, 실수를 이해해 주었을 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든다. 이럴때 답례를 하는 방법으로 오른손을 펴서 귀 높이까지 든다.



2. 먼저 가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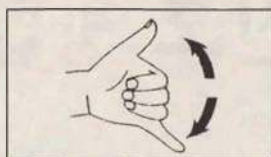
교차로나 좁은 길에서 마주 오는 차끼리 만나면 먼저 가도록 양보를 해야 할 때와 깜박이를 켜고 끼어들려고 할 때 내가 먼저 양보해 주는 여유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길을 안내하듯이 오른손을 펴서 45도 각도로 자연스럽게 내민다.



3. 사람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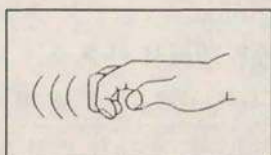
횡단보도 주변이나 골목길, 주택가 도로를 지날 때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차를 세우는데, 뒤에 오던 차가 영문을 몰라 그대로 질주해 올 때 차를 세우도록 알려주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왼손을 창 밖으로 내밀어 주먹을 쥔

상태에서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펴서 아래를 향해 흔들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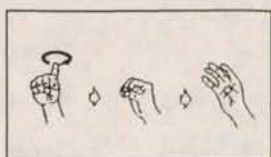
4. 문이 열렸어요.

옆차의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커브 길에서 자칫하면 문이 열려 큰 사고가 나기도 한다. 특히 초보 운전자들이 많이 범하는 실수인데 상대방 운전자의 주의를 끈 다음, 자동차 손잡이를 잡고 여는 시늉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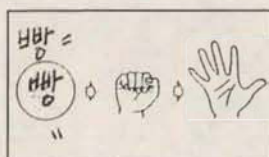
5. 타이어를 좀 보세요

평크가 났거나 공기압이 턱없이 낮은 상태로 운행하면 위험천만한 일이다. 주변에 이런 상태의 차가 있을 때, 상대방 운전자의 주의를 끈 다음,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고, '펑' 하는 느낌으로 손가락을 오므렸다 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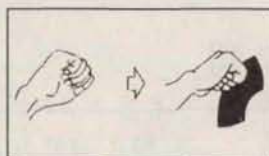
6. 브레이크등이 고장났어요.

브레이크등은 양쪽 다 고장나더라도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충돌사고의 위험도 커서 뒤따르는 운전자가 매우 불편하고, 앞차의 브레이크등이 고장났을 때 빨리 알려주어야 한다. 이럴 때 아주 짧게(약 30분의 1초쯤) 경적을 두 번 울린 다음, '반짝반짝' 할 때의 모습으로 상대방을 향하여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를 반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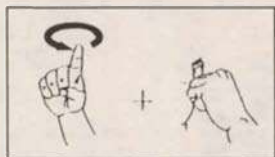
7. 사고 났어요.

사고가 나서 갑자기 차가 밀리는 체증 구간을 만났을 때, 뒷차들은 영문을 모른 채 답답하게 기다려야 하는 일이 종종 있다. 이럴 때 반대 차선을 달리는 운전자들의 사고 소식을 알려주면 훨씬 느긋하게 기다릴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 머리를 가볍게 두세 번 치는 시늉을 한다.



8. 전화가 필요해요.

사고나 고장으로 차가 멈추었을 때 주변에 비상 전화도 하나 없으면 정말 안타깝다. 전화가 필요하다는 도움을 요청할 때 왼손으로는 전화를 들 때처럼 주먹을 귀에 대고, 오른손으로는 다이얼을 돌리는 시늉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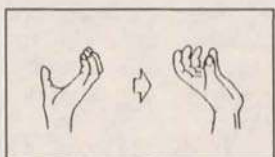


맞은편 차선의 운전자들이 측은하다는 생각도 든다. 이럴 때 정체의 길이를 손가락 수로 나타낸다. 손가락 하나면 1km, 두 개면 2km, 세 개면 3km라고 가르쳐 주는 방식이다.



9. 위험해요

낙석이나 빙판, 짙은 안개 등 갑작스런 천재지변으로 도로에 이상이 생겼을 때 마주 오는 차들에게 위험지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왼손을 창 밖으로 내밀어 손가락을 오므린 후 위를 향하여 손목을 빙글빙글 돌린다. 순찰차의 비상등을 연상토록 한다.



수신호는 운전이 충분한 여유가 있을 때 사용하여 무리하게 신호를 보내려다가 위험을 자초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한 경적을 울릴 때는 최대한 짧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하며, 야간에는 상향등을 켜는 등의 무리한 신호를 보내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교통경찰이 있다는 수신호를 보내지 않도록 해야겠으며,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모든 사람은 밝고명량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겠다. **당론**

10. 이만큼 밀렸어요

이쪽은 소통이 잘되지만 맞은 편 차선은 차가 꽉꽉 밀려 있을 때 조금 미안한 생각도 들고(?).

황·금·비·늘

이 몽 룡

병장/제11전투비행단 헌병대대



'45-4=5'. 우리는 피식 웃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난 그저 박수를 쳐주고 싶은 심정이다. 판에 박힌 삶과 사고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범하고 진솔하고, 쉬운 무장을 접해 본 지가 오래된 터라, 그리고 호기심이 발동해 '황금비늘'이란 두 권의 책을 펼쳤다. 세상사는 이야기. 장애인, 범죄자, 민간인, 탈출한 고아들. 그리고 그 중의 '45-4=5'라는 수리적 개념을 가진 천재소년 '김동명'

'김땅콩'이라 불리는 키 작은 그 소년의 눈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인간애, 따뜻함이 진솔하게 그려진다. 영아원 출신. 신분과 관련된 어떠한 기록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출생의 신비감마저 느끼게 하는, '동명'은 새로운 세계, 즉 현실로부터의 탈출을 항상 꿈꾸는 소년이다. 자의든 타의든 간에,

아무 것도 없다. 견고 또 견고, 굵주리고, 도피를 꿈꾼다. 혹 현대인의 모습을 이 고아를 통

해 표현하듯, 그렇다. 우리는 항상 현실에의 도피를 원한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힘들과 권태를 언제나 걱정하고, 기피하는 성향이 매우 짙다.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려는 행위의 색깔은 여러 가지일 것이다. 빈한 자는 가난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고, 약한 자는 약함으로부터, 강한 자는 더 강해지기 위해 몸부림 칠 것이다. 설령 그 어리석음—나도 확실히 어리석거나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을 인식하더라도 우리는 굳게 믿는다. 옳은 방법이겠지 하고 말이다.

나도 마찬가지이다. 난 솔직히 내가 처한 '군'이란 특수한 집단으로부터 되도록 빨리 벗어나기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다. 30개월이라는 어찌 보면 짧은 세월을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다고 결코 기피하지는 않는다. 내가 사는 이 나라에서, 액면 그대로, 이 '국방의 의무'를 결코 기피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다. 효율성과 능률성, 사회진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다. 각

자의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모두들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난 정말 현실에 만족해' 하고 거짓 말을 하는 이는 흔치 않은 일이니까.

주인공 '동명'은 그랬다. 어린 나이, 왜소한 체격이 혐오스러웠지만 그는 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현실의 벽에 맞서고 그걸 부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장애자, 그리고 과거 소매치기의 신화적인 존재인 양아버지의 죽음이 그를 더욱 강하게 한다. 그렇다. 그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한다. 그러나 요즘 세상 사람들처럼 현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 진정한 힘을 가진 아름다운 소년이다.

'자신을 위해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라는 짧은 말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코 이기적이지 않은 발상이라고 하고 싶다.

삶과 죽음은 아주 익숙한 일임에 틀림없다.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선택할 수도 뿌리칠 수도 없는 일이다. 이것들 또한 인간에게서 소외되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이다.

그는 죽음을 경험한다. 아버지의 운명이 죽음이란 걸 깨닫는다. 또다시 벗어나려고 한다. 그 고통에서, '동명'은 어릴 적부터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자랐다. 그래서 그는 더욱 그것의 의미를 알고, 뿌리치기를 거듭한다. 슬프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소외되었다고 믿고 있는 부류가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도 어떠한 경우 극심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착각일 가능성이 거의 절반을 넘을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결코 소외되지 않는다. 그리고 소외된 삶을 살고 있지도 않다. 또 그런

삶을 살지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따뜻함이 더 남아있는 사회 속에 존재하니까.

인생의 참으로 진실된 면

대체로 인간의 삶은 인과응보 혹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계약이나 약속에 의한 것이 지배적이라고 본다.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알기 때문이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덕이 쌓여 후에 성공이나 상을 받게 된다고 믿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황금비늘'이란 바로 진실된 대가를 말하고, 그것을 바라고 얻고자 노력한다.

주인공은 물질적으로 가진 것도 없고, 특별히 기억력과 소매치기 외에 가진 재주도 없다. 하지만 배플면서 살아갈 줄을 안다. 그의 양아버지가 그랬고, 춘천에서 만난 어느 할아버지가 그랬다. 계약, 인과율의 깨달음 뒤에 '동명'은 황금비늘 즉 어디든 가 간혀 있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고 헤엄쳐 가는 무어(霧魚)라는 이상의 물고기의 비늘을 보게된다. 그 황금빛 찬란함과 전율을……

그는 제대로 살았고, 살아온 것이다. 허나 다수의 인간들은 부끄럽기 짝이 없게도, 흔히 말하는 이상이나 꿈의 의미를 그저 물질적인 것에만 둔다는 사실에 그리 슬퍼하지 않는다. 소설은 그저 소설일 뿐, — 꼭 소설만이 아니라 — 사물의 진실된 면을 찾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나 역시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지는 않겠다. 참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의 생활터전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인정이 메마르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졌다. 우리는 정신적 진실된 면을 점차 잃

고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현실 몇몇 사람들의 깨끗한 의식이 아쉽기만 하다. 우리도 황금 비늘을 찾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한다. 뚜렷한 목표라고 하지는 않겠다. 자신이 바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항상 꿈을 가져야 한다. 그 꿈은 진실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살아간다.

인생의 참으로 진실된 면은 어떤 것일까? 아니 그 진실된 면을 어떤 방법으로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을까.

선(善),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다. 선하기 위해서는 선함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이다. 각기 다른 상황에서의 융통성 있는 선을 말이다. ‘동명’은 그것을 자신의 어릴 적 생활로부터 터득해 온 인물이다. 자신의 재능을 극히 자신만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고, 타인(他人)을 위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리고 정직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가진 것이 없었다. 하지만 하나하나 자신이 원했던 것을 이루어 나갔다. 항상 진실된 모습—눈물을 흘리고 싶을 땐, 눈물을 흘렸고, 웃고 싶을 때 웃고, 의지와는 상관없이—을 보여준 것이다. 주위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삶에.

‘동명’은 어쩌면 선함을 미리 가지고 태어났을지도 모른다. 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점이 맘에 들었었다. ‘감동’이란 것이 멀게만 느껴졌던 시절이 내게도 있었다. 잔잔한 물결 같은 감동이나 진실들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그 단순한 이치를 깨닫는데 꽤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제 안다. 그래, 우리는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가능성’, 무한한 힘과 능력의 원천을 말이다.

할아버지는 모든 세상을 거대한 낚시터라 했다. 제작기 자신이 가지고온 것들을 낚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지내고 있다고 말한다. 슬픔과 기쁨, 가난함이든 부함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그 질서를 규제하는 것은 조화라는 것이고.

사회란 무엇인가? 단지 인간들의 집합체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각자의 개성을 표출하며 살아가는 인간이 가진 장소일 것이다. 거기엔 서로 어울리려는 성질이 있다. 바로 조화라는 것이다. 조화는 아름다운 것이다. 또한 진화함을 뜻하기도 한다. 물질적인 조화, 유기적인 조화, 인간과 문명, 문명과 자연의 조화는 더 나은 사회로의 지름길임에 틀림없다.

나는 앞에서 꿈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선함을 익히자 했다. 여기에도 ‘조화’란 단어가 알맞을 듯 하다. 꿈이 아직 현실 이전의 단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과의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마냥 허황됨이라 표현하고 싶다. 선함도 그렇고.

맑은 영혼과 미(美)의 가치

‘아름답다’의 의미가 주는 느낌은 꽤 많다. 행복감, 따뜻함, 맑고 상쾌한 느낌 등. 하지만 미(美)라는 것이 주는 또 하나의 느낌이 있다. 다름 아닌 그대로 ‘아름다움’이다.

아름답고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 신선을 자처하는 할아버지가 그랬고, 소매치기를 잘하는 동명이 그리고 그의 양아버지도 그랬다. 그들은 항상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 서로를 보살피고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극단적인 이기심이나 개인주의로 주위를 살핀다. '혹시나 내가 해를 입지나 않을까' 하고 말이다. 나쁜인 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굶주리고 고통받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다. 아주 서글픈 현실일 수밖에 없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 할지라도 조금씩 생겨난다면 그래도 덜 삭막한 세상이 될텐데. 현재로는 그러기를 바랄 뿐이다.

역시나 무어(霧魚)는 존재했다. 아름다움과 맑은 영혼의 가치가 조화로운 세상이라면 그것의 대가는 바로 황금비늘이다. 때문에 사람에게겐 전혀 보이지 않는 '금선어' 라는 물고기의 비늘. '동명'은 지금 그것을 웃으면서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마음을 선하게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고 베푸는 심정으로 대하

라고.

열 다섯 살 영아원 출신 고아 소년의 찝막한 어린 날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부끄러움을 느끼자.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자. 그러면 우리도 황금비늘을 볼 수 있고, 그 고요한 파동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를 맡는다.

박희준 '하늘 냄새' 中에서

증문

보이지 않는 자와 사랑 나누기

영화 「접속」을 접속하고 나서

김 경 호

병장/방공포병학교 기지대대



1.
클릭, 클릭, 클릭, 클릭, 접속……

2.
한반도 남부 전역에 새로운 신드롬이 일고 있다. “접속신드롬”이 영화의 엔딩부분에 삽입된 음악은 뻘뻘마다 인사말을 대신하고 있으며 통신을 통해 누군가를 만나기를 누구나 바라며, 덕분에 영화에 이용되었던 통신업체 “유니텔”은 대단한 광고효과를 얻고 있다. 유니텔측은 영화 포스터를 붙여 놓고 유니텔에 접속하라며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3.
접속, 접속 하길래 도대체 어떤 영화인가 궁금하여 영화관을 찾았다. 개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라 2류 영화관에서 보았는데 여전히 매진이었다. 마지막 회임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시작되기 한참 전에 표를 사고 상영시간까지

서점과 오락실과 만화방을 전전하며 시간을 때웠다. 영화관 앞에는 사람들이 입장을 위해 긴줄을 만들었다. 나는 담배를 한 대 물고 영화 포스터를 보았다.

전도연, 나는 그녀의 배우로서의 자질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는 편이다. 초코하임 광고로 그녀는 내게 기억된다. 아직은 앳된 이미지, 귀여운 상이기는 하지만 카리스마라든가 사람을 몰입시키는 구석은 없는 외모이다. 그저 청춘물의 감초 같은 조연이라면 몰라도, 그녀에게 성숙된 연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한석규? 물론 그는 두 편의 영화 —닥터 봉, 은행나무침대—로 공전의 히트를 쳤다. 하지만 그에게는 영화배우의 이미지보다 텔런트이 이미지가 강하다. 연기변신을 기대하기는 무지무지 힘들 것이라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물론 그는 넘버원에서 놀라운 변신을 하였다고는 하나 내가 그 영화를 아직 보지 못한 탓에 믿기는 힘들다. 내 편견이겠지만 내가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

는다. 영화에 관한 한)

영화가 시작되었고, 나는 영화에 몰입하였다. 스토리는 간단하다. 제각각 사랑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남녀 한 쌍이 PC통신을 통해 서로를 확인하고 만난다는 것이다. 두명의 주인공이 벌이는 제각각의 사랑이라는 것도 너무 뻔한 것이었다. 차이가 있다면 전도연은 친구의 남자를 홀로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고 한석규는 짝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둘은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적극적으로 포용하지 못한다. 거기에서부터 그들은 애시당초 사랑의 아픔을 가지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물론 한석규의 경우는 좀 다르다. 그가 가지고 있던 아픔이라는 것은 추상미로부터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옛사랑의 그림자 때문이었다.) 영화 전반에서 헤어짐과 만남의 모티프가 되는 벨벳언더그라운드인가 뭔가 하는 그룹의 음악과 그 오래된 음반이 그나마 특성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영화가 끝나고 나는 혼자서 영화를 보러 온 것을 후회하였다. 아무래도 이건 파트너와 함께 보러 와야 하는 영화 같은데. 파트너와 이런 영화를 보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나쁜 점은 당연히 주인공과 자기 파트너를 비교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쁜 점은 당연히 주인공과 자기 파트너를 비교하게 된다는 것이다. 좋은 점은 정반대로 주인공과 파트너를 동일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영화는 후자의 경우에 가까울 듯 하였다. 그래서 가뜩이나 사이가 어색해진 여자친구를 데려 와야 했어야 했다. 혼자 영화보기를 좋아하는 나에게 그런 느낌을 주는 영화는 대체로 통속적인 영화인 경우가 많다. 영화장치라든가 배우라든가 화면 짜임이라든가 하는 것은 세련될 지는 몰라도 스토리

는 대충 그런 러브스토리인 경우가 많다.(여기에서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제외한다. 그 영화는 수작이었다. 역시 이명세!)

하지만 접속이, 뻔한 스토리의 접속이 왜 신드롬을 몰고 왔을까? 음악 때문에? 광고효과 때문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작품이 좋고 느낌이 좋다. 눈에 거슬리는 화면도 없었다. 중간 중간에 나오는 에피소드도 거부반응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인물 설정도 잘 되어 있다. 결과론이지만 “여인 2”역의 전도연역의 캐스팅은 적절한 선택이었다. 한석규의 “해피데이”도 마찬가지. 이 영화의 캐스팅에서 파격은 없었다. 배우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대로 간 영화였다. 그래서 더욱 더 자연스럽게 배우들은 연기에 몰입할 수 있었을 테고 전도연은 대중상 신인여우상을 거머쥔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이 접속신드롬을 다 설명하지는 못한다. 아무리 한석규가 흥행메이커라고 해도.

4.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난다. 길거리를 지나치든 TV를 보든,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들을 만난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지나치는 사람들을 기억하지는 못한다.(흡사 너무나 많은 정보 때문에 그 정보의 가치를 망각하듯) 내옆을 지나치는 사람들과 거리에 세워진 플라타너스(은행나무여도 좋다.)들과 차이가 뭘까? 단언컨대 없다. 사람들은 풍경에 불과하다. 오히려 플라타너스가 의미 있다. 적어도 플라타너스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건 약속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이별을 상기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거리에는 항상 사람이 있지만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의미는 없다. 거리를 지나가

는 각 인의 개체가 오히려 플라타너스보다 못한 것이다. 하지만 실체하지 않은 만남은 의미가 있다.

실체하지 않은 만남이라는 것은 TV, PC통신, 영화 등 매체들에 의한 것이다. 생각컨대 우리는 그런 만남에 더욱 익숙하고 열광한다. 인간적이지 못한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면을 느끼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대중스타들을 직접 만날 기회는 그다지 흔하지 않지만 그들만큼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도 없을 듯하다.(아이러니한 사족이지만—우리는 그들에 대해 그럴지도 모르나 그들에게 대중은 그들 앞에 세워진 풍경이 아닐까?)매체를 통한 만남이라는 것은 전자혁명이 가져다 준 허상에 대한 숭배이며 정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만남에 더욱 익숙한 것이다.(대중스타를 라이브무대에서 만나기도 하나 수천의 관중에 묻혀 그를 바라보는 것이 TV 속의 그를 바라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현장감? 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니까.) 직접 부대끼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 더욱 친숙함을 느끼는 것이다. PC통신을 이야기하자면 그만큼 좋은 상대도 없을 것이다. 그가 나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을 것이고 익명의 상대이기 때문에 더욱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최근 많이 생긴 전화방이라는 것은 그 점을 착안한 아이템이다. 보이지 않고 익명의 상대이기 때문에 은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전화가 끝나고 육체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으나 그 만남 역시 익명의 만남이다. 다시 만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속 편한 만남이다.)

PC통신의 익명성은 아이디라는 장치에서 더욱 극명해진다. 아이디는 또다른 자신의 이름이다. 그러나 자신의 본명 — 그 명예가 달린 군더더기 —과는 다른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장막이다. 우리는 익명이 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에 걸맞게 익명의 만남에 친숙하다.

5.

해피데이는 실체의 사랑에 실패하고 절망한다. 여인 2도 마찬가지이다. 한 사람은 아픔을 담고 살고 한 사람은 아쉬움 혹은 실망을 안았다. 그러나 익명으로 서로를 만나고 격려하여 사랑이 시작된다.

영화 “접속”은 누구나 꿈꾸는 우연한 만남과 익명의 만남이라는 모티브를 통하여 대중에게 어필되었다. 마지막에 해피데이와 여인 2는 실체를 만난다. 만남으로 영화는 한반도 남부를 휩쓸고 있는 곡으로 끝난다. “탕—! 탕—! 탕—! 탕—!”거리며 시작되는 곡, 그러나 그 이후 두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익명의 만남만으로 영화 “

접속”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실체에서의 사랑에 대한 여부는 관객의 짐작만으로 충분한 것이며 거기에는 가치가 없다. 오직 익명의 만남만이 가치있는 것이다.

6.

당신이 사랑을 원한다면 지금 접속하라.

클릭, 클릭, 클릭, 클릭, 접속……

등단

끝없이 날고자 했던 Jazz Man, Charlie Parker.

장 재 용

상병/제8990부대 근무지원대



따뜻한 차 한 잔이 몸에 온기를 더해주는 요즈음, 끝없이 나의 뇌리를 스치는 사람이 있다.

……17세의 아직은 어린 티를 벗지 못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공연장에 오르자마자 눈을 꼭 감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알토색소폰 연주를 하고, 순식간에 관중석은 웃음바다가 되어 버렸다. 같이 공연을 하던 드러머는 심벌을 무대 위로 집어 던진 채 퇴장을 해 버리고…… 이 청년이 얼마 후 세계의 재즈맨들이 존경해 마지않는 전설적인 알토색소폰 주자가 될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었다…….

찰리파커, 일명 버드(BIRD). 그는 1920년 8월 29일 캔사스 시티에서 태어났다. 캔사스 시티는 뉴올리언스를 떠나 북상하던 많은 흑인들 중의 일부가 정착한 곳인지라 자연스럽게 재즈가 전파되었고, 버드가 태어날 당시에는 캔사스 시티 재즈라는 하나의 주류가 생성될 정도로 재

즈가 번성했었다. 이런 재즈의 번성기에 태어난 버드였지만 처음부터 천재적인 재능의 소유자는 아니었나 보다. 그는 처음에 같이 색소폰을 연주하는 여느 친구들처럼 평범한 실력이었다. 여기에 버드가 더욱 전설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애기가 나오는 것이다. 애기인즉슨, 어느 순간 갑자기 불세출의 높은 경지에 다다랐다는 것. 마치 마법처럼. 그래서 또한 그의 실력에 대해 말들이 많았음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을 것이라는 등의……. (참고로 그는 서른 다섯의 나이로 단명하였다.)

버드가 재즈에 관심을 보였던 때는 크리스퍼스 애터스 고교에 재학 중일 때이다. 처음엔 바리톤을 연주했었는데 그가 12세 되던 해에 어머니가 사준 알토색소폰이 후의 22년 간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그는 심한 열등생이었다고 한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실력의 발전이 없는, 발전을 한다 해도 매우 더디게 발전되는. 그러던 그를 전무후무한 색소폰 연주자로 뒤바

뛰어난 사람은 ‘조지 엘리’ 밴드의 피아니스트였던 ‘캐리 파웰’. 버드는 그에게 화성악, 즉흥 연주법 등을 교육받은 후부터는 완전히 변화된 실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명연주자라도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면 무명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그도 처음엔 무명의 연주자로 묻혀질 듯 했으나, 그런 그를 세상에 알린 것은 우연히 캔사스 시티에 공연차 왔다가 그를 만난 ‘디지 길레스피’였다. 후에 평론가들은 이렇게들 말한다.

“버드는 뛰어난 천재 연주가였지만, 오히려 그의 사상을 전파한 것은 디지 길레스피였다.”,
“비밥의 탄생은 버드로부터지만, 그의 천재성을 대중화시킨 것은 디지 길레스피이다.”

천재성을 자랑하던 그였지만, 그는 지독한 마약 중독자였다. 급기야 그의 말년에는 마약 중독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연주회 등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등의 기억 상실 증세를 보이다가 35세의 젊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등졌다. 누군

가가 그랬던가. 천재들은 신이 그의 천재성을 시기하여 단명할 수밖에 없다고. 아무튼 정말 소문처럼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는지, 아니면 신이 시기하였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는 이렇게 허무하게 비운의 생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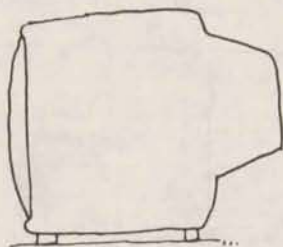
그가 생을 마감한지 4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영향력은 너무나 컸다는 걸 실감하게 된다. 트럼펫의 거장 마일즈 데이빗을 비롯하여 수많은 재즈맨들이 그의 영향을 받았고, 요즈음 새롭게 태어나는 여러 후학들도 끊임없이 버드를 모방하며 배우고자 노력한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가 쌓은 업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나는 듯 하다. 정작 자신은 자신이 천재인지도 모른 채 비참하게 죽어 간 ‘찰리파커’. 그러나 수많은 재즈 애호가들의 연인(?)이 되어 버린 ‘버드’, 모든 재즈맨들에게 알토색소폰의 신이라 추앙받으며 끊임없이 그의 연주가 공연장에서 울려 나오는 요즈음, 찰리파커. 그대가 너무나도스럽다.¹⁾ **종문**

1) 필자가 권장하는 찰리파커의 앨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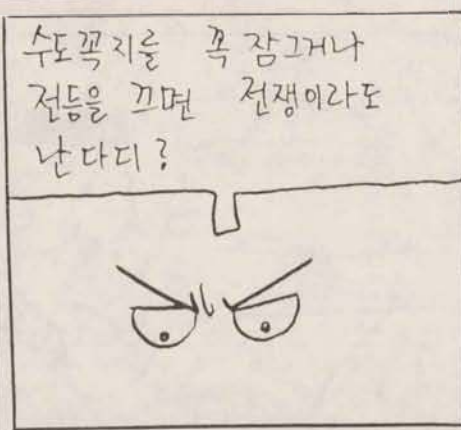
— Verve사에서 녹음한 ‘Bird : Complete Charlie Parker on Ver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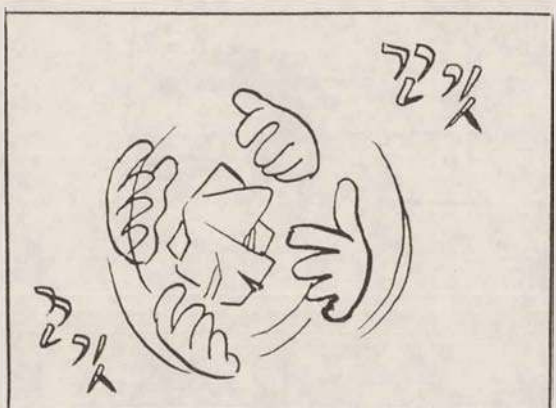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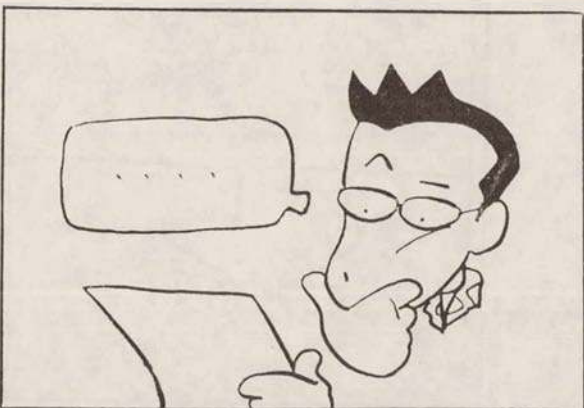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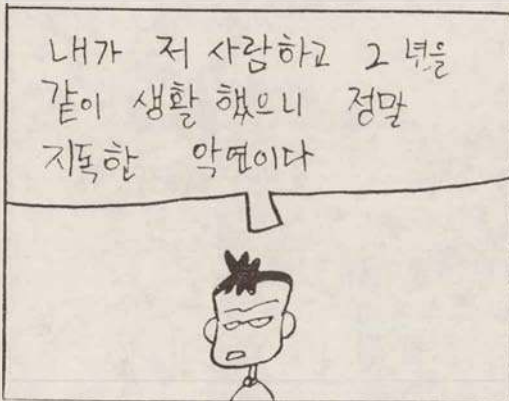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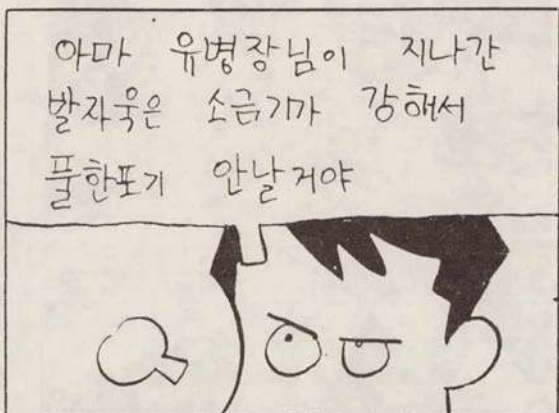
I am Figh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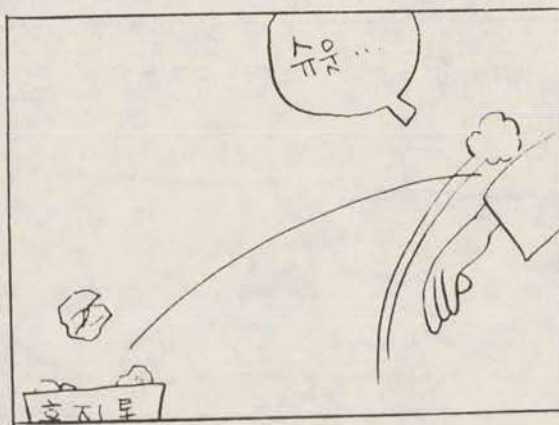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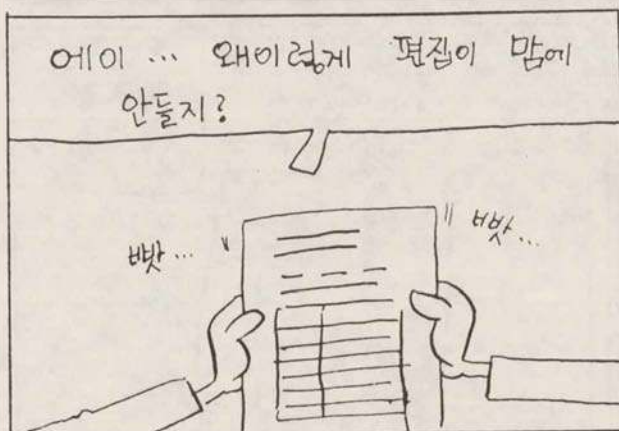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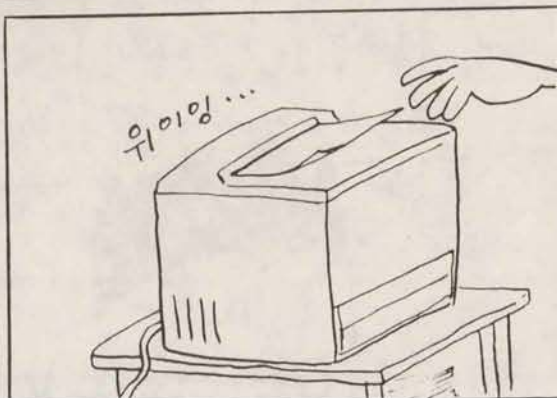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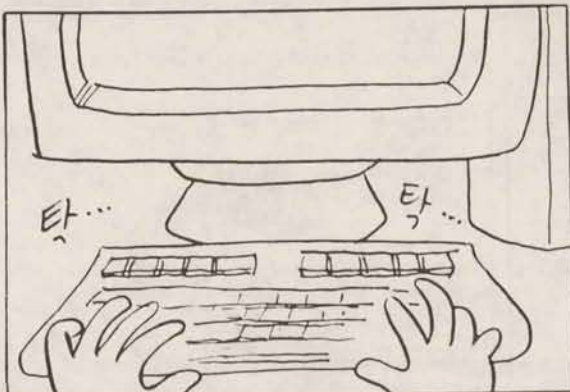
주가는 연일
폭락하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고 석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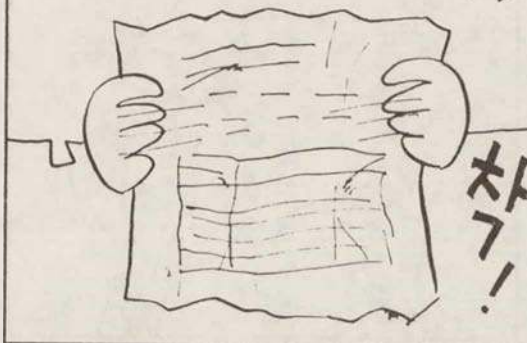
이 아까운걸 쓰레기통에
버려?



잘 낚아 증말!



네가 한번 쓰고 버리는 이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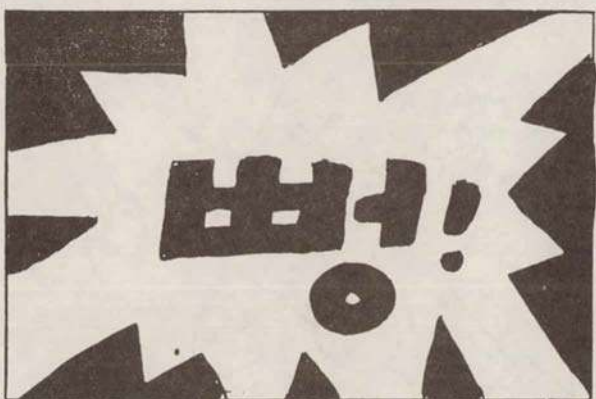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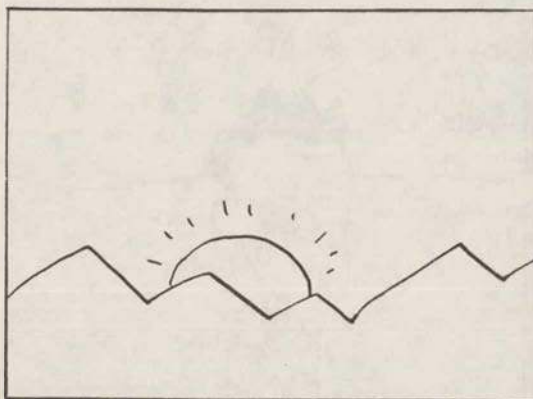
이면지로
쓰면
두 번...



재활용 하면 몇번은 다시
쓸 수 있는데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다닛!



터졌습니다!



뭐가?
전쟁?



우리나라에 달러가
바닥났대요



난 또.. 입마 그림 다시 채워놓으면 되지



그게 그렇게 간단한게 아니에요



달러가 없으면 무역이 중단되고
에너지 원이 수입이 안되고...
모든 기계가 멈추고...



그러면 전기... 수도가 끊어지고
운송수단도 움직이지 못하고...
전투기도 나르지 못하고...
등... 등...

뭐가 이래
복잡하냐?



지금 우리는 IMF에 지배
받는 경제 식민국이 되었다

교육장

하루 아침에 거대한
채무국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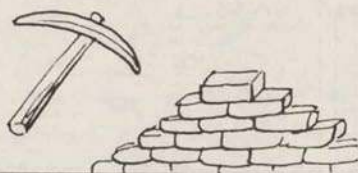
외제 상품 원호와 에너지 낭비가
보편화 돼선 우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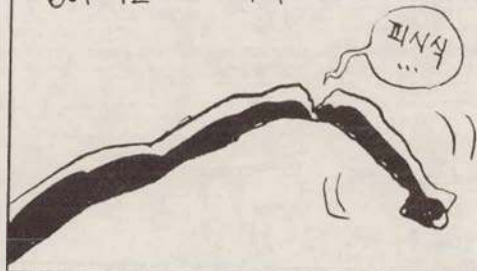
머리위의 왕관을
벗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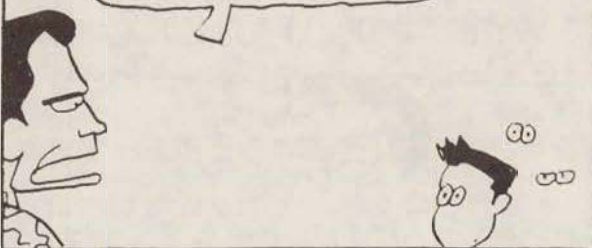
젊은 시절 먹지도, 쉬지도 못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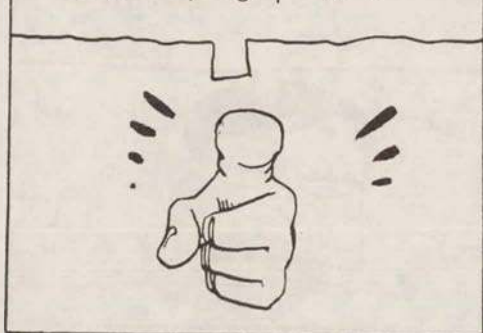
이젠 또 IMF다.
정리해고 다 해서



또다시 쉬지 못하고
계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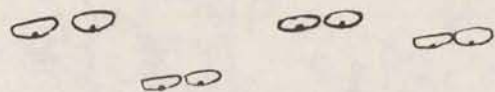
이젠 너희들의 몫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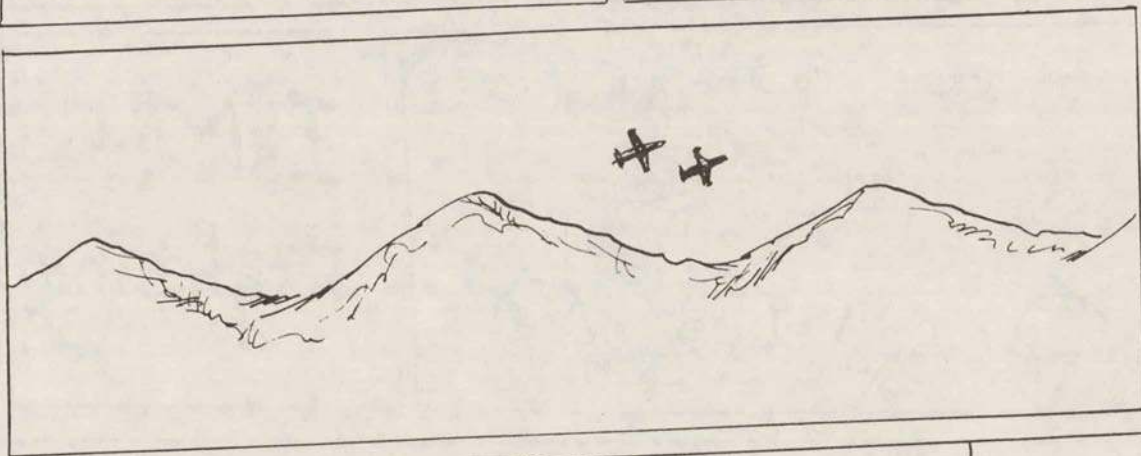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바빠들 각는 절약과 자기계발에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들은 감지기 부끄러워 졌다



우리 망토만 두른 겹테기 뿐인
왕자였었던 사실이



유병장님은 이럴때가 옳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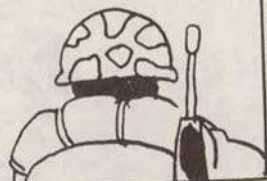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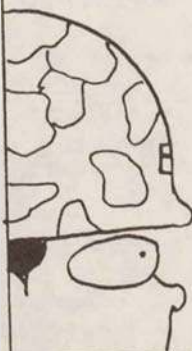
아니... 습관이지



우리 어디나. 아버지의
습관을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는거지



단지 그거야
습관...



오늘 우리는 휴전을 떠난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국민 모두가 경제
발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 방위에 전념하는 것이다



I a M
Fighting

I a M Future!



요즘 현대
유행어가
IMF 란요..

우리가 밟고 지난 자욱위엔 봄을 알리는 새순이 돋고 있다



공·군·문·단

수필

- 나의 헌혈 이야기
- 어떤 뷔페 잔치
- 우리의 벽을 허물며

동화

- 잃어버린 선물

시

- 씨는 자라서
하늘이 된다

나의 헌혈이야기

김 영 빈

하사/공군사관학교 전자계산소



조용한 주말, 숙소에서 쉬다가 시내로 나가 헌혈의 집을 들렀다.

24번째 헌혈. 93년 11월 입대와 동시에 처음 헌혈을 시작했는데 어느새 그렇게 되었는데…….

남들은 어떨지 몰라도 내게 있어 헌혈의 의미는 참 크다. 6살 때 동네 꼬마에게 돌로 코를 얻어맞아 다친 이후로 난 코피를 많이 흘렸다. 과장이 아니라 여태까지 내가 헛되이 흘린 코피의 양을 환산하면 몇 양동이까 나을지 모른다.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고비도 많았다. 과다출혈로 사망일보 직전까지 가 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것도 커다란 사고로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코를 통해 흘리는 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쉽게 상상이 되는지……. 혈관이 자주 터지곤 해서 인두로 지지고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는 일이 지겨울 정도로 병원 문턱을 들락거렸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엔 병원에 입원하여

수혈까지 받아 본 일이 있다.

거의 탈진 상태에서 다행히 피가 멎어 O형의 피를 수혈 받았는데 처음 느끼던 거부감도 잠시, 온 몸이 차차 시원해지는 느낌과 함께 잠이 들어 버렸다.

고 1때도 만만치 않았다. 증상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머리에 약간 힘만 들어가도 코에서 주르륵 피가 흘러내렸다. 어느 날에는 밤에 코피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오른 쪽을 숨으로 막으면 왼쪽으로 나오고 왼 쪽도 막으면 목줄을 타고 넘어가고, 혀로 그것마저 막으면 다시 막혀 있는 숨을 뚫고 피가 콧날 넘쳐흐를 정도였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리면 온몸이 차가워지면서 호흡이 가빠진다. 언뜻언뜻 죽음의 그림자가 비취지고 삶에 대한 애착이 일어난다. 오죽하면 살려달라고 헛소리까지 했을까. 코를 막고 있던 숨 때문에도 더욱 숨이 막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숨이나 한 번 크게 쉬고 죽자 하고 숨을 확 빼 버렸는데 다행히도 그 순간 피가 멎었다. 부모님도 안 계

셨었는데 한 바탕 난리를 피운 셈이었다. 얼마나 지쳤는지 탈진하여 잠이 들어 버렸다.

이렇던 나였기에 군에 오기 전에는 나 스스로도 헌혈 같은 건 엄두도 내지 못했다. 언제 또 쏟아질 지 모르는 코피에의 두려움이 항상 날 괴롭혔으니까. 덕분에 고교 1학년 때의 모든 생활이 엉망이었다. 건강도 성적도…….

조금씩 건강이 나아지게 된 계기는 고 2때 합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처음엔 엄청 몸을 사렸는데 나중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몸을 내 던졌다. 낙법도 무지막지하게 연습해 보고 무기도 열심히 내질러 보고 하면서 코피 대신 많이 부러지고 뼈고 하였다. 다행히 관장님께서 침술을 잘 하셔서 다친 모든 부위를 손수 고쳐 주셔서 이렇게 멀쩡히 걸어다니고 있다.

군에 입대하면서 교육사령부 안에서 처음 헌혈을 하게 되었다. 그때 당시에 많이 망설여졌지만 설마 내가 저 정도밖에 안 되는 피를 뽑고 무슨 일이야 있겠냐 싶어 당당하게 팔을 내밀었다. 사실 난 웬만큼의 피를 흘려도 별로 두려움은 없다. 다만 그것이 코 부위가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훈련에 들어가면서도 한바탕 부끄러운 에피소드가 있었다. 밖에서 상상하던 분위기와 판이하게 틀리던 특별 내무교육 기간이라는, 소위 군기 잡는 처음 2주 동안이 왜 그리 힘겹고 짜증스러웠는지 모른다. 그런데 어느날 밤엔가 코 속이 이상하여 만져보니 피가 묻어 나오는 게 아닌가? 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전엔 머리에 힘만 들어가도 코피가 터지곤 했는데 훈련과 기합 중에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다.

그래서 구대장 면담을 통해 도태를 생각하기도 했었다. 항의전대에 가서 진찰까지 받아보고

다행히 별 이상이 없다고 해서 결국 다시 훈련에 임하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우습고 부끄러운 기억이었다. 그래, 될 대로 돼라 하고 몸을 굴러 봤는데 야속하게도(?) 내 몸은 훌륭하게 적응을 했고, 임관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자대에 와서도 가끔 특박을 나가면서 눈에 띄는 헌혈의 집을 군복 입은 몸으로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헌혈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24번에 이르렀다.

의외로 사람들이 헌혈에 관해 무관심한 것 같다. 웬지 주사바늘이 거부감을 주는지 몰라도 내가 헌혈하러 가자고 하면 필쩍 뛰는 사람이 많다.

정상적으로 피의 성분 전체를 그대로 뽑는 것을 '전혈' 이라고 한다. 건강한 일반인이 전혈을 하게 되면 회복 기간이 2개월 가량 소요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3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헌혈을 해도 건강에 큰 지장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전혈과 달리 혈장 성분만 추출하는 '성분헌혈' 이 있는데 이것은 생성속도가 가장 빠른 혈장만 추출하기 때문에 그만큼 회복이 빠른 헌혈 방법이다. 전혈이 2개월이라고 한다면 성분헌혈은 2주만 지나면 헌혈에 동참할 수 있다. 정말인가 싶어 그렇게도 해 보았는데 내가 젊어서인지 별 무리가 없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혈액원에서 더 권장하는 건 혈장 성분헌혈이라는 점이다. 의료시약 등을 만드는 데에도 많이 쓰이지만 전혈을 통해서 많은 양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 전혈보다 시간이 좀 더 걸려서 그렇지 몸에 무리도 적고 효용도도 높은 혈장 성분헌혈이 한창 홍보되고 있는 추세다. 더군다나 우리 나라는 혈액의 대부분을 중국 등에서 수입하는데 32만 l 의 혈액에 지출되고

있는 외화가 연간 2천 5백만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주위 곳곳에서 외화가 새고 있는 걸 우린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우리나라의 헌혈 역사도 알고 보면 그리 길지 않다. 서양의학이 전래된 것도 오래지 않았고 본격적인 수혈지식을 체험하게 된 건 6.25 동란 때였다. 그 당시 국군 부상병들의 부족 혈액을 우린 부끄럽게도 미국인들의 그것을 사용했다. 우리와 체질도 다르고 정서도 다른 그들의 피가 우리 몸에 잘 맞겠는가? 하긴 그 당시는 그런 것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은가? 수많은 홍보와 계몽에도 아랑곳않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은 게 현실이다.

예전에 성덕 바우만 군에게 보여 주었던 수많은 이들의 온정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그도 매스컴의 덕이 아니었다면 뒤편길에서 조용히 삶을 마감했을지 모른다. 우리 사회엔 아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름도 모르는 희귀한 병—혈액에 관련된—때문에 고생하는 우리의 이웃들. 때론 작은 종이에 불과한 헌혈카드 1장이 그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하다. 친인척 중에 누군가가 백혈병 등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자. 그 많은 횃수의 수혈량을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가? 꼭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물건이 이 헌혈 카드가 아닌가 싶다. 내가 가지고 있던 헌혈 카드는 이미 남들에게 모두 주어서 남아 있는 건 최근에 했던 1장뿐이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조금이나마 삶의 연장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으리라. 무언가를 잔뜩 모아 놓았다가 한번에 써 버리면 허탈하지만 헌혈카드를 남에게 주는 건 전혀 아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다만 그네들에게 미미한 용기라도 북돋워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난 스스로 생각해도 뛰어나게 건강한 체질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틈틈이 운동을 하면서 몸이 허락하는 한 헌혈을 한다. 피가 모자라 죽을 뻔했던 어리던 날의 기억 탓일까. 굳이 남에게 봉사하겠다는 거창한 생각은 아니다. 다만 내 피가 누군가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만큼 내가 아직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인지도 모르겠다.

헌혈의 집에 가면 눈에 띄는 문구가 있다. “헌혈, 작은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영화 ‘러브스토리’의 여주인공같은 경우가 내 주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 장담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영화를 보며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릴 줄 아는 가슴을 지닌 사람이라면, 헌혈에 동참해 보았으면 싶다. 건강한 군인들이 앞장서서 헌혈을 한다면 외화난 극복에도 일조하는 길이 될 것이다. 말로만 IMF를 찾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맘들이 필요한 때이다.

또 헌혈의 집을 찾아봤다. 언제나 아가씨가 하는 한마디, “조금 아프실 거예요!” 하면서 사정 없이 주사를 찌른다. 으음~, 말이나 말 것이지. 하지만 이런 작은 아픔 쯤이야 웃으면서 견뎌내야겠지.

주위엔 정말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웃이 많이 있을 것이다. 작은 이웃사랑을 실천해 보는 시간을 한 번쯤 가져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젊은이들이여, 헌혈 한 번 해보지 않은 이가 과연 사랑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등문**

어떤 뷔페잔치

노 희 상¹⁾

안산대학교수/공군가족



우리나라 음식 문화도 많이 발전했다. 누군가가 퍼주고 떠주는 밥상 문화에서 이제는 자기가 직접 차려 먹는 이른바 '뷔페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가정에서도 결혼잔치나 회갑연, 돌잔치 등 큰 잔치를 치를 때면 집에서 힘들여 장만 하느니보다 가까운 뷔페식당과 계약을 하여 손님을 접대하는 수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접대 양식은 오늘날처럼 바쁜 세상에서 점차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번개같이 바쁜 나날에 어느 주부가 집안 큰잔치 음식을 집에서 다 차릴 수가 있을 것인가.

하지만 시골에서는 아직도 집에서 준비한 음식으로 잔치를 치르는 경우가 많고, 도회지일지라도 자식들 혼사 때면 몇 가지 음식이라도 집에서 장만해 가지고 상경하여 식당 음식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일이 많다.

며칠 전 나는 아내와 시내 모 예식장에 갔다.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비좁은 예식장은 발 디딜 틈이 없어 우린 축의금만 내고 안내된 뷔페식당으로 자릴 옮겼다. 늦은 아침을 먹은 탓인지 배가 별로 고프지 않아 과일 몇 쪽과 차나 한잔 할까 하여 예식장 이층으로 올라갔다. 대부분이 아녀자들인 하객들은 마치 선착순 경쟁이라도 하듯이 허위단숨에 이층으로 돌진해 들어가고 있었다. 기대가 가득 담긴 얼굴들로 말이다.

그러나 식당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나는 실망하고 말았다. 한마디로 숫제 난장판이었다. 시골 장터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질서'는 있기 마련인데, 예식장 이층의 뷔페식당에는 질서는 간데없고 정말로 이수라장(?)이었다. 시골벽적인 가운데 사람들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먹고 나오는 사람과 들어가는 축들이 문 앞에서 거의 몸싸움을 하듯이 부딪치고 있었는가 하면, 음식

1) 대위 노강철(공사 40기) 부친

을 나르느라 난리들이었다. 겨우 겨우 들어가 자릴 잡았으나 선택들이 어질러 놓은 식탁은 지저분하기 이를데 없고, 시중을 드는 총각들이 땀을 흘리며 마치 전천후 요격기같이 휘몰고 다니며 식탁을 닦고 있었지만 더럽긴 마찬가지였다. 식탁 위는 더 가관이었다. 방향도 없이 제멋대로 오가는 사람들 때문에 무슨 음식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고, 겨우 찾았다 해도 이미 접시는 바닥이 나 있기 십상이었다.

나는 주스 한잔을 따루어 들고 돌아와 앉아 주위를 둘러보다가 벌린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조금씩 제 양만큼 덜어다 먹는 것이 아니라 식탁마다 음식 많이 퍼오기 경쟁이라도 벌인 듯 산같이 쌓아놓고 희희낙락하고 있었다. 게다가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식탁마다 불고기판을 펴놓고 직접 구워먹는 것이니, 이건 뷔페와는 거리가 먼 이상한 식탁이었다.

그리고 식탁에 남기고 나간 음식이 반접시 이상이어서 그것을 치우는 종업원들의 수고 역시 만만찮은 일이었다. 종업원들이 음식쓰레기를 담아내는 행동도 아주 비위생적이어서 빈 라면 박스에다 비닐을 씌워서 그 안에 아무렇게나 담아서 메고 끌고 다니는 것이었으니, 정말 해도 너무한다 싶었다.

인간에게 식사란 무엇인가. 가장 소중한 생명을 연장하는 가장 숭고한 일인줄 모르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동안 너무 굶었기에 이런 때 배를 채워볼 요량으로 그러는 것일까. 아무려나 그날 식당에서 이백 여명의 손님들이 벌인 추태는 정말 잊어버리고 싶다.

조용히 그리고 여유있게 뷔페식사를 즐길 정도로 우리의 식사문화도 하루빨리 고상해져야 하겠다. **등등**

우리의 벽을 허물며

연 성 흠

병장/제8145부대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부모형제를 잃고 심신의 고통을 가지고 방황하는 어린이들이 급증하기 시작하자 무의무탁한 고아들을 건전한 시민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 육성하기 위해 은평 천사원이 설립되었다.

우리가 찾은 사회복지법인 은평 천사원은 정상고아 41명, 장애고아 110명이 살고 있다. 우리가 은평 천사원으로 간 목적은 자원봉사였다. 그 중에서도 겨울동안 장애우들이 먹어야 할 김장을 담그는 일이 우리의 주된 봉사이었다. 1200포기의 배추와 1100개의 무, 양념 등의 엄청난 양으로 김치를 만드는 일.

저녁을 먹고 난 후 우리 전우들을 뇌성마비(CP)1, 2급 장애우들과 함께 목욕탕에 갔었다. 휠체어 탄 장애인은 두 명, 나머지 8명의 장애인들은 우리 전우들의 양쪽 손을 잡고 갔다. 뇌성마비(CP) 장애우들의 옷을 입히고 벗기고 하는

시간이 생각 외로 많이 걸렸다. 물론 장애우들과 처음에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어디를 어떻게 닦아주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절로 났지만 그들은 즐거워했고 행동으로 이곳저곳 닦아달라고 표현했다. 그 장애우가 나의 등을 닦아주는 것이 너무 대견스러웠다.

나도 여기 와서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다. 은평천사원이 구산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구산동에 있는 주민들은 은평천사원을 잘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과 지체 장애우들의 생활환경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천사원을 가로질러 주택가에서도 항의가 가끔 온다고 했다. 이것은 장애우들이 우리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 데서 생기는 무관심과 무지의 소산일 것이다. 그들의 생각은 우리와 같다. 그들도 노래 잘하고 춤

잘추고 야한 비디오를 볼 줄 아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들이 장애우들을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나는 결원후원을 하고 있다. 나의 결원자는 은평천사원 정신지체(MP)1급, 김철홍 나이는 11세이다. 별명은 초롱이라 한다. 결원후원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한 아동을 정기적으로 돕는 것을 말하며 후원자가 보낸 후원금은 장애우들의 교육 재할용품 구입, 치료비 등 장애우들이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쓰인다. 아무리 도움이 절실한 아동이라 할지라도 그 아동이 처한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나가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그들을 도왔다고 말할 수 없다. 그들도 꿈이 있다. 그들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는 한 그 꿈은 좌절될 수밖에 없다.

장애우들의 뒤에는 항상 보육사님이 계신다. 그들의 잠재력을 깨워주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 전우들도 그 보육사님을 높이 평가했다. 보육사님도 자원봉사자였을 때와는 달리 보육사의 일을 해야한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하고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할까를 몰라 힘들었다고 한다. 그 보육사님들은 2~3주를 지내고 나서야 매일같이 주어지는 일 거리에 익숙해질 수 있었다고 한다. 보육사님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 얻은 교훈이 컸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던 선입관 속에서 살아왔다. 이곳 보육사님들이 그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좀 더 겸손하게 돌아 볼 수 있게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할 뿐이다. 장애우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보육사님들을 바라보며, 고마운 마음을 갖는다. 항상 끊임없이 아이들과 호흡하고 엄마, 친구가 되어 함께 하는, 언제나 깨어있는 삶을 유지하시길 바란다.

나의 생각은 이렇다. 갈수록 늘어나는 연장아들은 따뜻함을 느낄 가정적 공간이 없다. 그래서 자연 그들의 질서없는 집단이 한 귀퉁이에 구질 구질하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에게어느 누구도 왜 그렇게 사느냐고 나무랄 수만은 없으며 이들에게 더욱 우리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은평천사원에서는 매월 “사랑깊은 동산”이라는 천사원 소식을 발간하고 있는데 후원자가 보낸 편지, 자원봉사자들의 체험담을 적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읽어보면 가슴 뭉클한 내용이 많다.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내야 한다. 내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이며, 다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참으로 필요한 것은 ‘작은 관심’이다. 우리들의 조그만 ‘관심’이야말로 그들에게는 더 큰 소망이 될 것이다. 그들도 우리에게 ‘충성’이라 경례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다른 사람이 보면 우습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장애우들은 너무나 훌륭해 보였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해하고 그것이 애정이 담긴 진지한 행동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봉사활동은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으므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장인 동시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 과연 인간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과연 행복이란 무엇이며 정말 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사이에 한적한 초겨울 들녘은 무심히 차

창 밖으로 지나간다. 거기서 우리는 뇌성마비(CP)1,2급 장애우들과의 대화, 실제 체험을 통해 사회에서 소외되어 가는 이들의 순수함, 희망에 찬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즈음 이곳의 자원봉사들 숫자는 점점 줄어 들고 있다고 한다. 옆친데 덮친 격으로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후원금도 대폭 줄었다는 말 또한 들려왔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천사원을 잊지 않고 찾아와 준 자원봉사요원도 있었다. 우리 전우들도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소금에 절인 배추를 세 번에 걸쳐 깨끗이 씻고 식당으로 나르는 가운데 체력복 및 운동화가 다 젖었지만 자진해서 봉사활동을 간 우리 전우들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복한 삶을 찾아주며 더 많은 보람을 느끼는 것, 그런 봉사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곳 천사원에서는 물리치료, 언어치료, 직업훈련 등의 재활교육을 통하여 장애어린이들도 일반인처럼 꿈과 소망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버려진 장애아동들이 천사원에 처음 왔을 때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재활교육을 받아 견고 말하고, 글을 배워 글씨를 읽고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인가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가슴 속에서 생겨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직도 그곳은 많은 아동들이 평생을 누워지내야만 하고 다른 사람 없이는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이동할 수도 없는 상태이다. 그들은 장애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가정, 부모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는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도 밝은 소망을 가지고 많은 고통이 따르는 물리치료와 교육을 통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을 바라보는 이들도 많은 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등문**

잃어버린 선물

이 기 영

일병/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 작전과



아주 어렸을 때인 것 같습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재미있는 놀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주 예쁘고 그럴듯하게 꾸민 선물 상자를 친구들과 만들어 길가로 나아갔습니다. 시골길이었습니다. 자갈이 마구 널려 있고 먼지가 뿌옇게 하늘을 메우며 눈을 따갑게 하는 그런 시골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차가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드문드문 동네 사람들만이 지나다니는 이 길 가운데 선물 상자를 올려 놓았습니다.

한 행인이 걸어옵니다. 벌써부터 길가 옆 넝쿨 뒤에 숨죽여 숨어 있던 나와 내 친구들의 입가에는 웃음이 번집니다. 행인이 선물을 집었습니다. 슬그머니 옆을 살피고는 재빠르게 집어들더니 앞으로 몇 발짝을 성큼 뛰어갑니다. 다시 한번 주위를 살피는 듯하던 행인은 선물을 풀어 봅니다. 그리고는 옆으로 던져버립니다. 버려지는 상자에서는 토끼풀, 자갈, 모래 등 사람들이 전혀

반기지 않을 듯한 내용물만이 가득 내뿜어 집니다.

이렇게 몇 번씩 다른 이들의 기대에 대한 어긋남의 실망과 허탈감을 즐긴 우리들은 날이 저물어 갈 무렵 마지막 남은 상자를 조심스레 길 위에 올려놓고 다시 길 옆으로 숨었습니다. 수차례의 똑같은 장난이 조금은 지루해진 아이들은 조금 더 재미있는 일이 되었으면 하며 마지막 상자를 조심스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난 후 저 길 끝으로 할머니 한 분이 힘든 걸음으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상자의 주인은 저 할머니가 되겠구나 하면서 아이들은 나지막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커지던 할머니의 모습이 우리들의 선물 앞에 우뚝 서 버렸을 때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위를 한참이고 지켜보시던 할머니는 자신의 가장 빠른 동작으로 선물을 집어 치마폭에 숨기고서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에는 과자가 들어 있을려나 그럼 우리 이쁜 손주놈이나 주어야겠구만, 아니여 혹시라도 돈이 들어 있으면……. 그러 그럼 만날 뽕뽕거리거나 하는 며누라기한테 크게 한번 뽕여보야 쓰겠구만. 그러 돈이나 많이 들어있음 좋겠구만’ 하시면서 손주놈 얼굴 며느리의 얼굴 등을 떠올릴 것입니다.

나이든 몸으로 잘 견지도 못하시는 분이 젊은이의 걸음걸이 속도만큼밖에 안될 뽕박질을 하시면서 몇 번씩 자갈길에서 넘어지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풀숲에서 길가로 나와 할머니를 보고 외쳤습니다.

“할머니, 그건 저희 거예요.”

“아녀 무슨 소리여 이건 내 것이여”

“아녀요 거긴 못쓰는 것들만 들어 있어요. 그건 저희 거예요”

“거짓말 말어 이건 내 것이여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줄 것 같은감”

할머니는 몇 마디의 말을 내뱉으시고는 뛰기 시작하셨습니다.

치마저고리 무릎 쪽에는 몇 번씩이나 넘어져서인지 흙과 피가 범벅이 되어 묻어 있었지만 선물을 숨기고 있는 손에는 잔뜩 힘이 들어간 채로 계속 뛰어가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을 모아 놓고 선물을 풀어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실망의 빛이 돌고 다른 식구들은 허허 웃어버릴 것입니다. 웃음소리가 가슴에 맺히며 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우리들을 원망할 것입니다. 손자 놈에게 웃음거리가 되어 버린 할머니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해 하실지도 모릅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등등**

씨는 자라서 하늘이 된다.

박 웅 진¹⁾

시인



멀리 바라다 본다
시선이 머무는 곳에
마음의 문을 열고
허름한 꽃씨 하나 심는다

씨는 자라서
산이 되고
물이 되고
나무가 된다
그리고
바람과 구름이
머물다가 갈
정갈한 나의 집이 된다

더 멀리 바라다 본다
 시선이 머무는 곳에
 마음의 문을 열고
 허름한 꽃씨 하나 심는다

씨는 자라서 하늘이 된다

1) 공군사관학교 졸업(4기), 문학박사, 경영학박사

■ 시작(詩作)노트

무한한 우주공간과 신비로운 사연의 조화로운 메타포어를 연결시켜 인간의 내면적인 시 세계를 조명하였다. 또한 4차원적인 하늘은 우리 공군의 상징적인 날말인데 이는 공군사관학교가 있었던 보라매공원과 동화될 수 있는 환타지를 그려냄으로써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시적 감흥을 불러 일으키도록 하였다. 이 시는 보라매 공원에 세워진 박웅진 시비(詩碑)의 전문이다

공군

1998년 봄호(통권 제242호)

...
글을 기다립니다.

구 분	내 용	분 량
보라매칼럼	의식적 차원에서 권장할 사항	20매 내외
시사, 안보	— 군 전략 및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것 — 군과 관련된 군내외 시사문제	40매 이내
군사지식	공군 및 군대 전반에 관련된 지식 및 정보	40매 이내
공군논단	시사안보를 제외한 연구분석 발표	40매 이내
취미생활	타인에게 권할 만한 취미 소개	30~40 내외
장병문예	단편소설, 시 등 문학작품	20~30 내외
병영이야기	병영생활을 소재로 한 에피소드	제한없음
기 타	— 공군정책 제안 — 부대동정 사진 — 공군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알림

본 도서는
공군장병들의
교양함양과 건전한
읽을거리 제공을 위하여
발간된 것으로
게재된 내용은 공군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 간 : 연중

▶보낼곳 : — 각 부대 정훈참모(“공군지” 제출 원고임을 반드시 명기 바람)

— (320-919) 공군지 편집실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310

※ 반명함판 사진 1매, 연락처 명기

▶전 화 : (호)6232 (02) 506-6232

(042) 552-6232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원고 송부시 계좌번호 기입 바람)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발행일 : 1998년 3월 30일

■인쇄처 : 인쇄/출판 금성산업

T. (042) 254-7434, F. 256-7434



제20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 항공기 대회

본 선 대 회

- ◆ 일시 : 1998년 5월 17일 일요일
※우천시 : 5월 24일 일요일
- ◆ 장소 : 공군사관학교 (청주)
- ◆ 주최 : 공 군 본 부

